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이재영 · 신현준 편저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이재영 · 신현준 편저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중앙아시아 |

이재영 · 신현준 편저

.....

서 언

과거 구소련 구성공화국이었던 중앙아시아는 구소련 해체 이후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침체를 딛고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수출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자원 수출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원동력 확충을 위해 자국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과 역내 경제협력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높은 성장성·시장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경제·통상 대상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가스·광물 자원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러시아와 함께 중동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유럽, 러시아, 중동, 중국 등에 둘러싸여 있어 지정·지경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지역이자 새로운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무역 및 투자, 자원개발협력, 대외원조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통상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전반적으로 기대나 잠재력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중앙아시아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 경제개발 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 △ 전략적 지역협력력을 통한 경제·안보 공동체 건설 △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등 4가지를 대중중앙아시아 통상전략의 실천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제별로 다양한 범주의 추진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이 다년차 과제로 진행 중인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원에서는 2006년에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보고서 시리즈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국별·지역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다루는 총괄보고서와 함께, 국별·지역별로 출간되는 12개의 보고서 중 중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이재영 부연구위원과 신현준 연구원이 작성하였습니다. 제 4장은 박상남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강명구 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 겸임교수가 집필해주었습니다.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본원의 김홍중 유럽팀장, 남호선 연구원, 김연수 연구조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의 이종문 연구교수 등과 익명의 평가자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연구되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이에 따른 통상전략 및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영되고, 아울러 정부의 대중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을 평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라도 하나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과제를 필두로 학계에서도 대중중앙아시아 통상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한국의 주요 국별·지역별 통상전략 수립을 위한 중심연구주제 중의 하나로 부상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원장 이 경 태

.....

국문요약

최근 중앙아시아는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딛고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수출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한국의 주요 중장기 통상전략 대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에너지자원에 편향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원동력 확충을 위해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과 역내 경제협력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앙아시아 경제는 높은 성장성·시장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통상대상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석유·가스·광물 자원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러시아와 함께 중동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공급원이며, 유럽, 러시아, 중동, 중국 등에 둘러싸여 있어 지정·지경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지역이자 새로운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중앙아시아의 세 가지 전략적 가치로서 △ 높은 성장성·시장성을 보유한 신흥 무역투자대상지역 △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새로운 자원공급원 △ 국제정치질서에서 신 거대게임의 중심지 등을 제시하였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와 양자간 및 다자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원조성 투자를 바탕으로 에너지자원 개발에 진출하고 있다. 일본도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채널을 바탕으로 과감한 대외원조를 제공하면서 민간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EU은 개별 회원국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을 통한 원조를 바탕으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인 중앙아시아 협력 파트너인 러시아는 적극적인 대중중앙아시아 외교를 추진하면서 체제

전환 초기에 멀어졌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무역 및 투자, 자원개발협력, 대외원조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통상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전반적으로 기대나 잠재력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제는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대해 갖는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중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6년에 제시한 한국 통상정책의 3대 전략 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대중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전략으로 채택하고,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경제개발 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 △전략적 지역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공동체 건설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등 네 가지를 대중중앙아시아 통상전략의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본전략하에서 실천과제를 면밀하게 수행하기 위해 과제별로 추진정책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실천과제인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서는 i) WTO 가입을 유도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며, ii) 국가 주도로 현지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무역 및 투자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대화를 통해 WTO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양자간 대화를 통해 중앙아시아 5개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여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경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려는 민간기업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실천과제인 ‘경제개발 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을 위해서는 i) 대외원조의 확대 및 재구성, ii) 특혜관세제도의 수혜국 지정 등을 제시하였다. 중앙아시아가 지닌 높은 전략적 가치에 비해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대외원조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중앙아시아에 공여되는 원조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변화하는 중앙아시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혜대상국을 확대 및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특혜관세제도(GSP)를 부여하여, 이들 국가의 제조업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실천과제인 ‘전략적 지역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공동체 건설’을 위해 i)유라시아 지역협력체의 전략적 참여, ii)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의 심화 및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들은 유라시아 대륙 경제질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하고자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협력체에 참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SCO 가입을 추진하여 급변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또한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최초의 다자간 협력체인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을 확대·발전시켜 유라시아 대륙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실천과제는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i)호양 및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 ii)‘자원개발협력위원회’ 상설을 통한 정부 지원구조 확립의 두 가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중앙아시아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중앙아시아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이 한국에 요구하는 제조업 및 기술을 제공하는 호양(Give-and-take) 전략과 한국의 비교우위산업(IT, 건설, 플랜트 등) 진출과 해외자원개발을 포괄하는 패키지(package)형 진출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자원개발 지원구조를 ‘자원개발협력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천과제 및 과제별 추진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과 투자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개발하고, 한국 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차 례

서 언	5
국문요약	7
제1장 서 론	이 재 영 17
제2장 중앙아시아의 경제 현황과 전망	이 재 영 23
1. 국가별 경제 현황	25
가. 카자흐스탄	25
나. 우즈베키스탄	41
다. 키르기스스탄	50
라. 타지키스탄	57
마. 투르크메니스탄	63
2.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 평가와 중장기 전망	72
가. 경제성장	72
나. 시장평가	75
다. 중장기 경제발전 전망	80
제3장 중앙아시아의 통상 현황 및 정책	이 재 영·신 현 준 85
1. 대외무역	87
가. 무역동향	87
나. 무역 상품구조	90

다. 무역의 지리적 분포	93
라. 무역정책	95
2. 외국인투자	97
3. 역내외 경제협력	101
가. 지역경제협력	101
나. 다자간 자유무역협력	107
다. 에너지협력	110

제4장 주요국의 대(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 상 남 · 강 명 구	115
1. 미국	117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117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119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122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24
2. 일본	124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124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127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130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31
3. 중국	132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132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133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137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38
4. EU	139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139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141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144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45
5. 러시아	146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146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148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152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53

제5장 한·중앙아시아 통상 현황 및 평가 신 현 준 155

1. 무역 및 투자	157
가. 무역동향	157
나. 국가별 교역동향	159
다. 무역구조	162
다. 투자동향	164
라. 투자패턴	166
2. 자원개발협력	169
가. 한국의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정책	169
나. 석유·가스	174
다. 광물자원	177
3. 대외원조	180
가. 한국의 중앙아시아 대외원조정책	180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	181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84
4. 종합평가	187

가. 무역 및 투자	187
나. 자원개발협력	190
다. 대외원조	192

제6장 한국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 이 재 영 · 신 현 준	195
1.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197
가. 높은 성장성 · 시장성을 보유한 신흥 무역투자 대상지역	197
나.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새로운 자원공급원	198
다. 국제정치질서에서 신 거대게임(New Great Game)의 중심지	200
2. 기본전략 및 실천과제	201
가. 기본전략	201
나. 실천과제	204
3. 실천과제별 추진정책	208
가.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208
나. 경제개발 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	210
다. 전략적 지역협력을 통한 경제 · 안보 공동체 건설	212
라.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215

제7장 요약 및 결론 이 재 영 · 신 현 준 219

참고문헌 227

Executive Summary 238

.....

표 차례

표 2-1. 카자흐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27
표 2-2.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	29
표 2-3. 카자흐스탄의 공업생산구조	30
표 2-4. 카자흐스탄의 부문별 고정자본투자	34
표 2-5. 2006년 카자흐스탄의 수출입 구조	36
표 2-6. 카자흐스탄 「산업혁신발전전략 2003~2015」의 세부 정책	37
표 2-7.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및 IT 발전계획	40
표 2-8.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43
표 2-9.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	45
표 2-10. 우즈베키스탄의 공업생산 구조	46
표 2-11.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49
표 2-12. 키르기스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52
표 2-13. 키르기스스탄의 경제구조	54
표 2-14.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57
표 2-15. 타지키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59
표 2-16. 타지키스탄의 대외부채	60
표 2-17. 타지키스탄의 경제구조	61
표 2-18. 타지키스탄의 알루미늄 생산 및 가격 동향	62
표 2-19.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66
표 2-20.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	68
표 2-21. 투르크메니스탄 5대 석유·천연가스 산업의 국영기업 현황	68
표 2-22.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운영기금 현황	69

표 2-23.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및 가스 생산 동향	69
표 2-2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GDP 증가율 동향	73
표 2-25.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GDP 동향	75
표 2-26. 중앙아시아 6개국의 시장성 지표(2006년)	76
표 2-27. 중앙아시아 5개국의 성장성 지표	77
표 2-28.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자유도 지수	80
표 2-29.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전망	81
표 2-30. 2020년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시장성 전망	82
표 2-31. 2020년 중앙아시아 5개국의 성장성 전망	83
표 3-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무역 동향	90
표 3-2. 중앙아시아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 동향(2001-2006년)	90
표 3-3. 중앙아시아 각국의 역내교역 비중	93
표 3-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수출입대상국 및 비중	95
표 3-5.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수입관세율 현황	97
표 3-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누적액	99
표 3-7.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그린필드형(공장설립형) 외국인직접투자 건수 ...	100
표 3-8.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간 인수합병(M&A) 매도 건수 및 금액	101
표 3-9.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WTO 가입추진 현황	109
표 4-1. 미국의 대중중앙아시아 무역 추이	120
표 4-2. 미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국별 투자 현황	121
표 4-3. 일본의 대중중앙아시아 무역액 추이	128
표 4-4. 일본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130
표 4-5. 중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연도별 무역액	135
표 4-6. 중국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136
표 4-7. EU 주요국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144

표 4-8. 러시아의 對중아시아 5개국 연도별 수출 추이	150
표 4-9. 러시아의 중아시아 투자 추이	151
표 4-10. 러시아의 대중아시아 투자 현황	152
표 5-1. 한국의 대중아시아 수출입 국가별 비중(2006년)	161
표 5-2. 한국의 대중아시아 국가별 교역 동향	162
표 5-3. 한국의 대중아시아 국가별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2006년)	164
표 5-4. 한국의 중아시아 국가별 투자동향(순투자기준)	166
표 5-5. 최근 한국의 중아시아 투자 현황: 업종별(2004~2006년)	168
표 5-6. 최근 한국의 중아시아 투자 현황: 투자목적별(2004~2006년)	169
표 5-7. 최근 한국의 중아시아 투자 현황: 기업규모별(2004~2006년)	170
표 5-8.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172
표 5-9. 한국의 자원협력위원회 운영 현황	174
표 5-10. 한국의 중아시아 석유·가스개발 현황(2007년 6월 기준)	177
표 5-11. 한국의 중아시아 광물자원 개발 현황(2007년 6월 기준)	179
표 5-12. 한국의 중아시아 자원개발 일지(2007년 6월 기준)	180
표 5-13. 한국의 대외원조 중점지원국가 운영 현황(2006년 말 기준)	182
표 5-14. 한국의 KOICA 무상원조 세계 지역별 비중	183
표 5-15. KOICA의 중아시아 무상원조 동향	183
표 5-16. KOICA의 중아시아 세부사업별 무상원조 실적(1991~2006년)	184
표 5-17. EDCF 지원대상국가 분류표	186
표 5-18. EDCF 지원 국가별 승인현황(2006년 말 기준)	186
표 5-19. 중아시아 국별 EDCF 지원 승인 및 집행 현황(2006년 말 기준)	187
표 5-20. HIPC 이니셔티브 채무구제 단계별 국가 현황(2007년 3월 기준)	188
표 6-1. 중아시아 주요국의 석유·가스 확인매장량 현황(2006년)	200
표 6-2. 중아시아 주요국의 석유·가스 생산량 현황(2006년)	200

.....

그림 차례

그림 2-1. 카자흐스탄의 석유 및 가스 콘덴세이트 생산 동향 및 전망	30
그림 2-2.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생산 동향 및 전망	31
그림 3-1. 중앙아시아의 대외무역 동향	89
그림 3-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상품구조	91
그림 5-1.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교역 동향	158
그림 5-2.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앙아시아와의 교역 비중	160
그림 5-3. 중앙아시아 대외무역에서 한국과의 교역 비중	160
그림 5-4.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국가별 수출 동향	163
그림 5-5.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국가별 수입 동향	163
그림 5-6.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의 국별 비중 변화	167
그림 5-7. 한국 기업이 개발·생산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자원 광구	171
그림 6-1.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개념도	218

제1장 서론

이재영



01

서론

이재영

세계 주요국 및 지역 중에서 최근 중앙아시아가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자연적 경계로서의 지리적 공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발전과정에 의해서도 타 지역과 구분된다. 지정학적인 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400만km²의 면적, 6천만 명의 인구, 풍부한 석유, 가스, 비철금속 및 기타 광물자원, 광활한 농지 및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다.

한때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구소련 시기 세계경제의 변방에 불과하였으나, 구소련에서 독립한 1991년 말 이래 획기적인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혁의 길로 접어들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에 극심한 경제침체와 사회불안을 겪기도 하였으나, 새 밀레니엄이 시작된 이후 석유·가스를 비롯한 막대한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에너지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 에너지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에너지 수출을 기반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높아진 구매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교역대상지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주요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어 중

요한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중앙아시아는 통상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앙아시아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자본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교역 및 투자대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1990년대 초 중앙아시아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과 한국기업의 수출 및 투자 진출 러시로 우리와의 경제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가 체제전환의 후유증을 겪고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와의 경제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이후 중앙아시아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서방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중앙아시아에 적극 진출했다. 한국은 최근에서야 비로소 중앙아시아가 지닌 통상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더욱이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략 연구 또한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국한된 임시방편적 일회성 연구에 그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對)세계 중장기 통상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통상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대(對)중앙아시아 통상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구체적인 통상전략 및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의 경제 ·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통상 현황을 분석 · 평가하며, 세계 주요국들의 중앙아시아 통상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바람직한 한국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국내외 문헌연구와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수행되었다. 우선 중앙아시아의 1차 자료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된 중앙아시아 관련 문헌과 최신 정보들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연

구의 객관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중앙아시아 현지지를 방문하여 현지조사, 현지 전문가 인터뷰, 정부기관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중앙아시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 현황과 경제 및 산업구조,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고 중장기 경제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정학적 개념으로서, 부존자원을 비롯한 경제적 환경은 비교적 유사하나, 국가별로 경제현황 및 정책 등에서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3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투자, 역내외 경제협력 등과 관련된 통상 현황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이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상 현황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본 장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이 공유하고 있는 통상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하되 국가별 특수성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4장에서는 현재까지 한·중앙아시아 통상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도출할 것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1990년대 초부터 교역 및 투자를 시작하였다. 한국은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중앙아시아를 우리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투자처로 인식하고 민관 합동으로 자원개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의 경제개발을 돕고,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통상관계를 교역 및 투자, 자원개발협력, 한국의 중앙아시아 대외원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5장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EU,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와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는 세계 강대국들의 대(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을 분석할 것이다. 주요 강대국들은 지정학적으로 EU, 러시아, 중국, 중동 등 주요 경제권 사이에 위치해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는 중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와 에너지 획득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및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실리적인 통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요 강대국들의 통상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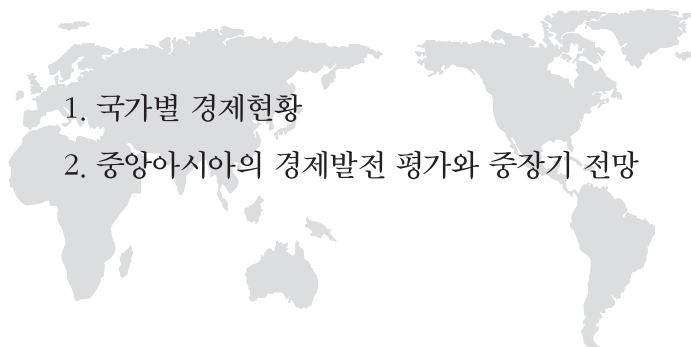
6장에서는 2~5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 재조명함과 동시에 통상목표 및 기본전략, 부문별 통상정책과제 등 단계적인 한국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7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더불어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제2장

중앙아시아의 경제현황과 전망

이재영



중앙아시아의 경제 현황과 전망

이재영

1. 국가별 경제 현황

가. 카자흐스탄

1) 경제 동향

중앙아시아의 최대 영토 보유국이자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카자흐스탄은 2000~2006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3%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체제전환 초기인 1994년 -12.6%로 최악의 경기침체를 보인 카자흐스탄 경제는 1999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2001년 13.8%, 2005년 9.5%, 2006년 10.6% 등 지속적인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95년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 1,052.1달러로 러시아연방보다 2배 이상 낮았으나, 2004년에는 2,713.8달러로 증가하여 러시아연방 수준의 약 80%에 이르렀다. 2005년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 3,620달러, 2006년에는 5,120달러를 기록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경제성장 배경은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 and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 비교적 빠른 시장개혁 속도와 더불어 최근 국제 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출증대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 투자 및 소비의 건실한 증가에 있다. 카

카자흐스탄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약 90억 배럴(세계 17위), 추정매장량은 966억 배럴로 파악되고 있으며, 총수출에서 석유 · 가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의 산업생산은 2000~2006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7년 1/4분기에는 9.6%를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총투자도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42.7%와 31.3%의 경이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카자흐스탄의 실질가처분소득도 2005년과 2006년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채택한 데 기인한다. 특히 2006년 7월 1일부터 국가의 특별보조금과 연금 규모가 증가하였고, 2007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이 평균 30% 인상하였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NBK)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카자흐스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58% 증가한 10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22%가 채굴 · 채광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표 2-1. 카자흐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구분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실질GDP증가율	%	13.5	9.8	9.3	9.6	9.7	10.6
산업생산증가율	%	23.1	10.0	8.8	10.1	4.6	7.0
소비자물가상승률	%	6.4	6.6	6.7	6.7	7.6	8.6
총투자증가율	%	44.7	109.7	5.8	7.6	42.7	31.3
수출	십억 \$	8.9	10.0	13.2	20.6	28.3	38.8
수입	십억 \$	7.9	8.0	9.6	13.8	18.0	24.1
재정수지	%/GDP	-0.4	-0.1	-1.2	-0.3	2.5	1.7
경상수지	%/GDP	-6.5	-4.4	-0.9	0.5	-0.5	-1.8
외환보유액	십억 \$	2.5	3.1	5.0	9.3	7.1	21.9
환율(기간평균)	Tenge/\$	146.74	153.28	149.75	136.04	132.88	126.09

자료: ADB(2007); Global Insight(2007).

정부의 사회지출 및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2004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재

정수지는 2005년부터 흑자기조로 돌아섰다. 경상수지도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무역수지의 흑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조만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액은 2005년 71억 달러였던 것이 2006년에는 200% 이상 늘어난 2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카자흐스탄 국가기금¹⁾에도 2006년 7월 기준 약 91억 달러의 자산이 축적되어 있다.

반면 석유·가스 수출 중심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시경제의 불안정 현상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중앙은행 목표치인 5~7%를 벗어나고 있는 소비자물가가 문제이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6년 8.6%, 2007년 1/4분기 8.1%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은 고유가에 따른 외화유입 급증, 재정지출 증대, 국민소득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통화량이 1999년에서 2004년까지 10배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70%나 증가하였다. 특히 상업은행들의 대출규모는 2000년에서 2005년까지 14배 이상 증가하여 16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6년 상업은행들이 제공한 신용규모는 전년대비 82.7% 증가한 4조 7,360억 텡게를 기록하였다.²⁾

또한 카자흐스탄 텡게(Tenge)화의 對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절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고유가에 의해 동반된 석유부문의 가속적인 발전과 탄화수소 수출에 의한 자본유입의 확대는 달러에 비해 카자흐스탄 텡게화의 강세를 촉진시켰다. 특히 카자흐스탄 텡게화의 절상은 다른 에너지 수출국처럼 국내 제조업 생산자들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네덜란드병’의 징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이 안정적인 경제성

1) 2000년 8월에 설립된 카자흐스탄 국가기금(The National Fund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하자원(석유, 가스, 광물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해외 유망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안정화기금이다. 카자흐스탄 국가기금의 기능은 크게 저축 기능과 안정화 기능의 2가지로 나뉜다. 저축 기능은 기금 축적을 통해 지하자원이 고갈된 이후 세대의 투자재원을 예비하기 위함이고, 안정화 기능은 국제 지하자원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 재정 및 경기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은행들의 신용규모 증가는 대외부채가 증가하는 배경 속에서 일어났다. 특히 은행들의 대외부채는 2004년 말의 77억 달러에서 2006년 말 560억 달러(카자흐스탄 GDP의 72%)로 증가하였다.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화, 인플레이션 상승률 인하, 탕계화에 대한 유연한 정책 실행, 은행부문의 강화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7~2009년 카자흐스탄 경제 · 사회발전 중기계획’에 따르면, 2007년 카자흐스탄의 GDP는 전년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7년 대외무역 흑자규모는 64억 달러, 2008년에는 53억 달러로 전망된다. 2007~2008년 평균 인플레이션은 5~7%선으로 전망된다. 2007년도 국가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1.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7.5% 수준에서 고정할 예정이다.

2) 경제 및 산업구조

[표 2-2]에 나타난,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 대신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매우 증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92년 GDP에서 23.1%를 차지했던 농업의 비중은 2006년에 5.5%로 줄어들었으나,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41.5%로 증가하였다. 공업의 비중은 큰 변화 없이 GDP의 약 30%를 유지하고 있다.

표 2-2.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

(단위: GDP 대비, %)

구분	1992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공업	30.9	32.7	30.7	29.5	29.1	31.1	29.8	29.5
건설	8.7	5.2	5.5	6.3	6.0	5.9	7.8	8.9
농업	23.1	8.1	8.7	8.0	7.8	7.9	6.4	5.5
운송 및 통신	7.4	11.5	11.2	11.6	12.4	12.2	11.8	11.1
서비스 분야	25.4	36.6	39.0	39.0	39.4	38.5	40.2	41.5
기타	4.5	5.9	4.9	5.6	5.3	4.4	4.0	3.5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전체 공업생산 구조에서 채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전체 공업생산의 57.9%를 차지

표 2-3. 카자흐스탄의 공업생산구조

(단위: 공업 총생산량 대비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채굴업	44.5	44.3	47.9	48.4	53.4	59.4	57.9
제조업	46.5	46.9	43.3	42.9	39.7	35.2	36.7
전력, 가스, 수도	9.0	8.8	8.8	8.7	6.9	5.3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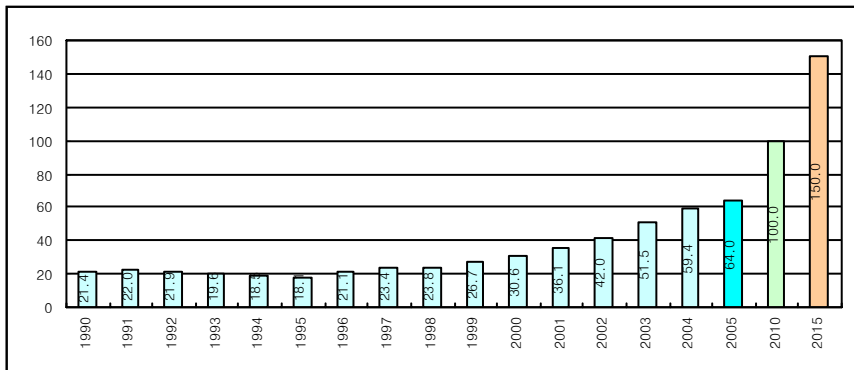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36.7%로 2000년에 비해 9.8% 포인트 줄어 들었다.

카자흐스탄의 최대 산업은 석유가스 산업이다. 전 세계에서 탐사된 석유 매장량의 3.2%(46억 톤)를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세계 10대 석유자원 부국에 속한다. [그림 2-1]에서 나타나듯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는 2005년에 6,400만 톤,³⁾ 2010년에 1억 톤, 2015년에 1억 5,000만 톤의 석유 및 가스 콘덴세이트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⁴⁾ 카자흐스탄 정부는 생산 전망치를 실현하기 위해 석유생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림 2-1. 카자흐스탄의 석유 및 가스 콘덴세이트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Султьнов Б. К.(2005), p. 32에서 재인용.

3) 그러나 2005년에는 총 6,190만 톤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00~2005년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10~15%를 기록하였다(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5,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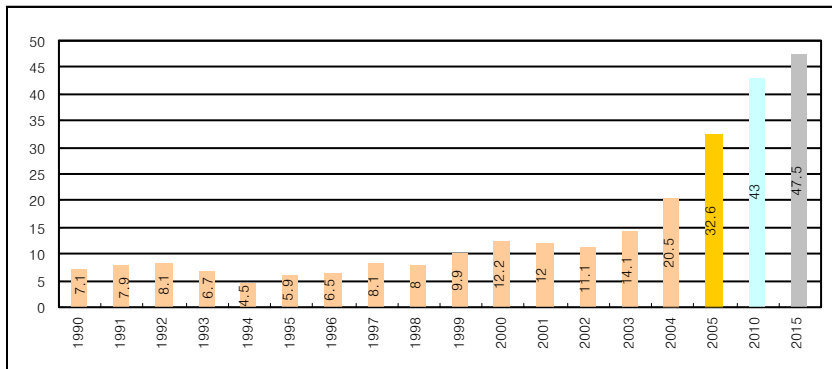
4) Султьнов Б. К.(2005), p. 33.

주요 유전으로는 카스피해 연안을 중심으로 탱기즈, 카라차가나크, 카샤간, 쿠르만가지 등이 있다. 석유 가공 및 정제 시설은 남카자흐스탄주, 아티라우주, 파블로다르스크주 등 3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3개 지역은 카자흐스탄 석유가공제품의 각각 44.0%, 27.5%, 26.0%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정유공장으로는 카자흐스탄에는 ‘아티라우 정유공장’, ‘파블로다르스크 정유공장’, ‘페트로 카자흐스탄 오일 프로덕스’ 등이 가동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의 전권은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회사인 카즈무나이가즈(Kazmunaigaz)가 쥐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2년 이후 카자흐스탄 석유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는 카즈무나이가즈와 합작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특히 합작 시에는 반드시 카즈무나이가즈가 지분 혹은 수익배분 계약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석유산업의 85%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05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규모는 총 17억 달러로, 이 중 78%가 석유산업에 집중되어 26%는 석유 생산에, 52%는 신규 유전 탐사 및 시추에 사용되었다.⁵⁾

■ 그림 2-2.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생산 동향 및 전망 ■

(단위: 10억m³)



자료: АРКС и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 2015 г.

5) 이재영 · 박상남 편(2007), p. 69.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세계 확인 매장량의 1.5%인 22조m³에 이른다. 2004년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45.9% 증가한 205억 m³였다. 카자흐스탄의 경제 및 예산기획부에 따르면, 2005년에는 326억m³, 2010년에는 430억m³, 2015년에는 475억m³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⁶⁾ 카자흐스탄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석유와 함께 생산되는 부수 가스로 주로 카라차가나크 유전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2015년까지 카자흐스탄 가스산업 발전개념에 따르면, 2015년 카자흐스탄 국내 가스시장 규모는 약 100~150억m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채굴되는 석유 및 가스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예컨대 2004년 카자흐스탄은 5,000만 톤 이상의 석유 및 가스 콘덴세이트, 약 1,800만 톤의 천연가스를 수출하였다. 현존 운송 시스템을 통한 수출노선을 따라 운송되는 석유는 연간 약 5,000만 톤에 달하며, 이 가운데 파이프라인을 통해 3,800만 톤(76%)이 운송되고, 해운 및 철도가 각각 600만 톤(12%)을 운송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출 가운데 대부분은 러시아 파이프라인 및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⁷⁾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된다. 또한 남쪽으로 이란과는 스왑 형태로 석유를 거래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바쿠, 그루지아의 트빌리시 및 터키의 제이한을 연결하는 BTC 송유관을 통해서도 일부를 수출하고 있다. 2006년 6월 BTC 석유 파이프라인 가입에 정식으로 동의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수출 루트의 탄력성이 증가되었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출 루트의 다양화와 수출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PC 라인의 2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아티라우-사마라’ 송유관이 현대화되었다. 또한 2004년 9월 시작된 카자흐스탄-중국 파이프라인 2단계 공사(아타수-알라산코이 드루즈바 구간)는 2006년 완공되어 쿰콜로부터의 원유수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3단

6) Султанов Б. К.(2005), p. 33.

7) 카자흐스탄 텡기즈 유전과 러시아 노보로시스크(Novorossisk)를 잇는 총연장 980 마일의 CPC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카자흐스탄·오만 정부가 총 50%, 웨브론텍사코를 비롯한 8개 석유기업이 50%의 지분을 투자하여, 기존 러시아행 파이프라인을 신축 개보수한 파이프라인이다. CPC 파이프라인의 일일 석유 운송량은 56만 배럴이며, 2009년까지 135만 배럴로 운송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계 공사(켄키약-쿰콜 구간)가 진행 중에 있다.

광업은 카자흐스탄 전체 수출 소득의 30%, GDP의 16%, 총고용의 19%를 차지하는 카자흐스탄 제 2의 산업이다. 광업은 2004년 12.8%의 높은 산업생산증가율을 보였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2005년 3.4%의 증가에 그쳤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이 있다. 철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금속으로, 2005년 약 450만 톤의 선철과 320만 톤의 강판을 생산하였다. 카자흐스탄 제철산업은 카라간다 지방에서 발전했으며, 네덜란드 미탈 스틸(Mittal Steel)의 자회사인 이스파트 카르메트(Ispat Karmet)가 주요 사업자이다.⁸⁾

농업은 2006년 GDP 대비 5.5%로 줄어들었으나, 인구의 약 43%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여전히 카자흐스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시기 밀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소연방 붕괴로 타격을 입은 후 다시 서서히 성장하여 왔다. 2004년 농경지 민영화의 법적 제정은 향후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카자흐스탄에서는 정부의 각종 사회 및 경제 인프라 투자 확대와 민간의 사무 및 주거시설 수요 급증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이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06년 카자흐스탄 건설업의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27.4% 증가한 74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부동산 및 건설 부문은 카자흐스탄 경제의 중심지이자 옛 수도인 알마티(Almaty), 신수도인 아스타나(Astana)가 주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알마티는 1998년까지 수도였으며, 타 도시에 비해 생활수준이 월등하고 인프라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어 타 도시 주민들의 이주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알마티를 중앙아시아 비즈니스 및 금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998년 카자흐스탄의 새

8) 이재영 · 박상남 편(2007), pp. 69~70.

로운 수도가 된 아스타나는 1997년 인구 25만 명의 소도시에서 현재는 60만 명의 신행정도시로 발돋움하였으며, 각종 관공서의 건축을 중심으로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 및 주거 인프라, 주택 건설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카자흐스탄 부동산개발 및 건설시장의 호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6년 카자흐스탄에는 총 600만㎡ 면적의 아파트가 건설되어 전년도 500만㎡에 비해 100만㎡나 증가하였다. 2006년 알마티 소재 아파트 가격은 1㎡ 당 2,700~3,000달러로, 카자흐스탄 전국 평균인 1,000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아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부동산시장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모기지(mortgage) 대출 시스템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3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모기지 대출 시스템⁹⁾을 도입하

표 2-4. 카자흐스탄의 부문별 고정자본투자

(단위: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고정자본투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농업	1.4	1.3	1.4	1.3	2.0	1.9	-
채굴업	49.8	44.3	41.5	35.5	38.5	37.1	32.9
제조업	12.0	11.1	9.4	9.9	9.8	10.4	11.3
- 금속산업	7.1	5.8	4.2	3.5	5.2		-
전력, 가스, 수도	3.0	2.9	2.5	2.1	3.8	2.8	-
건설	3.6	4.3	4.6	6.2	1.3	2.3	-
상업	3.5	3.3	4.3	4.4	2.2	1.9	-
호텔 및 레스토랑	0.5	0.2	0.3	0.3	0.4	0.4	-
운송 및 통신	9.5	11.1	11.1	12.3	15.2	14.8	13.5
금융	1.6	1.3	0.9	0.9	0.2	0.2	-
부동산 거래	9.7	11.5	12.6	14.4	18.5	21.1	21.0
국가 관리	3.2	6.7	9.7	11.0	2.4	1.9	-
교육	0.7	0.8	0.7	0.7	1.7	1.5	-
보건	0.2	0.4	0.4	0.2	1.1	1.7	-
기타 서비스	1.3	0.8	0.6	0.8	2.9	2.0	-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9) 2003년 1억 달러 규모였던 모기지 대출 금액은 2005년 1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06년에는 14~1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금리는 4.5~15%, 최장 상환기간은 25년이다.

였다. 2006년 전체 부동산 거래 자금의 80%가 모기지 대출을 통해 조달되며, 모기지 대출 금액의 50%는 알마티에, 20%는 아스타나에 집중되었다. 고급 주거 및 사무용 건물도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고급 주거 및 사무용 건물시장은 알마티 부동산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5년 전 m^2 당 650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3,000달러까지 급등하였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석유 및 가스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와 부동산 및 건설 시장의 폭발적인 호황을 두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첫째로 가장 큰 문제는 채광 및 금속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전체 고정자본투자에서 채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9.8%에서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2006년에 여전히 전 부문 중 최대인 32.9%를 기록하였다. 반면, 2006년 제조업의 고정자본투자 비중은 11.3%로 2000년의 1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비석유 경제부문에 대한 투자율은 EU 8개국 수준의 약 60%,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수준의 약 70%에 불과하다. 카자흐스탄의 제조업은 고정자본투자가 채굴업에 집중되고 텅게화 환율이 절상되는 악재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제조업 생산설비의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¹⁰⁾ 이는 채굴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광물 및 원자재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를 제조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시설의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채굴업 중심의 자본투자로 인해 수출구조에서도 석유·가스를 포함한 광물 제품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수출 구조에서 광물제품은 전체의 71.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입은

10)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GDP 1달러를 생산하는 데 전력이 거의 2.8kW/h 소비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0.22~0.3kW/h, 프랑스, 터키, 한국에서는 0.4~0.6kW/h, 캐나다와 중국에서는 0.8~1.2kW/h이 소비된다.

투자재(45.2%)와 산업용 중간재(45.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5. 2006년 카자흐스탄의 수출입 구조

(단위: %)

수출	100	수입	100
광물제품	71.9	기계, 설비, 운송수단 및 장비	45.2
금속 및 금속제품	16.1	광물제품	14.3
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 제품	4.2	금속 및 금속제품	13.3
식품 및 식품 생산 원료	2.8	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 제품	10.8
기계, 설비, 운송수단 및 장비	1.8	식품 및 식품 생산 원료	7.0
기타	3.3	기타	9.4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또한 최근 일각에서는 부동산 활황으로 인해 달아오른 카자흐스탄 경제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금융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가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면서 카자흐스탄 은행들은 해외로부터 저리로 단기자금을 차입한 후, 고리의 장기 대부를 시행하여 예대마진을 챙겨왔다. 특히 2003년에 도입된 장기 고금리의 모기지론은 2006년 전체 부동산 거래금액의 80%까지 차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리스크가 큰 개도국으로 유입되었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카자흐스탄 은행들은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은행들은 모기지론의 이자를 추가 인상하고,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정부는 단기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19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중 약 40억 달러의 자금을 풀 계획이어서 실질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의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투자·산업인프라 등 각 부문을 아우르는 경제발전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카지나(Kazyna) 기금을 포함한 정부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3) 경제발전전략

1997년 10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종합적인 국가 및 사회발전 개념이 포함된 「카자흐스탄-2030」이란 제하의 장기발전전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였다.¹¹⁾ 이 전략이 발표된 이후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 계획 및 개념들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2003년 5월 17일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된 「2003~2015년 국가의 산업-혁신발전전략」(이하 ‘산업혁신전략’)이 경제발전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¹²⁾ 산업혁신전략은 에너지 중심의 원료지향성에서 탈피하도록 해주는 경

■ 표 2-6. 카자흐스탄 「산업혁신발전전략 2003~2015」의 세부 정책 ■

구분	정책기초	액션 플랜
무역정책	- 지역경제통합 - 무역자유화 -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수출잠재력 다각화	- 유라시아 공동경제구역 추진 - WTO 가입
투자정책	- 민간투자 유치 및 효율성 강화 - 정부의 지원구조 확립	- 투자규제 완화 - 정부투자기금 설립 -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설립
산업 및 인프라정책	산업구조의 다각화	- 중점산업 선정 및 클러스터 건설 - IT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 - 바이오기술, 우주기술, 핵기술, 신소재 및 화학제품 육성

자료: 이재영 · 박상남 편(2007), p. 71에 기초하여 보완.

11) 1997년 10월에 처음 발표된 본 전략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전략에서 제시한 핵심 7대 과제는 △ 국가 안보, △ 국내 정치적 안정 및 사회 연대의 강화, △ 발전된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성장, △ 보건·교육·복지의 강화, △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 인프라 개발, △ 전문적인(Professional) 국가건설 등이다. 이 가운데 발전된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성장의 달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경제개혁 원칙들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인 직접개입, 거시경제 안정, 개방경제 및 자유무역, 사적 소유제도의 강화 및 사유화, 외국인투자의 효과적인 보호, 에너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산업기술전략의 수립, 생산의 다각화 등이 제시되었다.

12) 이하 혁신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의해 2003년 승인된 문서 “Innovative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03~2015”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제부문의 다각화를 통하여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서비스 및 기술 중심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전략이 충실히 실행될 경우, 카자흐스탄 GDP는 2015년까지 연평균 8.8~9.2%, 제조업의 산업생산은 8.0~8.4%의 성장을 기록하고, 노동생산성은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GDP에서 산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0년 46.5%에서 2015년에 50~52%로, 연구혁신 부문을 0.9%에서 1.5~1.7%로, IT를 포함한 첨단산업 부문을 0.1%에서 1%로 늘릴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산업혁신전략은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1단계(2003~2005년)는 주로 준비 성격을 띠는 조치들을 실현하는 시기로, 총 3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어 460개의 프로젝트들이 실행되었다. 2단계(2006~2010년)는 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이다. 3단계(2011~2015년)는 2단계에서 축적된 기술, 인적자원 및 인프라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산업다각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혁신전략의 세부 정책은 무역정책, 투자정책, 산업 및 인프라 정책 등 3개 정책으로 압축된다. 혁신전략의 무역정책 기조는 시장경제의 자기 규제에 입각한 경쟁원리의 도입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각종 무역규제를 통한 국내 시장의 보호가 오히려 자국의 산업발전에 역행한다고 판단하고, 점진적이고도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카자흐스탄 시장 내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과 에너지 수출소득의 타 산업 투자를 병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무역정책의 기조 하에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CIS 역내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지역에 공동경제구역을 설립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공동경제구역 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첨단산업, 무역, 투자, 금융의 허브가 된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밝히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단일경제권(SES: Single Economic Space),¹³⁾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13) 2003년 9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CIS 4개국은 '단일경제권(Common Economic Space)' 창설에 최종 합의하였다. 단일경제권의 주된 목표는 회원국간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의

Economic Community),¹⁴⁾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SCO: S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슬람 협의기구(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등을 통해 중동을 포함한 유라시아 주요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중 단일경제권과 유라시아경제공동체가 경제협력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혁신전략 무역정책의 또 하나의 핵심은 WTO 가입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WTO 가입이 국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관세 가중 평균치는 8.6%로 WTO 평균인 6~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0~15%의 적정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이 전체 상품의 95%에 달하기 때문에 WTO 가입 이후에도 카자흐스탄 국내 시장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혁신전략의 투자정책 기조는 주요 산업분야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민간투자 유치의 효율성 강화와 공적 투자를 위해 정부의 지원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의 유치를 위해서 정부는 소주주에 대한 권리 보장, 회사 등록 시스템의 단순화, 라이선스 취득과정에서의 투명성 보장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혁신전략의 투자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기구 및 정부투자기금을 설립하고 있다. 이미 ‘카자흐스탄 투자기금’, ‘혁신기금’ 및 ‘카자흐스탄 개발은행’¹⁵⁾ 등을 설립하여 공공투자를 활성화

자유로운 이동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 4개국은 각국의 반덤핑 보호조치 철폐 등을 통한 자유무역지대 창설, 러시아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을 위한 운송 컨소시엄 형성, 역내 및 해외 시장과의 연결을 위한 도로 건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4)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이 2000년 10월에 설립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는 포괄적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향후 CIS를 대체할 경제통합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

15)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투자기금을 통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 총액이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기금은 IT 등 첨단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연구의 자금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은 민간부문 투자와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표 2-7.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및 IT 발전계획

	내 용
단계별 중점목표	• 1단계(2003~2010년): 제조업 분야 발전인프라 확충 • 2단계(2010~2015년): 연간 8.4% 성장 • 3단계(2015년 이후): 전체 산업생산 비중의 31% 이상 확대
주요 추진내용	• 비(非)자원 제조업 분야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 • IT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폭 지원 • 테크노파크 건설을 통한 관·산·연 협동 강화

자료: 이재영·박상남 편(2007), p. 73.

하고 민간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6년 6월 주요 국가자산을 총괄 경영하는 국영 지주회사 삼루크(Samruk)를 설립하였다. 삼루크는 국영 철도회사(Kazakhstan Temyrzholly), 우체국(Kazpost), 전력회사(KEGOC), 석유가스회사(Kazmunaigaz) 등 4개 국영기업의 지분 100%와 카자흐스탄 텔레콤(Kazakhtelecom)의 지분 51%를 인수하여, 5대 국영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였다.¹⁶⁾ 같은 시기에 주요 국가기구 및 공공투자기금을 관리하고,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카지나(Kazyna) 기금을 설립하였다. 카지나 기금은 카자흐스탄 투자기금, 국가혁신기금, 소기업 개발기금 등 3대 정부투자기금과,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마케팅조사센터(Center of Marketing & Analytic Research), 카자흐스탄 수출투자보험공사(State Insurance Corporation of Kazakhstan for Export Credit and Investments), 카자흐스탄 투자진흥공사(Kazinvest) 등 4개 공공기관이 출연하였다. 또한 카지나 기금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카자흐스탄 국가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¹⁷⁾

산업 및 인프라 정책은 기존 에너지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단계별 성장목표 달성을 통해 2015년 이후 제조업의 산업생산 비중을 3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인

16) http://www.e.gov.kz/business/business_possibilities/rep_budget/st_assets/article/2156?lang=en

17) <http://www.ebrd.com/new/pressrel/2007/270307en.htm>

IT 산업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가치를 이용한 운송산업 등에 특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혁신발전전략 2003~2015」를 통해 총 23개 산업을 지정하였으며, 그 중 7개 중점지원 산업을 선정하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중점지원 산업 7개 클러스터는 △ 석유·가스, △ 건축자재, △ 식료품, △ 물류서비스,¹⁸⁾ △ 금속, △ 섬유, △ 관광 등이다. 또한 2005년 9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총 237개의 우선 투자지원 세부 산업을 발표하였으며, 크게는 △ 농업, △ 경공업, △ 화학금속공업, △ 공작기계, △ 전력산업, △ 교통산업, △ 건축자재 등이다.

IT 산업은 핵심전략에 나타난 카자흐스탄 정부의 집중 육성산업이다.¹⁹⁾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국가정보초고속도로(National Information Superhighway)라 불리는 인프라 구축작업을 진행하였으며, IT 클러스터인 지역 비즈니스 인큐베이터(Regional Business Incubator) 건설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카자흐스탄 경제재정부의 요청으로 30만 달러를 들여 프로젝트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영 통신회사 카자흐텔레콤(Kazakhtelecom)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으로부터 1억 1,0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받아 전기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06년 3월 1일 「향후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의 문턱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는 제하의 대국민 대통령 교서를 통해 세계 50대 경쟁력 있는 국가로 진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²⁰⁾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07~2008년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18) 2015년까지 카자흐스탄 물류운송망 투자계획의 핵심은 기존 철도망의 개선 및 추가 건설, 수출용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도로의 확충을 통해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국제 운송회랑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있다. 카자흐스탄 국제 운송회랑 네트워크의 강화는 러시아에서 발트 3국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유럽행(行),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와 일본으로 향하는 태평양(行), 중앙아시아 및 카프카스 국가를 거쳐 이란과 터키에 이르는 걸프(行)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 핵심전략에 나타난 카자흐스탄의 IT 산업정책은 △ IT 부문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 △ 국민의 정보접근성 개선, △ 공공부문 IT 발전을 위한 전자정부 실현, △ IT 산업 전반의 표준화 작업, △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e-Commerce) 도입, △ 국가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및 전자경매 도입, △ 인터넷 교육의 활성화, △ 소프트웨어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이다.

20) <http://www.akorda.kz>

Index)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순위인 61위에 올랐으며,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07년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도 157개국 중 75위를 기록하여 다소 자유롭다는 평가(‘moderately free’)를 받았다.

상기 대통령 교서와 2007년 2월 28일자 「새로운 세계에서의 신(新) 카자흐스탄」이라는 대통령 연설에 기초한 2007년 3월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의해 「2007~2009년 정부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 전분야의 현대화 및 다각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비원료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 신기술 발전 및 혁신적인 기업활동의 촉진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7~2009년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8~9%를 기록할 것이며, 2009년 1인당 GDP는 2006년의 1.8배가 넘는 8,9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¹⁾

나. 우즈베키스탄

1) 경제동향

1990년대 초 IMF의 신자유주의적 체제전환을 거부하고 국가의 경제통제하에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추진했던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1996년부터 플러스 성장궤도에 진입한 이후 연간 4~5% 수준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 7%가 넘는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²²⁾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농업부문을 포함하여 전 산업부문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5대 원면생산국이자 2대 수출국으로, 농업은 2006년 기준 원면을 포함하여 GDP의 약 24.1%를 차지하고 있다. 2000~2003년까지 연평균 5%였던 농업생산증가율은 2004년

21) Программ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07–2009 (<http://www.government.kz>)

22) 그러나 국제금융기관들의 평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공식적인 거시경제지표들은 최소한 2배 상향 조정되었으며, 공표된 경제성장은 사실상 질적인 발전을 동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에 10.1%, 2004~2006년 기간 동안 7.7%로 높아졌으며, 2006년에 산업생산과 서비스생산도 각각 10.8%와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표 2-8]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급격히 안정되어 2004년 3.7%를 기록한 이래, 2005년 6.4%, 2006년 6.8%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IMF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공식 통계를 불신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005년 20.1%, 2006년 19%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는 대신 비식료품과 공공부문에서 가격인상이 나타났으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은 금, 에너지, 원면 등이 호조를 보이며 2006년에 전년 대비 18.1% 증가한 6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수입은 7.4% 증가한 44억 달러에 그쳤다. 이에 무역수지는 2006년에 전년대비 51.3% 급증하였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GDP 대비 18.4%에 이르렀다.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됨에 따라 금과 원면의 수출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석유 및 가스 등의 에너지 수출도 계속해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다르게 적극

■ 표 2-8.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실질GDP 증가율	%	4.2	4.0	4.4	7.7	7.0	7.3
산업생산증가율	%	8.1	8.5	6.2	9.4	7.3	10.8
소비자물가상승률	%	27.4	27.6	10.3	3.7	6.4	6.8
총투자증가율	%	...	51.7	29.4	42.6	20.1	...
수출	십억\$	3.2	3.0	3.7	4.8	4.9	6.3
수입	십억\$	3.1	2.7	3.0	3.9	3.5	4.4
재정수지	%/GDP	-1.0	-0.9	-1.3	0.0	-1.0	-1.3
경상수지	%/GDP	-1.0	1.6	8.9	10.0	13.7	18.4
외환보유고	십억\$	1.2	1.2	1.7	2.1	2.9	4.6
환율(기간평균)	Sum/\$	422.9	771.0	971.3	1,020.0	1,115.0	1219.8

자료: ADB(2007); Global Insight(2007).

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연평균 7% 수준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일컬어 ‘우즈베크 패러독스(Uzbek Paradox)’²³⁾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구의 많은 우즈베키스탄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이 IMF식 경제처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실의 우즈베키스탄은 농업과 제조업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건전한 거시경제지표와 안정된 제조업 성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대체산업화정책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그 잠재력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상업은행들이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기능을 부여받고, 그 결과를 세무기관, 검찰 및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등 국가의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감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 예금 인출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 은행 관료주의의 심화, 금융기관들의 결제에 관한 엄격한 요구 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지하경제는 GDP의 약 4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수행의 용이함 정도를 평가하는 세계은행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2007년에 175개국 가운데 145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이 하위에 랭크된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과 복잡한 조세제도, 기업 허가 및 등록 절차가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대외경제활동에서 많은 장벽이 있고, 현지금융조달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²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전반적인 경제 현황은 느린 시장개방 속도와 국가의 높은 경제규제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시장의 개혁 및 개방, 친시장적인 투자환경 조성, 합리적인 산업정책 및 사회정책의 추진이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23) Martin Spechler *et al.*(2004), p. 177.

24) Курманова А., Абдуллаев У.(2007), p. 21.

안정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 경제 및 산업구조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를 분석해 보면, 농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우즈베키스탄의 공업은 GDP 대비 22.1%에 불과한 반면, 농업은 24.1%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서비스 부문 비중 역시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여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공업 선진국들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GDP의 50%를 상회하는 데 반해, 2006년 우즈베키스탄의 서비스 부문 비중은 28.1%에 불과하다.

우즈베키스탄은 원면, 금 등 1차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으로 5대 원면 생산국이자 2대 수출국이다. 정부는 국가곡물수매제도(Goszakaz)를 운영하며 원면의 생산 및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²⁵⁾ 이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이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으로 재분배되면서 농민들의 인센티브가 감소하고 불만이 가중되었다. 이에 정부는

표 2-9.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

(단위: GDP 대비 %)

경제부문	1992년	2000년	2001년	2005년	2006년
공업	26.6	13.8	16.0	20.7	22.1
건설	9.5	6.1	7.0	4.9	5.1
농업	35.4	30.4	34.0	25.0	24.1
운송 및 통신	5.2	8.1	8.5	11.3	11.4
서비스 분야	23.3	28.8	34.5	27.1	28.1
기타	0.0	12.8	0.0	11.0	9.2

자료: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25)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구소련 시절과 마찬가지로 국가곡물수매제도(Goszakaz)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강제로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독점적으로 수출하는 시스템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내 제조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으로 재분배되거나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흡수된다. 또한 정부의 농산물 수출시기가 수매시기보다 늦음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면산업의 경우, 국영기업(Uzauktsionavdo)이 원면의 수매가격을 결정하고 수출을 독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재영 외(2005).

생산된 원면 일부를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²⁶⁾ 제한적인 토지사유화 프로그램을 2007년 초에 시작하기로 공표하였지만, 농경지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금은 제2의 수출품목으로, 2002~2005년 총수출의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공업생산 구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변국과는 다르게, 석유·가스 등 연료산업의 비중이 높지 않고, 부문별 비교적 고른 성장을 보인다는 것이다. 2006년 전체 공업생산 대비 연료산업의 공업생산 비중은 17.1%에 불과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확인 매장량 5억 9,400만 배럴의 석유와 추정매장량 66조 입방피트를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자국 내에 석유 및 가스를 소비할 만한 기타 제조업 부문이 빈약하고 국내 파이프라인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생산된 석유 및 가스를 대부분 수출하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석유 및 가스 대부분을 자국 제조업 소비를 위해 생산하고 있다.

표 2-10. 우즈베키스탄의 공업생산 구조

(단위: 전체 공업생산 대비 %)

공업 부문	2005년	2006년
전력	11.2	10.0
연료산업	16.5	17.1
금속	2.4	2.3
유색금속	17.2	18.6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	5.1	4.9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	12.7	13.7
임업, 목재가공, 제지	0.8	0.8
건설자재	3.8	4.0
경공업	16.8	14.8
식품산업	8.1	8.7
기타 부문	5.4	5.1

자료: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26) 2003년 이후로는 산출량의 일부에 한해서 농민들에게 자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2003년 10월에 서명된 「2004~2006년 농업부문 발전계획에 관한 대통령령」은 오히려 농업부문의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농업부문의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에너지와 농산물의 자급자족을 최대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구 소련 체제하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원면생산의 약 60%를 점하였으며, 원면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출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단일품목 경작에 의존한 경제구조가 계속되는 한, 경제적 독립은 물론 경제적 안정과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너지와 식량의 생산을 우선적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이러한 정부주도 산업정책 성과로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에너지의 국내자급률이 높아졌으며, 현재 에너지의 일부는 수출되고 있다.²⁷⁾ 천연가스는 2006년 1,000m³ 당 51~55달러이던 수출가격이 2007년에 100달러로 상승하면서 천연가스 수출수익이 13억 달러(2006년 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설비투자 부족으로 2005년 석유 생산량이 전년대비 17.7%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 연료·에너지 산업에만 2억 5,00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면서 이 분야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제조업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경공업으로는 섬유산업과 식료품가공업이 대표적이다. 섬유산업은 세계 5대 원면 생산국답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백만 톤 규모의 면섬유를 생산하는데, 이 중 23%는 국내에서 가공하고, 나머지는 수출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섬유의 90%는 국영섬유회사인 Uzbeklegprom이 담당하고 있다. Uzbeklegprom은 1990년대 후반부터 노후화된 생산설비의 개보수와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터키의 Astop과 Tekfen 등과 같은 외국 섬유회사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단계별 섬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료품가공업은 우즈베키스탄 제2의 제조업으로, 주로 국내에서 연간 천만 톤 이상 생산되는 과일 및 야채를 주스, 잼, 건과일, 유지, 과자류 등으로

27) 이재영·박상남 편(2007), p. 77.

제조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의 네슬레(Nestle)와 러시아의 빔빌단(Vimm-Bill-Dann) 등 해외 식료품가공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제1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우즈베키스탄 자동차공업협회인 Uzavtosanoat 산하에 20여 개의 기업들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Uzavtosanoat은 2006년 14만 대를 포함해 현재까지 약 68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다. Uzavtosanoat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얼마 전까지 한국의 해외투자 성공모델로 각광을 받았던 UzDaewooavto이다. 1996년 대우자동차가 6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하였으며, 2005년 대우 채권단이 보유지분 전량을 Uzavtosanoat에 매각하였다. 화학산업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조업으로, 국영기업인 Uzkhimpro이 주도하고 있다. 비료, 화학섬유, 시약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2006년 생산은 14.8%, 수출은 29.0%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금속가공업도 발달되어 있다.

3) 경제발전전략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사회경제발전 방향은 2005~2010년 기간에 진행되는 「중기 후생증진전략(I-WISP: 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Paper)」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전략은 주요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민간 및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이 포함된 분야별 실무그룹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본 전략의 목표는 우즈베키스탄의 독자적인 사회경제 발전모델과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사회적 가치 및 국가적 특수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로의 통합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본 전략에서는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 복지 부문 투자 및 재정 확충,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 지역별 생활 수준의 격차 축소를 국가가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로 지정하였다. 또한 경제구조의 개혁과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농업 및 금융부문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전략은 2007~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8.0~8.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1인당 GDP 규모 면에서 중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5% 선으로 낮추며, 연간 투자증가율을 10~12%로 높이고, 연간 수출증가율을 10~12%로 유지하겠다는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3년 GDP의 74.5%를 차지하던 비국영 부문의 비중을 85%까지 확대하고, 2003년 GDP 대비 35.5%였던 중소기업의 비중을 45~50%까지 늘린다는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세부담률 인하와 정부의 경제통제 완화, 무역 및 금융 자유화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섬유산업을 집중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제4차 섬유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4차 섬유산업 육성정책에는 섬유산

표 2-11.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지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2010년
GDP 성장률(%)	4.4	6.0	6.4	7.5	8.0~8.5
1인당 GDP 증가율(%)	3.2	4.9	5.3	6.4	7.0~7.5
소비자물가지수(%)	3.8	4.9	6.0~7.0	5.8	4.0~5.0
총저축(GDP 대비 %)	26.7	25.0	25.0	26.0	26.0~28.0
투자증가율(%)	4.5	6.5	7.7	8.1	10.0~12.0
통합예산 지출비중 (GDP 대비 %)	32.7	28.7	28.4	28.2	26.0~27.0
통합사회세율 (임금기금 대비 %)	37.2*	33.0	32.0	29.5	27.5
공업생산증가율(%)	6.2	8.2	9.2	10.7	11.0~13.0
농업생산증가율(%)	5.9	4.5	4.0~5.0	4.0~5.0	4.0~5.0
비국영 부문 비중 (GDP 대비 %)	74.5	75.0	77.0	80.0	85.0
중소기업 비중 (GDP 대비 %)	35.5	36.8	38.3	41.3	45.0~50.0
수출증가율(%)	34.6	9.6	10.0	11.0	10.0~12.0

주: * 2003년 임금기금 납입금은 연금기금, 고용축진기금 및 노동조합연맹기금에 개별적으로 지불되었다. 2004년부터 이러한 납입금 대신 통합사회세가 도입되었다.

자료: Стратегия повышения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насел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на 2005-2010 годы. Промежуточный документ. (<http://www/undp.uz/projects/project.php?id=38>.)

업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05~2008년 동안 총 94건의 투자프로젝트에 12억 2천만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²⁸⁾ 본 정책은 현대적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첨단 면 원사 처리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 고품질 제품을 생산,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 완제품 생산 비율이 50% 선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크 부문에서도 완제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실크 원사 및 견직물 생산설비를 각각 2007년과 2010년까지 현대화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6~2008년 현대화 및 기술 재장비 프로그램(The Program of Modernization and Technical Re-equipment for 2006~2008)」을 통해 섬유산업 중심의 경공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의류 완제품 및 양말·메리야스류, 신발류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VAT를 제외한 모든 세금 및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자본재 및 조립부품을 수입하는 업체에게는 세관등록비를 제외한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원면 중심의 섬유산업을 다변화하기 위해 「실크 발전 프로그램(The Program of Development of the Silk)」도 추진하여, 누에고치 재배 및 가공기업에게 2010년 1월 1일까지 VAT를 감면해주며,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실크 가공에 필요한 재료들을 수입할 경우에 2008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면제해준다.²⁹⁾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계획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앞서 언급한 중기 후생증진전략의 목표처럼, 기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 방식인 정부 주도의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은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산업에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은 시행 초기에 가시적인 경제성장

28) 1996~2004년까지 3차에 걸쳐 추진된 섬유산업 육성정책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집중 육성이라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외지향적이고 민간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주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29) Uzinfoinvest, http://www.investuzbekistan.uz/eng/investment_opportunities/by_industry (검색일: 2007년 11월 13일).

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차 산업과 노동집약적 생산품 수출중심의 개방과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국영기업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유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투자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투자환경과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으로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자본도피와 지하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현재 지지부진한 국영기업의 사유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민간부문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거시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여 국제사회에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 키르기스스탄

1) 경제동향

키르기스스탄은 독립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노선을 선택하였다. 가격자유화, 대외무역 자유화, 독자 통화도입 및 사유화에 있어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앞질렀고, 서구식 민법을 도입하고 최초로 토지사유화를 비준하였으며, 1998년에 이미 WTO에 가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은 2006년 1인당 GDP가 536 달러에 불과한 중앙아시아 빈국이다. 이는 주로 국토의 90%가 산악지대이며, 경작 가능한 토지는 국토의 7%에 불과한 등 지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도 빈약한 데 기인한다. 국토의 중앙에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산지대가 위치하고 있어 국민들은 수도인 비슈케크(Bishkek)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와 오쉬(Osh)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의 계곡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에 경작 가능한 계곡을 중심으로 발달한 농업이

2006년 기준 GDP의 33.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공업 및 제조업은 금 채굴업을 중심으로 수도 비슈케크를 비롯한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표 2-12. 키르기스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구분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실질 GDP 증가율	%	5.3	0.0	7.2	7.0	-0.2	2.7
산업생산증가율	%	5.0	10.0	13.0	3.3	-9.5	-5.3
소비자물가상승률	%	7.0	2.1	3.1	4.1	4.3	5.6
총투자증가율	%	-14.0	-9.6	-6.4	6.8	10.6	11.5
수 출	십억 \$	0.48	0.49	0.58	0.72	0.67	0.79
수 입	십억 \$	0.47	0.59	0.72	0.94	1.10	1.72
재 정 수 지	%/GDP	0.4	-1.0	-0.8	-0.5	0.2	-0.2
경 상 수 지	%/GDP	-1.6	-3.0	-4.4	-3.4	-8.3	-23.6
외환보유고	십억 \$	0.29	0.32	0.40	0.56	0.61	0.82
환율(기간평균)	Som/\$	48.5	46.9	43.6	42.6	41.0	40.2

자료: Inter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CIS(2007); ADB(2007); National Bank of the Kyrgyz Republic(2006).

1992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키르기스스탄은 산업 전반에 걸친 붕괴를 경험하였다. 첫 4년간 실질 GDP는 50%까지 하락하였고, 1990년 대비 1995년 제조업 및 건설의 산업생산은 70% 이상 폭락하였다. 키르기스스탄 경제는 구소련 공화국 중 가장 개방적인 경제였다. 1991년 키르기스스탄이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과 실시한 무역은 전체 GDP의 90.7%를 차지하였으며, 1987년 산업연관분석(Input- Output Analysis) 결과를 보면 100개 품목 중 56개 품목에서 수입이 국내 생산을 초과하고 있다.³⁰⁾ 키르기스스탄의 개방경제는 구소련 공화국의 분리 독립과 상호간의 경제단절로 인해 급격하게 침체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산업 침체와 구조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쿰토르(Kumtor) 금광 개발이 시작되면서 경제는

30) Roman Mogilevsky(2004), p. 226.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비스 부문이 성장하면서 경제의 농업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는 급속도로 침체되었다. 2003년과 2004년에 7%를 넘어서던 키르기스스탄의 GDP 성장률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0.2%, 2.7%까지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산업생산증가율도 -9.5%, -5.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동안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소비자물가도 2004년 2.1% 상승한 이후, 2005년에는 4.3%, 2006년에는 5.6%로 급등하였다. 공식 실업률은 최근 몇 년간 평균 6%선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로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 연간 50~60만 명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³¹⁾ 2007년 들어서 국제적으로 금 수요가 증가하고,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전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9.2%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최근 키르기스스탄 경제 상황이 악화된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우선 2005년 중반에 발생한 이른바 ‘튤립 혁명(Tulip Revolution)’으로 인한 정권교체와 국내 갈등에 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시기에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는 매일 1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수천 개의 자영업자 및 기업가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적 혼란 과정에서 GDP의 약 47%와 고용의 2/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³²⁾ 이와 더불어 최대 금광인 콤토르 광산의 채금량 하락과 채금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금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도 커다란 원인이다.

키르기스스탄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미미한 자본유입으로 인해 대외부채가 급증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2002년 GDP의 120%에 달하던 대외부채는, 파리클럽이 2002년 및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탕감 및 재조정을 해주었지만, 2006년 말 기준 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여전히 GDP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15억 달러 미만인 정부예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다.³³⁾ 이에 키르기스스탄

31) Ниязи А.(2006), p. 43.

32) *Ibid.*, p. 42.

은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키르기스스탄을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HIPC 이니셔티브: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수혜국으로 지정되어, IMF와 IDA(국제개발협회)가 제시한 「빈곤감소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PRGF: Poverty Reduction & Growth Facility)」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툴립 혁명 이후 새로 수립된 정부는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가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2007년 2월부로 이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 경제 및 산업구조

[표 2-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키르기스스탄의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대체로 농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6년 기준으로 키르기스스탄의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1/3 수준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면 공업은 1990년에 비해 약 43%나 감소한 20.1%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공업 전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12.9%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GDP의 46.9%를 차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농업은 전체 노동인력의 약 절반이 종사할 정도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대부분이 대초원 고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곡물은 주로 낮은 계곡주변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계형 농업이 일반적이다. 1991년 독립과 함께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농업생산은 1995년

■ 표 2-13. 키르기스스탄의 경제구조 ■

(단위: GDP 대비 %)

구분	1990년	2000년	2006년
농업	33.6	36.7	33.0
공업 (제조업)	35.0 (27.1)	31.4 (19.5)	20.1 (12.9)
서비스업	31.4	31.9	46.9

자료: ADB(2007).

33) *Ibid.*, p. 42.

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농지개혁과 양호한 기후조건 등으로 생산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지개혁으로 전체 농지의 76%가 사유화되었으며, 국유지로 남아 있는 농지는 6%에 불과하여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6년 농업생산은 전년대비 1.5% 증가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 서비스산업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기준 GDP의 46.9%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서비스산업은 관광산업, 요식업 및 유통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을 통해 가족 중심의 소규모 유통업과 요식업이 발달하고 있다. 수도인 비슈케크에는 2001년에 처음 5성 호텔이 개장되었으며, 구소련 시절 휴양소가 밀집되어 있던 이시크-쿨(Issyk-Kul) 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이 주요 관광자원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금융 부문은 1998년 러시아의 금융위기 여파로 주요 금융기관들이 도산한 이래,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NBKR)의 주도하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NBKR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20개의 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개 은행이 2006년 말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NBRK는 은행의 최저자기자본규제를 150만 달러까지 올린 데 이어, 2007년 말에 추가로 250만 달러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키르기스스탄은 천연자원이 빈약한 편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천연자원은 금, 수은, 석탄, 우라늄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금이다. 금 생산은 전체 산업생산의 45%를 점하고 있다. 세계 최대 금광 중의 하나인 콤토르 광산은 2003년 67만 8,000 온스(oz)를 생산하였으나, 노천 채굴(open-pit mining)량이 줄어들고, 2006년 광산노동자들이 체불 임금문제로 파업을 일으키면서, 2006년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키르기스스탄의 금광개발은 개발자본 부족과 기술 낙후로 대부분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다국적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콤토르 금광은 키르기스스탄 국영광업공사인 키르기잘틴(Kyrgyzaltyn)과 캐나다 카메코(Cameco)가 합작한 센테라(Centerra) 금광회사가 개발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 제2의 금광인 제루이(Jerooy) 금광은 영국의 노록스(Norox)와 키르기스스탄 국영광업공사인 키르기잘틴(Kyrgyzaltyn)이

합작한 탈라스(Talas) 금광회사에서 개발했다. 신규 금광인 탈다-불락(Taldy-Bulak)도 호주의 CAGL(Central Asia Gold Limited)와 키르기잘틴이 공동 개발하였다.

최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금 생산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2007년 8월 키르기잘틴은 센테라 금광회사의 지분 13%를 카메코로부터 인수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05년 탈라스의 제루이 금광 개발권을 취소하고, 호주의 Global Gold Holding을 새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또한 2006년 초 탈다-불락 금광개발 파트너를 호주의 CAGL에서 카자흐스탄의 사메르 골드(Samer Gold)로 교체한 후, 2007년 5월 사메르 골드의 개발권도 취소하였다. 이는 키르기스스탄 주요 금광의 매장량이 2010~2012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전에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최대한 챙기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금 수출 외에도 막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전력을 수출하고 있다. 2005년 키르기스스탄은 26억 8,400만 kW/h의 전력을 인접국들에 수출하였다. 섬유, 의류, 피혁 등 경공업 분야에는 약 200여개의 기업이 내수 및 수출용 제품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약 8.5%에 달하고 있다. 식료품가공업은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가운데 하나이다. 생산량은 전체 제조업의 약 20%를 점하고 있으며,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3) 경제발전 전략

2005년 3월 24일 소위 ‘튐립 혁명’에 의한 정권교체 이후,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신정부가 국가의 발전 전망을 제시하기를 염원하였다. 이에 키르기스스탄 신정부는 최근의 사회경제 및 정치적 변화를 고려하여 2006년에 「2007~2010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전략에 언급된 정부의 목표는 “안정적인 발전을 통해 정당한 노동조건의 창출, 거주 및 건강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한 빈곤의 극복, 국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 개선, 사회 통합, 국민의 교육 및 도덕적 가치의 유지 및 발전, 시민권 보호 및 양성 평등 달성, 그리고 효율적인 민주적 관리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전략의 실현을 통해 예상되는 주요 거시경제지표들의 전망치는 [표 2-14]와 같다.

본 전략의 경제성장 목표는 2007~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약 8.4%, 2010년 1인당 GDP는 2006년 수준에 비해 60.6% 증가한 872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간 실질임금이 14~15% 수준으로 늘어나면, 국민의 실질소득이 연평균 2.0~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빈곤수준을 연간 2~3%씩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표 2-14.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단위: %)

구분	2000~05년 전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6~10년 전체
GDP 성장률	19.8	2.7	8.0	8.0	8.5	9.0	37.9
고용 증가율	9.4	2.4	2.3	2.3	2.2	2.2	9.3
노동생산성 증가율	12.0	9.6	10.8	10.1	10.6	11.1	49.9
실질임금 증가율	74.4	12.7	14.7	14.7	14.7	15.2	73.8
노동력 단위 가치*	62.3**	63.0	64.1	64.4	64.0	63.0	-
빈곤 수준	43.1***	40.6	37.4	34.8	32.8	29.8	-

주: * 상기 기간 연도별, ** 2005년, *** 2005년 새로운 빈곤선 기준.

자료: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Кыргызстана на 2007-2010 годы.

본 전략에 따른 키르기스스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집약적인 발전과 노동생산성의 증대, 자유무역정책에 기반을 둔 수출 증대 및 다각화, 세계경제체제로의 통합 강화를 통한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³⁴⁾ 이를 실현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중소기업 발전, 경제성장에 필요한 민간투자(외국인투자 포함)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조

34)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Кыргызстана (<http://www.president.kg>).

세제도의 개혁을 통한 조세부담률 인하, 관세제도의 개선을 통한 수출입절차 간소화, 대외부채 관리 강화, 국가행정제도 개혁, 부패척결 및 국가의 시장개입 축소, 지방분권화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대외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외부채의 재조정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나,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를 거부함에 따라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라. 타지키스탄

1) 경제 동향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국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지대로 구성된 중앙아시아 내륙 국가이다.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교통 및 통신 등 각종 인프라 기반이 매우 취약한 타지키스탄은, 구소련 시절 중앙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받을 정도로 독자적 경제기반이 부족하여, 구소련 공화국 중에서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가장 낙후된 경제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6년 타지키스탄의 1인당 GDP는 400달러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여, 구소련 공화국들 가운데서도 최빈국에 속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의 범주에 해당한다. 타지키스탄에서 공식적인 월평균 임금은 10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인구의 약 2/3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력의 1/3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해마다 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처럼 타지키스탄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요 원인은 1997년까지 5년간 계속된 내전과 자연재해이다. 특히 내전으로 인해 주요 산업 기반시설이 파괴되었는데, 그 물적 손실은 70억 달러로 평가된다. 그 결과 1990년대 말 타지키스탄의 GDP는 1991년에 비해 약 60%나 감소하였다.

■ 표 2-15. 타지키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 동향 ■

구분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실질 GDP 증가율	%	9,6	10,8	11,0	10,3	6,7	7,0
산업생산증가율	%	15,0	8,0	10,0	15,0	10,0	5,0
소비자물가상승률	%	37,0	10,2	13,7	6,8	7,8	11,9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	%	-	-	80,0	67,3	25,2	-
수 출	백만\$	652	737	797	915	909	1,399
수 입	백만\$	688	721	881	1,191	1,330	1,725
재 정 수 지	%/GDP	0,1	0,7	1,1	0,2	-1,6	0,4
경 상 수 지	%/GDP	-5,7	-1,4	-0,3	-2,8	-0,8	-0,8
외환보유고	백만\$	94,3	89,5	117,6	172,1	188,9	203,8
환율(기간평균)	Somoni/\$	2,55	2,76	3,06	2,97	3,12	3,30

자료: Inter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CIS(2007); ADB(2007).; National Bank of Tajikistan (2006).

내전이 종식된 1997년부터 타지키스탄 경제는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타지키스탄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은 알루미늄과 원면의 생산 및 수출이다. 2004년 타지키스탄 전체 수출에서 알루미늄 수출은 62.6%, 원면 수출은 17.7%를 차지하고 있다.³⁵⁾ 1995년 2,100%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은 2001년 이후 타지키스탄 정부가 IMF 안정화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10%선까지 떨어졌으나,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국내 송금액 증가가 수요를 자극하고, 수입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상수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200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무역수지의 적자이다. 타지키스탄은 석유 및 가스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순에너지수입국이다. 특히 알루미늄 생산에 필요한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립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타지키스탄의 막대한 국가부채가 국가

35) 소련 시기 원면을 200만 톤까지 생산했던 타지키스탄은 2004년에 53만 7,343톤의 원면을 수확하였다(Кузьмина Е. М., Геополитика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 Наука, С. 21).

의 재정 및 경제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대외부채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말 타지키스탄의 대외부채는 GDP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표 2-16 참고). 사전적인 평가에 따르면, 2007년 타지키스탄의 대외부채는 다소 줄어든 GDP의 약 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표 2-16. 타지키스탄의 대외부채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백만 달러)	835.8	802.5	901.9	976.7	1,027.1	1,018.5	984.5	1,030.7	871.4	894.5
GDP 대비 %	80.1	93.2	68.9	93.6	108.2	97.0	82.5	66.3	42.2	38.9

자료: 타지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이와 더불어 마약밀매와 관련된 부패 및 조직범죄도 타지키스탄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국인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불법으로 마약을 러시아 및 유럽에 공급하는 루트로 이용되고 있다. UN은 타지키스탄을 통해서 매년 100톤 이상의 헤로인이 밀매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중앙아시아에서 압수되는 불법 마약류의 90%는 타지키스탄에서 발생하고 있다. 마약운반과 주로 관련된 지하경제는 타지키스탄 GDP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타지키스탄 정부는 조직범죄와 마약밀매를 국가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제파트너들과 상호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지키스탄은 세계의 최빈국 중 하나이다. 알루미늄과 원면의 생산 및 수출을 제외하면,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마땅한 동력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당분간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낙후된 국가로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경제 및 산업구조

타지키스탄의 경제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6년 기준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3%에 이르고 있다. 반면 공업과 농업은 비중의 꾸준히 줄어들어, 2006년에 농업과 공업은 각각 24.2%와 26.6%에 그치고 있다. 농업과 공업은 원면 및 알루미늄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해외 노동자들의 국내 송금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면서, 요식업, 통신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표 2-17. 타지키스탄의 경제구조

(단위: GDP 대비 %)

	1990년	2000년	2006년
농업	32.9	27.4	24.2
공업 (제조업)	37.0 (24.7)	38.5 (36.2)	26.6 (20.7)
서비스업	30.1	34.1	49.3

자료: ADB(2007).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타지키스탄 최대 산업은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하는 광업이다. 타지키스탄은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금, 은, 납, 아연 등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한계와 외국인투자의 부족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은은 약 6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러시아의 대표적인 광업회사인 노릴스크 니켈(Norilsk Nickel)은 2006년 말 타지키스탄의 볼쇼이 코니만수르(Bolshoi Konimansur) 은광 개발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약 400톤 규모가 매장되어 있는 금은 이미 영국계 회사인 Avocet Mining과 타지키스탄 정부가 합작 설립한 제라브산(Zeravshan), 캐나다와 타지키스탄 합작회사인 아프렐레브카(Aprelevka)와 다르바즈(Darvaz)가 이미 생산하고 있다. 알루미늄 생산은 타지키스탄의 최대 제조업으로, 2005년 기준 전체 제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2003년 이후로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급증하면서, 생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알루미늄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국영기업인 ‘탈코(타지크 알루미늄, Talco)’사가 알루미늄의 생산 및 수출을 독점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주로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역외 국가로 수출되며, 특히 네덜란드에 수출이 집중되고 있다.

■ 표 2-18. 타지키스탄의 알루미늄 생산 및 가격 동향 ■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생산	천 톤	269	289	308	319	358	380
	증가율(% , 전년대비)	17.5	7.7	6.4	3.8	12.2	5.9
가격	달러/톤	1,567	1,454	1,365	1,428	1,721	1,901
	증가율(% , 전년대비)	12.9	-7.2	-6.1	4.6	20.5	10.4

자료: IMF(2005); EIU(2006).

타지키스탄 제 2의 산업은 원면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이다. 2006년 원면 생산량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43만 8,000톤 이었다. 원면 작황 부진의 주된 이유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농업부문의 개혁 부진과 관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구소련 시절부터 유지되고 있는 원면의 국가수매제도는 국가 주요 수출품인 원면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되고 있으나, 오히려 생산 인센티브를 하락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타지키스탄 정부는 원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작지의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전력은 타지키스탄의 3위 수출품으로 주로 우즈베키스탄과 바터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타지키스탄은 CIS 국가들에 42억 1,900만 kW/h의 전력을 수출하였다. 주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타지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젓줄인 아무다리야강과 스이다리야강의 상류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력발전에 유리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러시아 최대 전력회사인 '통합에너지시스템(UES)' 및 이란과 합작으로 '상투대(Sangtuda)' 지역에 각각 2기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3) 경제발전 전략

타지키스탄은 소련방이 붕괴하기 전까지 중앙아시아에서 비교적 발전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GDP의 약 40%를 차지했던 구소련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거래(transfer)가 중지되고, 단일한 화폐제도가 폐지되고 독자적인 통화가 출현에 따라 발생한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과의 경제관계가 파열된 이후 타지키스탄의 경제는 급격히 침체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7년까지 5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각종 산업시설이 파괴되면서 타지키스탄의 경제는 더욱 피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전 종식 이후, 1997년 6월 소위 ‘평화 및 국가 화합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타지키스탄 정부는 경제개혁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정의 실현은 국가경제의 안정화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다주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체제전환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국제금융기구가 제안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가장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IMF가 제안한 「빈곤감소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PRGF)」을 충실히 수행하여 재정 및 세계개혁을 단행하였다. 세제의 경우 2005년 1월 WTO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세법을 입법화하였다. 2001년 5월에는 WTO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가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패를 퇴치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PRGF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여, 전체 공무원 수의 3~5%를 줄이는 한편 주요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 또한 IMF의 PRGF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 통화정책의 기조는 환율 안정화를 바탕으로 유동성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타지키스탄 중앙은행은 IMF 권고에 따라 민간 은행 부문으로의 신용제공을 중지하는 대신, 민간 은행 부문의 자립성 강화를 위해 은행간 대부를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IMF와 세계은행 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

은행(EBRD)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ADB와는 2006년 9월에 원면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면농가 부채해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카틀론(Khatlon), 소그드(Soghd) 등 주요 원면 생산지방의 4개 지역의 원면농가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와 토지소유권 갈등 등이 본 전략 수행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경제구조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국영기업을 민간부문에 매각하는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 신 사유화 전략을 도입하여, 2007년까지 약 9,200여 개의 국영기업에 대한 사유화를 추진하였다. 2006년 말에 중소 국영기업 대부분 사유화는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광업, 제조업 등 핵심 부문의 대기업에 대한 사유화는 여전히 고착상태에 빠져 있다. 타지키스탄의 대표 기업이자 국영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탈코(Talco)의 경우는, 2003년 신 사유화 전략에 매각 대상으로 포함되어, 러시아의 루살(RusAl)과 수알(SuAl)이 관심을 표명했으나, 2006년 이모말리 라흐몬(Imomali Rahmon) 대통령이 사유화 계획을 철회하였다.

타지키스탄은 주요 수출품목인 알루미늄과 원면의 해외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 부문의 개혁과 친시장적인 조세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이 처해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경우, 향후 타지키스탄이 독자적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 궤도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마. 투르크메니스탄

1) 경제동향

중앙아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부국이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1990년대 초

반부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1997년 이웃 CIS 국가들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의 대금결제를 유예하면서 1990년의 50%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1~2006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전반은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는 정부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예산의 약 70%를 사회적 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전기·가스·소금·식수의 무상제공과 집세·교통비에 대한 거의 100% 보조금 제공 등 빈곤계층에 대한 독특한 지원체제를 가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EBRD,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지만, 시장자유화에 대한 IMF의 권고는 무시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IMF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이며,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WTO 가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신인도는 세계 최하위권으로, Fitch사는 2005년 2월 마침내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용등급을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경제개혁 기간 동안 150억 달러 이상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³⁶⁾ 국가의 경제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체적인 예산외기금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우선순위로 선정된 특별 프로그램에 투입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부채는 약 15억 달러이지만,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를 고려할 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천연가스 수출의 활성화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수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CIS 이웃 국가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주변국들과 실리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이끌어냈다. 2003년에는 러시아와 25년, 2006년에는 중국과 30년

36) Ниязи А., *op. cit.*, p. 44.

간 장기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부투자의 증가도 경제 성장의 주된 요인이다. 정부는 석유정제·섬유·식료품·건설 등 각종 산업과 도로·철도·가스관 등 사회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사회 인프라 확장과 현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가의 남과 북을 도로와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파키스탄으로 연결되는 TAP(Turkmenistan - Afghanistan - Pakistan) 가스관 공사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높은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불안정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국가 전반에 걸쳐 임금, 물가 및 상품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전력의 무상 공급, 각종 보조금 지급 등 대중융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품의 가격 및 거래는 1994년 설립된 투르크멘 상품거래소(COMEX)를 통해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양만큼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 환율 기준 5,700 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외 거래는 반드시 COMEX의 중개를 통해야 한다. 임금은 국가가 정한 공식 임금에 따라 정해지며, 공식 임금의 초과분에 대해 60%의 세금이 부과된다. 외환거래는 1998년 잠시 자유화되었으나, 공식 환율과 장외 환율의 격차

표 2-19.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실질GDP증가율	%	20,4	15,8	17,1	17,2	9,6	9,0
산업생산증가율	%	11,0	21,7	22,0	22,0	19,2	24,4*
소비자물가상승률	%	11,6	8,8	5,6	5,9	10,8	11,5
총투자증가율	%	26,0	9,0	24,8	22,1	13,9	12,4*
수출	십억 \$	2,6	2,86	3,47	3,85	4,94	5,94
수입	십억 \$	2,3	1,83	2,58	3,15	3,64	3,97
재정수지	%/GDP	0,6	0,2	-1,3	0,0	-0,9*	-0,4*
경상수지	%/GDP	1,7	5,0	2,0	0,5	2,7*	3,1*
환율(기간평균)	Manat/\$	5,200	5,200	5,200	5,200	5,200	5,200

주: * 예상치.

자료: ADB(2007); Global Insight(2007).

가 300% 이상 벌어지면서 중앙은행을 통한 경매로 제한되고 있다. 국가의 경제통제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2005년부터 10%대로 진입하였다. 현재 마나트화 대(對)달러 공식 환율은 5,200 마나트(Manat)로 고정되어 있으나, 외환 시장이 취약하고 암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실제 환율은 달러 당 2만 4,000 마나트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복리후생과 밀접한 교육 및 보건 분야가 가장 심각하다. 2006년 말 심장마비로 급서한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재직 시에 교육과 보건 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비이성적인 정책을 실행하여 교육 및 보건 부문을 붕괴시켰다. 2005년 12월 전국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중단하고 자력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지시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학교가 폐교되었다. 또한 의무 중등교육을 10년에서 9년으로, 대학과정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를 인정해주지 않아, 해외 유학파들의 두뇌유출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2004년 12월에는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를 중단하고, 전국의 모든 의료시설 및 인력을 수도인 아쉬하바트에 집중시키면서 지방 보건의료체계를 마비시켰다.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유아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다.³⁷⁾

2007년 2월 새로 출범한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니야조프 정부 시절 개악되었던 제도를 재개편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이자, 보건부 장관 및 부총리로 재직할 당시, 교육 및 보건 부문의 개악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7) 신현준(2007), p. 12~13.

2) 경제 및 산업구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2006년 공업이 GDP의 41.5%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농업은 GDP의 22.1%, 서비스업은 33.4%를 차지하고 있다. 공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정착된 원인은 구소련 붕괴 이후에도 소비에트식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정부투자의 확대를 통한 공업 중심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20.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

(단위: GDP 대비 %)

구분	1990년	2000년	2006년
농업	18.0	22.9	22.1
공업 (제조업)	57.0 (46.0)	41.8 (35.0)	41.5 (34.7)
서비스업	25.0	35.2	33.4

자료: ADB(2007).

투르크메니스탄은 소비에트식 계획경제를 추진하면서 석유 및 가스산업, 농업, 교통 및 통신업 등 전략적 국가기간산업을 국유화하였다. 석유 및 가스산업을 보면, 총 5개의 국영기업이 개발 및 생산에서 수출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

표 2-21. 투르크메니스탄 5대 석유·천연가스 산업의 국영기업 현황

국영기업명	기능
투르크멘네프테가즈(Turkmenneftegaz)	국내 판매 및 수출
투르크멘오일(Turkmenoil)	석유 생산
투르크멘가즈(Turkmengaz)	천연가스 생산
투르크멘네프테가즈스트로이(Turkmenneftegazstroï)	석유·천연가스 부문 건설
투르크멘게올로기아(Turkmengeologia)	광구 탐사 및 개발

자료: Alexandre Repkine(2004). "Turkmenistan: Economic Autocracy and Recent Growth".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 Sources of Long Term Growth*.

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영기업이 벌어들인 외화 및 소득의 일부를 각종 정부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 수입대체산업화 및 사회지출에 사용하고 있다. 국영기업의 사유화는 중·대기업을 제외한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적이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5년 GDP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고 발표했으나, 외부에서는 약 25%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표 2-22.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운영기금 현황 ■

기금명	재원	사용처
외환보유기금(FERF)	전 부문 수출소득 중 외화의 50%	주요 국가 프로젝트
석유가스개발기금(OGDF)	석유 · 천연가스 수출소득 중 일부	광구 탐사 및 개발, 마케팅
농업개발기금(ADF)	면화 수출소득의 일부	면화 및 곡물 생산
교통통신기금(TCF)	교통 · 통신기업 소득의 일부	유관 프로젝트
보건개발프로젝트(HDF)	공식 임금의 4%	의약품 및 치과진료 보조

자료: EIU(2006). Country Profile -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가 비효율적인 소비에트식 계획경제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10조m³로 전 세계의 1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와 880억 배럴을 자랑하는 석유이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최대 산업이다. 2005년 석유, 가스 및 석유제품의 수출이 투르크메니스탄 총수출의 약 90%를 차지하였다. 특히 가스의 수출은 투

■ 표 2-23.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및 가스 생산 동향 ■

구분	생산량 및 증가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천연가스	생산량(십억 m ³)	53.5	59.1	58.6	63.0
	증가율(전년대비, %)	4.3	10.5	-0.8	7.5
석유	생산량(b/d)	180,723	200,884	201,827	191,205
	증가율(전년대비, %)	12.2	11.2	0.5	-5.3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Information.

르크메니스탄 경제를 이끌어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 2005년 가스 생산량은 630억 m^3 이며, 이중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의 생산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천연가스 생산증가율은 2004년 -0.8%를 기록하며 감소한 후, 2005년 7.5% 증가하며 반등하였으나, 정부의 연초 목표치인 780억 m^3 에는 20% 이상 미치지 못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천연가스 수출대상국은 우크라이나로, 2005년 천연가스 수출의 75%를 차지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TAP 가스관 건설과 이란 수출용 가스관의 확장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국에 연간 약 300억 m^3 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인 투르크메니스탄-중국(Turkmenistan-China)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³⁸⁾ 2007년 5월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앙아시아-중앙(Central Asia-Center) 가스관의 확장과 카스피해 연안의 새로운 가스관 건설에 합의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5년 11월 열린 제 10회 국제 석유·가스 박람회 및 컨퍼런스에서 2020년까지 약 600억 달러의 외차유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중 40%는 생산물분배협정(PSA)을 기본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연간 석유 1억 톤, 천연가스 2,400억 m^3 를 생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기존의 단순한 석유·가스의 채굴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정유 및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유시설은 투르크캄바시(Turkembashi)와 세이디(Seidi) 2곳에 존재하는데, 투르크캄바시 정유시설은 이미 일본, 네덜란드, 터키, 이스라엘 등이 참여하여 현대화를 마쳤으며, 세이디 정유시설은 향후 5년 동안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이토추 상사는 세이디 정유시설의 현대화에 참여를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는 정유 플랜트·섬유·

38) 현재 건설 계획 중인 투르크메니스탄-중국 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 아무다리야(Amudarya)강에서 출발,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중국 광둥성(Guandun)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약 7,000km 가스관으로, 양국은 건설에 합의한 뒤 2006년 9월 중국 정부가 승인하면서 최종 결정되었다.

건설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미납한 가스 대금의 조속한 완납과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전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미국, 인도 등 주요국들이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농업의 주요 작물은 원면 및 곡물이다. 원면의 대부분은 남부와 북부지역에 위치한 마리(Mary) 주와 다쇼구즈(Dashoguz) 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곡물 수확은 남서부에 위치한 아할(Akhal) 주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에 농업생산은 전년대비 20% 증가하였고, 특히 원면생산은 2003년 71만 톤에서 2006년 350만 톤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대규모 농업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원면 및 곡물 생산자들은 정부로부터 특혜신용을 제공받고, 세금이 면제되며, 종자·화학제품·천연비료·기술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해 주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고스자카즈(Goszakaz)라고 하는 정부곡물수매제도를 통해 국가가 농업의 투입량과 산출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의 곡물 수매가로 결정되고 있다.

3) 경제발전 전략

투르크메니스탄은 구소련 시대와 유사한 국가가 경제전반을 통제하는 계획 경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산업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과 같은 전략적 부문은 여전히 국가의 소유 하에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교육·보건·건설·통신·운송 등과 같은 부문들에서도 국영부문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대외무역에서도 국가의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 전력·가스·수도 등 사회기반서비스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저가 또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 대한 내재적 보조금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높은 재정적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국가들 중 유일하게 IMF 체제전환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고,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IMF는 1999년 말 주재원을 철수시켰으며, EBRD도 2001년부

터 대규모 지원을 보류한 채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만 유지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되었던 「2000~2010년 사회 및 경제 체제전환전략(Strategy for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for 2000~2010, 이하 체제전환전략)」에 나타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핵심은 소비에트 사회주의식 경제 발전이다.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 석유정제, 농업 등 핵심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수입대체 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2003년에는 체제전환전략을 수정 보완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정치·문화 발전전략 2020(Strategy of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urkmenistan for the Period up to 2020)」을 발표하였다.³⁹⁾ 본 전략의 기본 방향은 신기술 도입과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경제안보를 확보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국내외 투자를 받아들여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 전략은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대외지향적 전략이라기보다는, 기존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한 채 내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자립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전략과 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경제의 원동력인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20년 에너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계획은 2020년까지 석유·가스 개발과 파이프라인을 비롯한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07년 3월 각종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투자 협상 및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석유자원활용청을 신설하였다. 본 계획 하에, 앞서 언급했던 투르크메바시와 세이디의 정유시설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마리(Mary) 주와 아할(Akhal) 주에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여, 연간 3,500만 톤의 원유를 가공하고, 석유화학제품 2,000만 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연결되는 TAP 가스관, 투르크메니

39) 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http://www.turkmenistan.gov.tm>)

스탄-중국 가스관 이외에 다양한 루트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가스 수출루트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2.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 평가와 중장기 전망

가. 경제성장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기(1991~1995년)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의 침체를 경험하였다. 1991년 대비 1995년도 GDP 감소율은 우즈베키스탄이 18%, 카자흐스탄이 31%, 키르기스스탄이 45%, 타지키스탄이 59%였다. 이 기간에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침체한 데는 구소련 시절 단일경제권이 개별국 경제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립 경제기반의 부족,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실시한 사유화, 가격자유화 등 경제개혁의 후유증에 기인한다. 따라서 제 1기에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정책은 체제전환과정에서 겪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안정화정책이 주가 되었다.

■ 표 2-2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GDP 증가율 동향 ■

(단위: %)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카자흐스탄	-9.2	-12.6	-8.3	0.5	1.6	-1.9	2.7	9.8	13.5	9.8	9.3	9.6	9.7	10.7
우즈베키스탄	-2.3	-5.2	-0.9	1.7	2.5	4.3	4.3	3.8	4.2	4.0	4.2	7.7	7.0	7.3
키르기스스탄	-13.0	-19.8	-5.8	7.1	9.9	2.1	3.7	5.4	5.3	0.0	7.0	7.0	-0.2	2.7
타지키스탄	-11.1	-21.4	-12.5	-4.4	1.7	5.3	3.7	8.3	10.2	9.1	10.2	10.6	6.7	7.0
투르크메니스탄	-10.0	-17.3	-7.2	-6.7	-11.3	6.7	16.5	18.6	20.4	15.8	17.1	14.7	9.0	9.0

자료: IMF(2007).

제 2기(1996~2000년)에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잠재력이 점진적으로 회

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제 2기의 첫 해인 1996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3개국은 독립 초기에 경제침체를 딛고, GDP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1997년 말에는 고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억제되어, 체제 전환 초기에 발생했던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 및 확대 재생산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 2기의 경제정책은,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한 거시경제문제들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 1기의 경제정책과는 달리, 시장경제체제에 걸맞은 제도개혁, 새로운 인프라 구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유치 등 실질적인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규모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제 2기의 중앙아시아 경제는 1998년 러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인 침체를 겪었다. 주로 강력한 경제자유화 정책을 취하던 국가들(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더욱 큰 고통을 당했다. 예컨대 1998년 카자흐스탄의 GDP는 1.9% 하락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GDP 성장률은 2.1%로 급격히 둔화되었다.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은 제 2기의 후반부인 1999년부터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하였다. 금융위기 기간 동안 자국의 대달러 환율이 대폭 절하되면서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이 시기부터 시작된 국제 고유가로 인해, 중앙아시아 경제는 에너지자원 수출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2.7%의 성장을 보였던 카자흐스탄은 2000년에 9.8% 성장하였으며, 1997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던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 수출 호조로 인해 2000년에 18.9% 성장이라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제 3기(2001년~현재)에 접어든 중앙아시아 경제는 국제 고유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앞서 살펴보았던 국별 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제 3기부터는 소위 에너지자원 수출국(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⁴⁰⁾의 성장잠재력에 점차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자원 수출국들은 석유·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는 반면, 에너지자원 비수출국들은 여전히 자국의 전통산업인 농업과 광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각국의 소득수준은 체제전환 초기에 비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에너지자원 수출국에 더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5]에 나타난 구매력평가(PPP) 기준 2006년 1인당 GDP는 카자흐스탄이 9,294 달러로 1위를 기록하였고, 같은 에너지자원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8,548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가장 낮은 1인당 GDP를 보유한 타지키스탄의 격차는 6배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25.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GDP 동향 ■

(단위: 달러)

국가 / 연도	1992~96년 (기간평균)	1997~2001년 (기간평균)	2002~04년 (기간평균)	2005년	2006년
카자흐스탄	3,879	4,422	6,736	8,318	9,294
투르크메니스탄	3,686	3,302	6,254	8,098	8,548
우즈베키스탄	1,387	1,475	1,725	1,920	2,283
키르기스스탄	1,384	1,498	1,826	2,088	2,150
타지키스탄	842	762	1,126	1,388	1,501
전체	2,236	2,292	3,533	4,362	4,755

주: 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통계.

자료: IMF(2007).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자국의 사정에 맞는 경제정책으로 꾸준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은 에너지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

40)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총수출 대비 에너지자원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에너지자원 수출국으로, 이에 비해 낮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을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으로 구분 가능하다. 2005년 기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총수출 중 에너지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92.4%), 카자흐스탄(73.8%), 타지키스탄(25%), 키르기스스탄(14.4%), 우즈베키스탄(9.8%) 순이다.

입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은 때로는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때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통해 농업,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아시아 경제는 에너지자원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세계시장에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자원에 편향된 구조에서 탈피하여 산업다각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친시장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 시장평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제도·관습·영토·인구 및 경제발전 수준에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효율적인 중장기 통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시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평가는 시장성, 성장성, 경제발전 잠재력, 통상환경 등 4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시장성과 성장성은 객관적인 양적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장성 요소는 GDP, 1인당 GDP, 수출입규모 등을 들 수 있으며, 성장성 요소는 실질 GDP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등 3개 항목별 최근 5년간 평균치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경제발전 잠재력 요소는 자원부존,

■ 표 2-26. 중앙아시아 6개국의 시장성 지표(2006년) ■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	1인당 GDP (\$, 시장 환율)	수출액 (십억 \$)	수입액 (십억 \$)
카자흐스탄	15.2	77.2	5,214.5	38.25	23.67
투르크메니스탄	6.7	29.3	5,982.1	5.94	3.97
우즈베키스탄	26.7	16.1	596.1	6.39	4.40
키르기스스탄	5.2	2.8	535.9	0.80	1.72
타지키스탄	7.0	2.8	423.4	1.40	1.73

자료: ADB(2007); Global Insight(2007).

지리적 입지, 역내 경제통합체에서의 역할 등 3개 항목을 비교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아시아 경제의 최대 원동력이자 한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원부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통상환경 요인은 GDP 대비 민간부문 비중, 기업 자유화, 시장 및 교역 자유화, 금융 자유화 정도 등 시장개방도 관련 사항을 통해 비교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적인 공신력을 가진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시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카자흐스탄이며, 대체로 에너지자원 수출국이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에 비해 시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기준 카자흐스탄은 GDP 규모, 수출입 규모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전체 GDP의 60.2%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의 72.5%, 수입의 66.7%를 점하고 있다. 또한 인구 및 1인당 GDP 규모 면에서도 2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GDP 규모는 중앙아시아 전체 GDP의 각각 2.2%에 불과하며, 1인당 GDP도 하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수출에 힘입어 1인당 GDP 규모에서 1위, GDP 규모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에너지자원 비수출국 중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시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구 2,670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은 수출입 규모 면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이어 2위이나, 소득수준이

표 2-27. 중앙아시아 5개국의 성장성 지표

(단위: %, 기간평균)

구분	실질 GDP 성장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2~06년 (기간평균)	2002~06년 (기간평균)	2002~06년 (기간평균)
카자흐스탄	9.4	9.9	10.6	9.7	35.4	30.8
투르크메니스탄	17.2	9.6	9.0	13.7	18.0	14.9
우즈베키스탄	7.7	7.1	7.3	6.2	15.8	7.8
키르기스스탄	7.0	-0.3	2.7	3.3	11.4	30.4
타지키스탄	10.3	6.7	7.0	9.2	17.9	20.8

자료: ADB(2007); Global Insight(2007).

매우 낮아 GDP 규모는 카자흐스탄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2002~2006년까지 최근 5년간의 성장성을 보면 에너지자원 수출국과 에너지자원 비수출국 간 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에너지자원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이 나란히 최근 5년간 연평균 13.7%, 9.7%의 고성장을 이룩하였다. 수출입 증가율은 카자흐스탄이 석유 수출과 자본재 수입의 증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키르기스스탄이 따르고 있다. 에너지자원 비수출국 중에는 타지키스탄이 최근 5년간 9.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수출입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은 에너지자원 수출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은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국내에 부족한 산업 및 사회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발전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인 자원부존에서도 당연히 에너지자원 수출국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월등하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탐사된 석유매장량의 86.2%를 점하고 있다.⁴¹⁾ 카자흐스탄은 172개의 유전, 42개의 콘덴세이트전, 94개의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약 25%를 차지하며, 현재 세계 우라늄의 8%를 채굴하고 있다.⁴²⁾ 이 외에도 아연, 텅스텐, 중정석은 확인 매장량에서 세계 1위, 은, 연, 크롬은 세계 2위, 구리, 망간, 형석은 세계 3위, 몰리브덴은 세계 4위, 그리고 세계 철광석 매장량의 8%를 점하고 있다. 석탄 매장량도 358억 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3.6%를 점하고 있으며, 금 매장량도 세계 10위 안에 포함된다.

세계 4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42.6%를 점하고 있다.⁴³⁾ 특히 카스피해 대륙붕에 접한 지역을 포함한

41) 카자흐스탄은 탐사된 석유 매장량 규모에서 세계 13위이다.

42) 카자흐스탄은 현재 세계 4위 우라늄 생산국이며, 카자흐스탄 우라늄 채굴회사인 '카자토프름'사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연간 1만 5,000톤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3) 우즈베키스탄에 29.8%, 카자흐스탄에 27.4%가 매장되어 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Кузьмина Е. М., Геополитика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 Наука, 2007, С. 19-20).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매장량은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1/3(21~24조m³)에 해당하며, 석유 매장량(68~120억 톤)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또한 구소련 지역에 매장된 붕소 및 요오드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막대한 양의 황산 소다, 칼리염(최대 50억 톤), 유황, 스트론튬, 식탁염(18억 톤), 석탄, 금, 수은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자원 생산량이 수출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주로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석유 및 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채굴 면에서 CIS 국가들 가운데 3위로, 연간 600억m³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라늄 채굴 면에서 세계 5위, 매장량 면에서는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질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 27군데의 우라늄 산지가 있으며, 확인 총매장량은 대략 5만 5,000톤으로 평가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7위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금 매장량 면에서 세계 4위, 채굴 면에서는 7위를 차지하고 있다.⁴⁴⁾

통상환경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개혁 정도는 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시장개혁 실행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2001~2003년에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은행제도, 철도운송, 전력, 공공주택 부문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반대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점진적인 시장체제 개혁을 실행하고 있어, 경제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매우 높다.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07년 경제자유도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자유로운 경제는 카자흐스탄(60.4)이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스탄(59.9), 타지키스탄(56.9), 우즈베키스탄(52.6), 투르크메니스탄(42.5) 순이었다.⁴⁵⁾

44) Каримов И. А., (1997), pp. 223~134.

45)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는 △ 무역, △ 재정부담, △ 정부의 경제개입, △ 통화정책, △ 외국인투자, △ 금융, △ 임금/물가, △ 지적재산권, △ 규제, △ 비공식 시장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얼마나 한 국가의 경제가 자유시장경제에 가까운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각 요소별 평가와 총평가로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경제가 자유로운

■ 표 2-28.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자유도 지수 ■

국가 /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카자흐스탄	39.1	44.8	47.5	48.1	50.2	50.0	47.3	51.1	61.2	60.4
우즈베키스탄	29.0	30.7	35.5	34.9	36.7	38.0	39.0	44.2	50.4	52.6
키르기스스탄	49.0	52.2	53.2	52.2	50.5	54.7	55.7	54.7	62.8	59.9
타지키스탄	39.2	39.2	42.9	44.8	44.2	43.1	44.8	49.9	55.8	56.9
투르크메니스탄	33.6	34.7	36.8	40.9	41.3	47.0	46.2	43.7	43.9	42.5

자료: Heritage Foundation(2007).

이러한 평가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개방정도를 잘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자유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국가의 강력한 경제통제, 비국영 기관들의 미약함, 외국인 자본에 대한 제한,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리적 입지의 측면에서는 중앙아시아 경제권의 전통적인 강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아시아와 CIS 전역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진출거점 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CIS 최대 경제국인 러시아의 서시베리아지역과 CIS 서부지역에 대한 접근성 및 연계성이 탁월하다. 또한 러시아와 함께 CIS 역내 경제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의 경제통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육지로 둘러싸인 내륙 국가이고 고산 지대로 이루어져있어 물류비용이 매우 높은 불리한 지리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적인 시장평가는 에너지자원 수출국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것을 의미한다. 헤리티지재단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1~1.99는 자유, 2~2.99는 비교적 자유, 3~3.99는 비교적 부자유, 4~5는 부자유이다(<http://www.heritage.org/research/>).

46) 중앙아시아의 대외경제 부문은 대외경제 개방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출 증가 및 제조업 활성화로 인해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에너지자원 비수출국 가운데서는 우즈베키스탄이 발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 중앙아시아 경제의 중심국이자 시장개방도가 비교적 높아 통상환경이 우수한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중장기 경제발전 전망

중앙아시아 경제는 국제경기 변동에 민감한 에너지자원 및 농산물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경제전망 역시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권위 있는 세계경제 조사 및 예측기관 Global Insight의 전망을 중심으로 2020년 중앙아시아의 전체 및 국별 경제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2020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은 연평균 5.9%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 수출국이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수출국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고유가와 대량 석유·가스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석유 및 가스 수출이 지속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투르크메니스탄이 9.93%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

표 2-29.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전망

국가 / 연도	실질GDP성장률(%)	1인당 GDP(달러)
	2006~20년	2020년
카자흐스탄	6.60	26,943.1
투르크메니스탄	9.93	24,131.9
우즈베키스탄	4.65	1,817.1
키르기스스탄	3.31	1,095.0
타지키스탄	4.83	965.3
전체	5.9	10990.5

자료: Global Insight(2007).

중앙아시아 각국의 산업 역시 현재보다 더욱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노후화되긴 했지만 비교적 제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여건만 마련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각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수출증가로 인해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입수요의 확대, 사회 및 산업 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2020년에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 2만 6,943 달러, 투르크메니스탄은 2만 4,131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구매력 증가와 수입수요의 확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투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신용도 상승과 투자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개혁이 뒤따른다면 에너지 부문 뿐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Global Insight는 각국 정부가 발표한 2006년까지의 경제실적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경제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2004년을 고비로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던 국제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이 최근까지 더욱 심화되었다는 측면과 각국 통화화에 대한 달러화의 약세 추세가 추가로 반영

■ 표 2-30. 2020년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시장성 전망 ■

구분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	1인당 GDP (\$, 시장 환율)	수출액 (십억 \$)	수입액 (십억 \$)
카자흐스탄	14.9	401.0	26,943.1	118.7	106.5
투르크메니스탄	5.8	140.2	24,131.9	25.5	20.8
우즈베키스탄	32.5	59.0	1,817.1	14.4	12.1
키르기스스탄	6.0	6.6	1,095.0	1.5	2.6
타지키스탄	8.3	8.1	965.3	3.7	4.0

자료: Global Insight(2007).

■ 표 2-31. 2020년 중앙아시아 5개국의 성장성 전망 ■

(단위: %, 기간평균)

구 분	실질 GDP 성장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2006~10년	2011~20년	2006~20년	2006~20년	2006~20년
카자흐스탄	8.9	5.43	6.60	10.3	12.8
투르크메니스탄	16.1	6.83	9.93	11.9	12.4
우즈베키스탄	6.5	3.71	4.65	7.7	9.1
키르기스스탄	4.3	2.82	3.31	5.4	6.8
타지키스탄	5.8	4.34	4.83	8.6	7.4

자료: Global Insight(2007).

되었다. Global Insight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경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수출국 경제가 에너지자원 비수출국 경제보다 훨씬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0]와 [표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측의 시장성 및 성장성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2007년 현재 각국의 시장성에 비해 2020년 시장성 전망에서는 GDP 규모, 소득수준 및 수출입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에너지자원 수출국과 에너지자원 비수출국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성 전망에서도 GDP와 수출입 시장 모두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원자재 시장에 당분간 급격한 가격하락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없다는 점이다. 즉, 2007년 이후 국제에너지 수요가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국제유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내부의 위험 요인으로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사태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 금융 및 인프라 부문의 취약성, 자국통화 가치 절상에 따른 제조업 위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가의 경제규제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 및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된 적극적인 조치들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현존 정치 집단들 간의 부단한 권력투쟁이 경제 및 국민의

생활수준 개선 문제를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불안정성은 국가의 투자환경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내 최빈국인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대외부채 유지와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로 말미암아 사회적 과제들의 해결과 경제성장의 질적 향상이 방해받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현존 정치체제는 니야조프 통치시기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회경제적 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은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는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2020년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경제의 미래는 대체로 밝다고 전망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특히 에너지자원의 혜택과 이에 상응하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기인한다. 그러나 에너지자원은 한계가 있으며, 에너지자원에 편향된 경제구조를 유지할 경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과 산업다각화를 통해 에너지자원 수출의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국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국민소득의 증가가 필요하며, 대외경제개방을 통해 경제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합 협력의 확대, 상품·자본·기술·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조건의 창출, 관세 및 세율정책의 개선 등이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제3장

중앙아시아의 통상현황 및 정책

이재영 · 신현준



중앙아시아의 통상 현황 및 정책

이 재 영 · 신 현 준

1. 대외무역

가. 무역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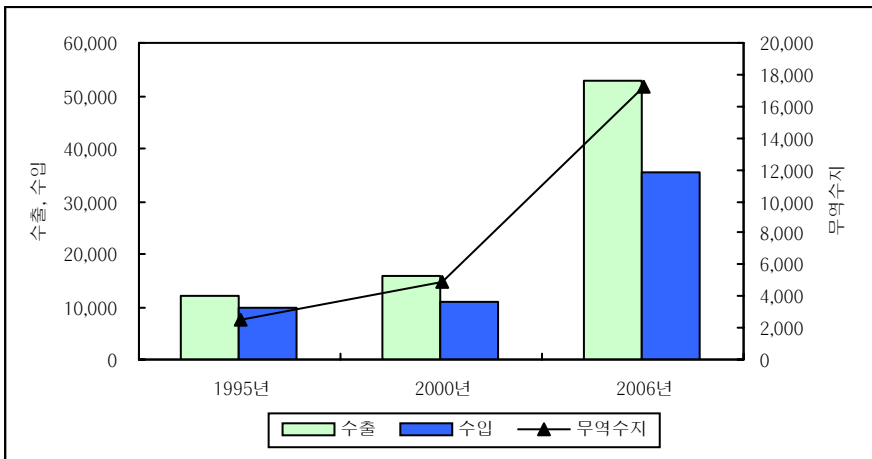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구소련으로부터 정치, 경제적 독립을 획득한 1990년대 초부터 점진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무역의 주체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구소련 시절 구성공화국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은 주로 구소련 역내교역 중심이었으며, 대세계 무역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구소련 시절의 무역은 무역대상국, 무역상품, 상품가격 등을 중앙계획기구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경제에서 무역은 중요한 경제적 요소가 아니었다. 1990년대 초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대세계 무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 과정에서 총체적인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교역대상국을 찾는 것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경제가 점차 안정화되고, 세계경제에 점진적으로 편입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 경제발전 과정 중 제 1기의 마지막 해인 1995년 이후 중앙아시아

아의 대외무역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중앙아시아는 1995년에 약 122억 달러를 수출하고, 약 97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2006년 수출은 약 528억 달러, 수입은 35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995년 대비 각각 331.0%, 265.7%의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다. 1995년 25억 달러에 불과하던 무역흑자 규모도 2006년에는 173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1995~2000년 사이의 증가세보다 2000~06년 사이의 증가세가 수출, 수입, 무역수지의 모든 면에서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국제 고유가의 혜택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 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인 에너지자원 및 원자재의 수출호조로 인해 대외무역도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그림 3-1. 중앙아시아의 대외무역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DB(2007).

1995~2006년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의 국별 대외무역 동향은 개별국의 경제 동향 및 구조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수출 증가율은 에너지자원 수출국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각각 628.6%, 184.7%를 기록하면서, 중앙

표 3-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무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5년	2000년	2006년	증가율(%) (1995~2006년)
카자흐스탄	수출	5,250.2	8,812.2	38,250.4	628.6
	수입	3,806.7	5,040.0	23,676.9	522.0
	무역수지	1,443.5	3,772.2	14,573.5	-
우즈베키스탄	수출	3,719.9	3,264.7	6,389.8	71.8
	수입	2,892.7	2,947.4	4,395.9	52.0
	무역수지	827.2	317.3	1,993.9	-
키르기스스탄	수출	408.9	504.5	794.1	94.2
	수입	522.3	554.1	1,718.2	229.0
	무역수지	-113.4	-49.6	-924.1	-
타지키스탄	수출	779.0	784.0	1,399.0	79.6
	수입	838.0	675.0	1,725.0	105.8
	무역수지	-60.0	109.0	-326.0	-
투르크메니스탄	수출	2,084.4	2,508.0	5,935.0	184.7
	수입	1,643.6	1,742.0	3,972.0	141.7
	무역수지	440.8	766.0	1,963.0	-
중앙아시아 전체	수출	12,242.4	15,873.4	52,768.3	331.0
	수입	9,703.3	10,958.5	35,488.0	265.7
	무역수지	2,539.1	4,914.9	17,280.3	-

자료: ADB(2007).

아시아 5개국 중 수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에너지자원비 수출국 3개국은 100%에 미치는 못하는 수출증가율을 보였다. 카자흐스탄은 석유·가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오일머니로 소비재 및 자본재를 적극 수입하면서, 수입증가율에서도

표 3-2. 중앙아시아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 동향(2001-2006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북해산 Brent유 (달러/배럴)	24.4	25.0	28.0	37.2	63.0	71.0
알루미늄 (달러/톤)	1,444.0	1,350.2	1,431.4	1,715.5	1,898.5	2,569.1
구리(달러/톤)	1,578.3	1,559.5	1,778.9	2,864.9	3,678.9	6,743.5
니켈(달러/톤)	5,948.4	6,775.2	9,633.4	13,827.5	14,743.9	24,265.4
주석(달러/톤)	4,484.4	4,060.4	4,894.9	8,514.8	7,381.9	8,749.6
아연(달러/톤)	476.1	452.7	514.9	886.9	976.5	1,292.8

출처: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2005). p. 114-119; The World Bank. Annual Report. Washington. 2004, 2005, 2006.

5개국 중 1위를 기록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최빈국에 속하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수입증가율이 229.0%와 105.8%를 기록하면서,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나. 무역 상품구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림 3-2]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및 수입 상품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수출 상품구조를 보면,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석유·가스를 포함한 천연자원, 금·알루미늄 등 귀금속 및 광물자원, 원면 등 주로 1차 산업 생산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 2006년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 수출은 전체 수출의 71.9%를 차지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가스의 수출만 전체의 83.0%, 타지키스탄은 알루미늄 단일품목이 전체 수출의 75.0%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금과 같은 귀금속 및 원면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중앙아시아 5개국의 수출 상품구조가 농업 및 광업생산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이유는 특별히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대신, 천혜의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농산물과 에너지자원 및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그림 3-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상품구조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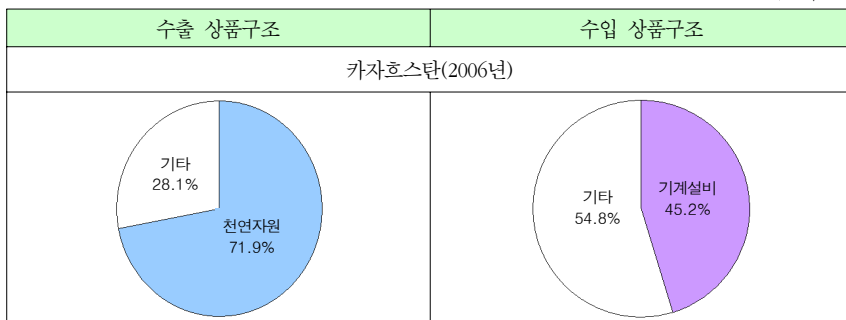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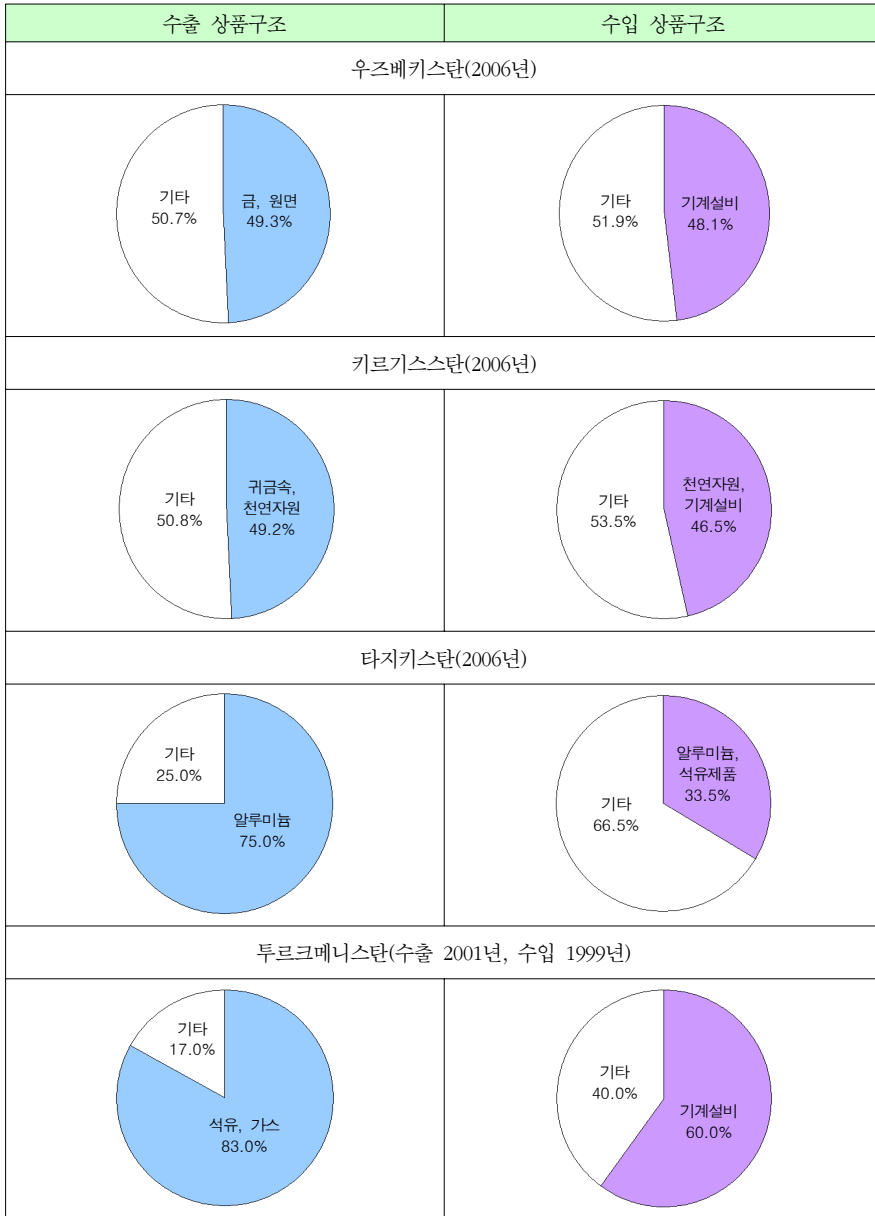


그림 3-2. 계속

(단위: %)



자료: ADB(2007).

수입 상품구조를 보면,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가 기계설비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기계설비 수입이 전체 수입의 각각 45.2%와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60%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기계설비의 수입비중이 높은 이유는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자원채굴을 위한 설비를 확충하고, 산업다각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3. 중앙아시아 각국의 역내교역 비중

(단위: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증가율(% 포인트) (1995~2005년)
교역량				
카자흐스탄	15.1	8.9	2.4	-12.7
키르기스스탄	59.7	57.3	23.0	-36.7
타지키스탄	64.3	41.1	21.6	-42.7
투르크메니스탄	13.7	-	3.1	-10.6
우즈베키스탄	17.3	12.5	8.4	-8.9
중앙아시아 총계	21.2	-	4.6	-16.6
수출				
카자흐스탄	10.9	10.8	2.3	-8.6
키르기스스탄	54.7	64.1	23.6	-31.1
타지키스탄	57.3	29.7	9.8	-47.5
투르크메니스탄	17.3	-	3.6	-13.7
우즈베키스탄	19.7	13.1	8.6	-11.1
중앙아시아 총계	19.0	-	3.8	-15.2
수입				
카자흐스탄	21.0	5.5	2.5	-18.5
키르기스스탄	63.6	51.1	22.6	-41.0
타지키스탄	70.8	54.4	29.7	-41.1
투르크메니스탄	8.8	-	2.3	-6.5
우즈베키스탄	14.6	11.8	8.0	-6.6
중앙아시아 총계	23.9	-	5.6	-18.3

자료: CIS 국가간 통계위원회.

다. 무역의 지리적 분포

1990년대 초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 본격적으로 대세계 무역을 시작한 이후 중앙아시아 무역의 지리적 분포는 점차 변화되고 있다. 체제전환 초기 중앙아시아의 대외무역은 세계무역질서에 편입되지 못하고 과거 구소련 국가들 사이의 역내교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에너지자원 수출국의 경우에는 에너지자원을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비교적 낮았으나,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의 경우에는 역내 주변국과의 소규모 교역 외에는 대안이 없어 그 비중이 매우 높았다. 1995년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역내교역 비중은 총교역량의 각각 59.7%와 54.3%에 달했다. 반면 동년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비중은 15.1%와 13.7%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세계무역질서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역내교역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에는 중앙아시아 전체의 총교역량 대비 역내교역량이 21.2%를 기록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3.1%로 1995년에 비해 16.6% 포인트 감소했다. 에너지자원 수출국으로서 1995년에도 비교적 낮은 역내교역 비중을 보였던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도에도 비중이 각각 2.4%와 3.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1995년에 역내교역 비중이 매우 높았던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도, 2005년도에도 5개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는 있으나, 1995년과 비교하여 각각 23.0% 포인트, 21.6% 포인트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교역이 감소한 원인은 세계 주요국과의 교역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자유화의 속도 및 범위에서의 차이, 낮은 경제적 상호작용 수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역내교역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채택한 우즈베키스탄의 독특한 정책이 역내 국가들 간의 교역량 증대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였다. 무역 거래 품목의 축소, 자유무역 체제로부터의 제외(예컨대 카자흐스탄과의 무역에서 제외되는 품목

은 10개 이상)와 이에 따른 높은 수입관세율, 특별소비세의 설정, 일련의 상품 수출 금지, 중앙아 국가들의 경제주체들 간의 계약 등록 제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구조가 상호 유사하여 무역의 상호보완성이 낮은 것도 커다란 이유이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는 주로 에너지 공급 및 상품의 통과에 한정되어 있으며, 제조업 제품의 상호간 수출입은 미미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수출입대상국은 역사적 ·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지리적으로 근접해있는 일부 국가로 한정되어 있다. [표 3-4]에 나타난 중앙아시아 각국의 주요 수출입대상국 비중을 보면,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4개국 수출에서 5대(키르기스스탄은 4대) 수출대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달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무려 73.7%에 이르고 있다. 5

■ 표 3-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수출입대상국 및 비중 ■

(단위: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대상국	비중	대상국	비중	대상국	비중	대상국	비중	대상국	비중
〈수출〉									
이탈리아	18.0	러시아	23.9	스위스	26.2	노르웨이	8.7	우크라이나	47.1
스위스	17.6	폴란드	11.8	카자흐스탄	20.5	러시아	8.2	이란	16.2
러시아	9.8	중국	10.5	러시아	19.4	터키	7.7	아제르바이잔	4.3
프랑스	9.4	터키	7.5	UAE	1.1	우즈베키스탄	5.9	UAE	3.1
중국	8.8	카자흐스탄	6.0	-	-	미국	4.0	이탈리아	3.0
합계	63.6	합계	59.7	합계	67.2	합계	34.5	합계	73.7
〈수입〉									
러시아	38.3	러시아	27.8	러시아	38.0	러시아	24.1	UAE	13.7
중국	8.1	한국	15.6	중국	14.4	중국	19.5	아제르바이잔	11.8
독일	7.6	중국	10.4	카자흐스탄	11.6	카자흐스탄	12.1	터키	9.8
미국	4.7	카자흐스탄	7.3	미국	5.7	우즈베키스탄	11.0	우크라이나	8.0
우크라이나	4.2	독일	7.1	-	-	아제르바이잔	8.2	러시아	8.0
합계	62.9	합계	68.2	합계	69.7	합계	74.9	합계	51.3

자료: 각국 통계위원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EIU.

개국 수입에서 주요 5대(키르기스스탄은 4대) 수입대상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0~70%에 이르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수출대상국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중앙아시아 자원 수입국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폴란드, 노르웨이 등 EU 국가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도 새로운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CIS 국가와 터키, 이란 등 주변의 같은 이슬람 문화권 국가도 주요 수출대상국의 일부이다. 주요 수입대상국의 분포도 주요 수출대상국의 분포와 매우 유사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EU 주요국, 미국, 중국 등으로 자원을 수출하고, 기계설비를 비롯한 자본재 및 생필품을 수입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유일하게 우즈베키스탄 제 2의 수입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구 대우자동차인 UzDaewooAvto 자동차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는 부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 초기 대우자동차가 중앙아시아 및 CIS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집중 투자한 이후, 양국간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타국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앙아시아 대외무역의 지리적 분포가 일부 주요 수출입대상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할 때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수출대상국들이 자국의 수입수요 변화에 따라 수입 물량을 줄이거나, 수입선을 변화할 경우, 또는 무역제재를 취하는 경우에 수출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취약성도 가지고 있다.⁴⁷⁾

라. 무역정책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정책은 구소련 붕괴 이전에는 같은 구소련 구성공화국으로서 유사성이 매우 높았으나, 체제전환 이후에는 각 국별로 무역자유화

47) ADB(2006), p. 23.

의 정도와 자국의 경제개발전략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경제개방과 무역자유화가 가장 심화된 국가로, 중앙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1998년에 WTO에 가입하였다. 카자흐스탄은 개혁 초기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서, 친시장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오일달러의 급속한 유입으로 국가의 부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무역투자규제를 다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지키스탄은 내전이 끝난 1997년부터 본격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여전히 대외개방과 수출증진을 통한 산업화정책보다는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경제개방 및 무역자유화 정도가 가장 낮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무역정책은 가장 자유로운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까지 국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표 3-5]에 나타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수입관세율을 살펴보면, 대외개방과 무역자유화 정도가 높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낮고 균등한(uniform)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tariff band가 0%, 5%, 10%, 15%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율(키르기스스탄 223%, 타지키스탄 384%)을 제외하면, 최대관세율도 15%이다. 반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tariff band 수가 각각 10개와 5개로 비교적 복잡하다. 카자흐스탄은 단순평균관세율은 7.4%로 높지 않은 편이나,

■ 표 3-5.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수입관세율 현황 ■

(단위: 개, %)

	Tariff Band 수	최대관세율(%)	단순평균 MFN 관세율(%)		
			총합	농산물	비농산물
카자흐스탄	10	100.0	7.4	-	-
우즈베키스탄	5	183.0	15.6	18.6	15.1
키르기스스탄	4	15.0	4.8	7.8	4.3
타지키스탄	4	15.0	7.9	11.3	7.4

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최대관세율은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제외.

자료: WTO(2007); ADB(2006).

tariff band가 10단계이며, 최대관세율도 100%에 이른다. 우즈베키스탄은 최대 관세율 183%(야채·과일류)%에, 단순평균 MFN 관세율도 15.6%로 높은 편이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농산물에 부과되는 단순평균 MFN 관세율이 각각 18.6%와 11.3%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관세 이외에 각종 수입부과금도 존재하는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수입품에만 혹은 자국 생산품보다 수입품에 더 높게 부과하는 소비세(excise tax)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2002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소비세법은 수입품에 대해서 국산품에 비해 높은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들에서 안보의 목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관세 및 기타 수입부과금 이외에도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을 통해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명목상으로는 2003년 10월부터 외환거래의 완전태환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자국의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외환 구입을 제한하고 있어서 수입업자들의 대금결제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환경은 대외무역 비용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선진국 시장 및 주요 항구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육상 및 해상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 내륙 지역이다. 최근 중국과 신실크로드 복원 사업 등 다양한 물류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철도·도로 등 육상운송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물류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2. 외국인투자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에너지자원 수출국들

은 석유·가스 부문에 FDI를 유치하여, 선진국의 신기술을 도입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자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도 FDI를 도입하여,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3-6]에 나타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누적액을 보면, 중앙아시아 최대 에너지자원 수출국인 카자흐스탄이 2006년 누적액 기준으로 324억 7,600만 달러를 유치하여, 중앙아시아 전체 누적액의 무려 85.0%를 독차지했다. 그 뒤로 중앙아시아 최대 가스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개국의 2006년 기준 누적액 합계 비중은 전체의 6.9%에 불과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체제전환 초기인 1990년대 초부터 FDI 유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에너지 부문에 FDI를 적극 유치한 결과이다. 같은 에너지자원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FDI 누적액은 에너지자원비 수출국 3개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처럼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력에 비해서 적은 수치를 보였다. 우즈베키스탄도 높은 경제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추진하면서 FDI 유입을 규제하여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적

■ 표 3-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누적액 ■

(단위: 백만 달러)

	유입액(Inflows)					누적액 (Stock)	
	1990~ 2000년 (연평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6년	비중(%)
카자흐스탄	1,040	2,092	4,157	1,977	6,143	32,476	85.0
우즈베키스탄	78	70	187	88	164	1,356	3.6
키르기스스탄	53	46	175	43	182	593	1.6
타지키스탄	15	14	272	54	385	645	1.7
투르크메니스탄	119	226	354	418	731	3,124	8.2
합계	1,305	2,448	5,145	2,580	7,605	38,194	100.0

자료: UNDP(2007).

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빈약한 부존자원과 낮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유입액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카자흐스탄으로의 쏠림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아시아로 유입되는 FDI 중 [표 3-7]에 나타난 그린필드형(공장설립형) FDI를 살펴보면, 2002~06년 합계 기준 카자흐스탄으로의 유입이 125건에 전체 45.8%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유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FDI 누적액 기준으로는 중앙아시아 전체의 3.6%에 불과했으나, 2002~06년 기간의 그린필드형 FDI 합계 기준으로는 34.8%를 차지했다.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는 그린필드형 FDI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FDI가 주로 석유·가스 개발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FDI는 과거 한국 대우자동차와 갑을방적처럼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3-7.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그린필드형(공장설립형) 외국인직접투자 건수 ■

(단위: 건,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비중(%)
카자흐스탄	6	36	30	29	24	125	45.8
우즈베키스탄	19	30	15	14	17	95	34.8
키르기스스탄	-	6	1	3	3	13	4.8
타지키스탄	-	6	4	6	2	18	6.6
투르크메니스탄	5	13	3	1	-	22	8.1
합계	30	91	53	53	46	273	100.0

자료: UNDP(2007).

[표 3-8]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국경간 M&A를 통해 매도한 건수와 금액을 보여준다. 2006년 매도 금액 기준으로 중앙아시아 M&A 시장이 세계 매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아서, 2006년 세계 M&A 시장 총 매수액 8,804억 5,700만 달러의 0.34%에 불과한 29억 5,3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매도한 금액은 20억 7,000만 달러로, 중앙아시아 전체의

70.1%에 해당한다.

중앙아시아에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일부 친시장적인 개혁을 충실히 수행한 국가들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사유화가 미진한 가운데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설령 민영화 되었다고 해도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고는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의 동향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의 주요 투자처는 카스피해를 중심의 석유·가스 개발사업 및 파이프라인 건설부문이다. 이외에도 우라늄·철광석 및 비철금속·건설·금융·교통 및 통신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6년 카자흐스탄으로의 최대 직접투자국은 네덜란드(28억 7,700만 달러), 미국(16억 9,400만 달러), 영국(8억 5,110만 달러) 등이 있다.

우즈베키스탄도 최근에 석유·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를 통해 부하라 정유공장이 건설되었고, 페르가나 정유공장과 알타-아릭스크 정유공장이 현대화되었으며, 슈르탄스크 석유화학 공장도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채광산업, 식료품산업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따른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 투자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표 3-8.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간 인수합병(M&A) 매도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 달러)

	매도 건수					매도 금액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비중(%)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비중(%)
카자흐스탄	6	10	8	24	49.0	428	1,526	116	2,070	70.1
우즈베키스탄	5	1	8	14	28.6	199	-	372	571	19.3
키르기스스탄	3	2	3	8	16.3	3	150	100	253	8.6
타지키스탄	-	1	-	1	2.0	-	12	-	12	0.4
투르크메니스탄	-	2	-	2	4.1	-	47	-	47	1.6
합계	14	16	19	49	100.0	630	1,735	588	2,953	100.0

자료: UNDP(2007).

타지키스탄에서 외국인 투자는 주로 타지키스탄 경제의 주력산업인 수력 및 운송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상투진스크 수력발전소-2, 안좁스크 터널 건설 프로젝트에는 이란 자본이 참여하고 있으며, 로군스크 수력발전소 건설에는 러시아의 ‘통일전력(UES)’과 미국의 투자자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타지키스탄의 최대 산업인 알루미늄 부문에도 외국인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Hydro Aluminium사와 타지키스탄 최대 알루미늄 기업인 Talco 사이에 상호간의 제품공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양측이 조인한 합의문에 따르면, 향후 4년 동안 Talco가 Hydro Aluminium사에 매년 1차 알루미늄을 12만 톤에서 20만 톤까지 공급하고, Hydro Aluminium사는 Talco에 15만 톤의 인조 산화 알루미늄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Hydro Aluminium사는 공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Talco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도 석유·가스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8년 7월 엑손모빌과 모뉴먼트 오일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서부지역에 있는 가라쉬줄루크 개발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석유기업 Turkmenneft와 함께 2개의 생산물분배협정(PSA)을 체결하였다. 또한 UAE의 Dragon Oil은 1999년에서 2007년 6월까지 7억 6,000만 달러를, 말레이시아의 Petronas도 2000년에서 2006년까지 3억 8,000만 달러를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부문에 투자하였다.

3. 역내외 경제협력

가. 지역경제협력

1) 지역경제협력의 긍정적 조건

구조론이 붕괴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경제·금융·생산 및 인적

자원 잠재력 등 모든 부분에서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개별 국들은 당면한 일련의 현실적인 경제 및 지정학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역내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DDA 중심의 WTO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통합체 창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새로운 경제통합의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지역경제협력체를 통해 국가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통합적 상호협력력을 심화하고, 공동의 상품·서비스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단일시장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조건들로 인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⁴⁸⁾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둘째, 역사·언어·문화·전통 및 멘탈리티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 민족간 상호 화합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역내에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물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항공·철도·도로 교통망과 통신수단, 통합된 전력 및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운송시스템, 막대한 수자원의 공동 이용, 공동의 정보공간 등 한때 하나로 통합된 인프라가 존재하고 있다. 다섯째, 상호협력 및 공동투자에 기반 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동 생산 및 수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섯째, 높은 숙련도와 교육수준을 갖춘 풍부한 노동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역내 테러리즘, 정치 및 종교적 극단주의, 조직범죄 및 기타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산업협력 수준, 풍부한 자원기지, 공동의 운송 및 에너지 망 등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8) Кузьмина Е. М.(2007), p. 73 참고.

2) 지역경제협력체 현황

지난 15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진정한 지역통합체를 설립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 시초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포함하여, 발트 3국을 제외한 모든 구소련 국가들이 참여하여 구성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다. CIS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이 초기에 자체적 경제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유산을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되었다. 1994년 CIS 회원국들은 역내에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구소련 해체 이후 시간이 점차 흐름에 따라 국가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흐지부지 되었다. 또한 현재는 CIS라는 조직 자체도 단지 구소련 국가들을 총칭하는 개념 이외에, 정치·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공동체로의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다.

1992년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은 1985년 이란, 파키스탄, 터키 등 이슬람문화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창설된 ‘경제협력기구(ECO: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2003년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터키와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타지키스탄이 ECO 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ECO 무역협정은 효력을 발생한 직후부터 8년 내에 전체 교역품목의 80% 이상의 관세율을 최대 15%까지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발효조차 되지 않고 있다.

1994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EU 통합을 모델로 하는 ‘중앙아시아경제연합(Central Asian Economic Union)’을 창설하였고, 1998년에 타지키스탄이 가입하면서 ‘중앙아시아경제공동체(CAEC: 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로 이름이 바뀌었다. CAEC 회원국들을 자유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 등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 협정, 수자원의 공동 이용, 이민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 자유로운 노동력 이전과 관련된 경제적, 법적 조건 창설 프로그램 등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위의 합의된 사항들은 일반적이고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당 부

분은 참여국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01년 12월 CAEC은 정치적 대화의 진전 및 다변화, 지역경제통합 형식과 메커니즘의 개선, 단일 안보 공간 문제에 관한 상호협력의 심화, 지역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공동조치 개발, 정치·통상·과학기술·문화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협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로 전환되었다. 2004년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열린 CACO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CACO에 가입하였으며, 비회원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은 CACO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공동시장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러시아의 가입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및 지정학적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보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5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벨로루시 사이에 체결된 관세동맹에 가입하였고,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도 각각 1996년과 1999년에 관세동맹에 뒤따라 가입하였다. 이렇게 5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은 2000년 2월 공동대외관세체제(CETS: Common External Tariff Schedule)에 서명하였으며, 발효 후 5년 이내에 공동대외관세체제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러시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2000년에, 카자흐스탄은 2001년에 CETS가 발효되었다. 이후 2000년 10월 관세동맹 5개국은 관세구역을 넘어서는 공동경제구역 창설을 목표로 하여 관세동맹을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⁴⁹⁾로 개편하였다. 이후 CACO가 EurAsEC으로 통합되면서 2006년 1월 우즈베키스탄도 EurAsEC 공식 회원국이 되었다. EurAsEC은 가중다수결제에 의한 공동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여, 향후 경제통합 분야에서 CIS를 대체할 경제연합체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관세동맹 5개국이 서명한 CETS도 EurAsEC 차원에서 논의되었지만, 발효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49) 이 조직의 주요 목적은 테러리즘 및 마약밀매에 공동 대응을 통한 국가안정과 카스피해 주변 및 우즈베키스탄 우스트르트 고원의 원유·가스 공동 개발, 아무다리야강 및 시르다르야강의 수자원 공동 사용, 유류전력 공동사용 등과 같은 공동 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관세동맹을 거쳐 궁극적으로 단일 경제공간을 창설하는 데 있다.

있다. 특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개별적으로 WTO 가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했던 CETS를 구축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3년 9월 EurAsEC 주축국들인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초국가적 기구 설립, 자유무역지대를 거쳐 궁극적인 EU식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단일경제권(SES: Single Economic Space)’을 창설하는데 합의하고, EuraAsEC 틀 내에서 SES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우크라이나에 친서구적인 유셴코 대통령이 취임하고, 러시아와 다양한 갈등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SES 창설은 더디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해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경제협력을 위해 참여 또는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체는 크게 CIS, ECO, EurAsEC, SES이다. 이미 지역경제협력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CIS를 제외하더라도 3개의 거대한 경제협력체가 존재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다자간 경제협력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도 다수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은 1995년에 키르기스스탄, 1997년에 우즈베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역내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이외에도, 아르메니아,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대부분의 구소련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도 2000년에 그루지야와 FTA를 체결하였다.

3) 스파게티 볼 효과

이렇듯 다양한 다자간 및 양자간 경제협력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정에 명시한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자유무역이 침해되어 경제적인 비용만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중앙아시아에서 스파게티 볼 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정의 실행 메커니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역내에서 합의된 대부분의 문서들은 일반적인 권고 성격을 띠고 있어 집행력이 저조한 상황이다. 협정에 대한

구속력과 분쟁해결능력이 부족하고, 상호간 이익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다보니, 각 협정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복잡성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실제 경제부문에서 국가간 관심과 이익이 달라서 이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장경제 개혁 수준이 다양하다는 점도 역내 경제협력을 더디게 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 따라서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협정에 대한 구속력과 분쟁해결능력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간 시장경제로의 개혁 수준을 최대한 수렴시키기 위해 각국 대외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향후 전망

그동안 중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다. 두 국가는 대외개방보다는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전략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외경제정책 조율이 어려웠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 8월에 CIS 정식회원국에서 준회원국으로 격하되기도 하였으며, 현재 ECO에만 가입되어 있어 역내 경제협력의 의지가 가장 부족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우즈베키스탄이 EurAsEC에 합류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내 경제협력에 일정한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가입은 공동체의 법적 요구에 일치하도록 우즈베키스탄이 자국의 법률을 수정해야 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자국의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며, 합의된 관세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EurAsEC 통합위원회는 2007년 말까지 관세동맹을 형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EurAsEC과 더불어 새로운 지역협력체 설립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제시한 ‘중앙아시아국

가동맹(CAU: Central Asian Union)’ 창설 구상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발의한 주된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카자흐스탄 기업가들의 막대한 유희자본에 찾을 수 있다. 즉 카자흐스탄은 현재의 과열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며, 자국의 산업 및 금융이 뻗어나갈 수 있는 주요 방향이 바로 인접국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는 3단계에 걸친 CAU 창설 메커니즘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CAU의 창설의 첫 번째 단계(2006~08년)는 CAU의 설립 및 법적 기반 형성과 자유무역체제의 실현이며, 두번째 단계(2009~15년)는 관세동맹 창설과 상품 및 서비스 공동시장의 형성이며, 세 번째 단계(2015~20년)는 CAU의 단일경제공간을 설립하는 것이다.⁵⁰⁾ CAU를 창설하자는 카자흐스탄의 발의는 매우 중요하며, 그것의 실현은 앞으로 중앙아시아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 공동시장의 형성과 역내 국가들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CAU의 형성은 EurAsEC의 활동과 모순되지 않는다.⁵¹⁾ 오히려 이 구상의 실현은 EurAsEC와 포스트 소비에트 전체 공간에서 통합과정의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유럽연합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완전한 공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또한 이전에 설립했던 많은 경제협력체처럼 실행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더욱 가중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 다자간 자유무역협력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세계경제 질서에 한층 더 편입되어 지속가능한

50) *Ibid.*, p. 76.

51) 중앙아시아국가동맹(CAU) 창설 구상에 제시된 지역통합 조치들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들과 유사하다. 다만 CAU 내에서 지역통합 조치들을 실현할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한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카자흐스탄에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EurAsEC에서 보다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역내에서의 경제협력체를 구성·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다자간 자유무역협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자간 자유무역협력의 중심은 세계무역기구(WTO)이다. 2007년 11월 말 현재 WTO에는 전 세계 15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있다.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도 이미 가입을 완료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도 2008년 중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WTO에 가입한 국가는 1998년에 가입한 키르기스스탄만이 유일하며, 나머지 중앙아시아 4개국들은 WTO 가입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국가인 카자흐스탄은 이미 오래 전에 WTO 가입이 자국의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바 있으며, 조만간 WTO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원료-에너지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실질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신흥공업국들이 추구했던 수출지향적 발전모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WTO에 가입하여 국제노동분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발전에서 뒤처지고 있는 타지키스탄은 WTO 가입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최상층 경제 및 정

■ 표 3-9.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WTO 가입추진 현황 ■

	가입원서제출	가입작업반회의	가입 여부
카자흐스탄	1996년 1월	8회	×
우즈베키스탄	1994년 12월	3회	×
키르기스스탄	1993년		○(1998년 12월)
타지키스탄	2001년 5월	3회	×
투르크메니스탄	×	×	×

자료: WTO(http://www.wto.org/english/thewto_e/acc_e/acc_e.htm).

치 엘리트들의 권력독점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WTO 가입에 대해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⁵²⁾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WTO에 가입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WTO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과 무역정책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국가 전체적인 정책적·제도적 개혁을 이룰 수가 있다.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WTO에 가입한 주요국들과 양자협상을 마쳐야 하며, 모든 국가들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를 부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쟁해결 메커니즘과 정책조정능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개선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 현재 일부 품목과 특정 대상국으로 제한되어 있는 중앙아시아의 대외 무역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WTO 가입은 역내 경제협력과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도 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이 1998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일찍 WTO에 가입했으나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아시아 이웃국가들이 WTO에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키르기스스탄은 WTO에 부합하도록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었지만, 정착 자국의 수출상품은 주변국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에 막혀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 역내의 다양한 경제협력체를 통해 시도했으나, 실패로 귀결되었던 국가간 조율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역내 경제협력의 수준도 한층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국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시장개방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키르기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의 경제발전도 지금보다는 훨씬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중에는 중앙아시아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

52)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No. 165, 13 Августа 2007, p. 7.

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가 WTO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소련 해체 이후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에게 WTO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역내 경제협력체의 경제협력 수준은 결국 러시아의 무역투자정책을 기준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 에너지협력

최근 국제사회는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외 국가들 중에서 특별한 입지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생산지역과 직접적인 지리적 근접성을 가진 나라이며,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국이면서 에너지 수입에 높은 수요를 지니고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과 정치·경제적으로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면서,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양자를 비롯한 다자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에너지원 국내보유량에 비해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에너지 공급 불균형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원유수입국으로, 2015년에서 2020년경에 중국의 석유수입은 2억 5,000만에서 3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석유수요의 60%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수출이 용이하고, 막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국을 새로운 에너지자원 수출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 양자 혹은 다자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정부간 문서에서 가장 우선적인 분야는 바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조체제 구축이었다. 체제전환과 에너지개발 초기에 러시아

를 밀어내고 서구 자본과 손을 잡았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시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와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역내 및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만으로도 충분히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자원을 개발할 초기에는 러시아도 경제침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서구의 자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막대한 오일 머니의 유입으로 인해 자국 스스로 자원을 개발할 자본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미국, EU 등 서구 선진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수출로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간 CIS 역내 협력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만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수출국들과 러시아는 매장된 자원은 각 국별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 개발된 자원을 수출하는 석유·가스관을 비롯한 육상운송로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앙아시아 역내 및 러시아와 석유·가스관의 공동 건설 및 이용, 에너지자원 수출 카르텔 협정 체결 및 조율된 가격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자원개발 및 수출의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세계 에너지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

둘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비수출국들은 내수용 석유·가스의 심각한 공급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롯한 이웃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 증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셋째, 천연가스 생산과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혹은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연가스의 수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체적으로 세계시장 진출이 어려운 투르크메니스탄의 지리적 특성과 주요 가스관이 러시아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에너지협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협력 성과는 잠재력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에너지 부문에서의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 대한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의 중요성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상하이 협력기구(SCO) 틀 내에서 채택된 수많은 국가간 문서에 지적되어 있다. 예컨대 SCO 회원국들의 다자간 통상협력 프로그램,⁵³⁾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 조약,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국가들의 에너지시스템 상호협력 협정, 공동의 전력시장 및 석유·가스 공동시장 형성 원칙에 관한 협정 등이 그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가스 및 전력 부문에서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협력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협력 성과들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송유관 및 가스관의 신설 및 증설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작해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영토를 통과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유럽 국가들에 공급하는 ‘중앙아시아-중앙 가스관’의 공동 개발이 대표적인 협력 사업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이 가스관의 수송능력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2007년 5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에서는 3개국은 카스피해 연안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각국 전문가들이 기술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카자흐스탄의 국영 석유가스회사인 카즈무나이가즈(Kazmunaigaz)는 외국 회사들과 공동으로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⁵⁴⁾

53) 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가능성들이 검토될 것이다. 즉 연료-에너지 집합체 부문에서의 협력, 현행 에너지 시설 및 에너지망의 효율성 제고, 새로운 탄화수소 원료산지의 개발 및 가공 부문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의 확대, SCO 회원국들의 광물원료 기지의 발전을 지향하는 지질학적 연구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강화 등이다(Программа многостороннег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государств-членов Шанха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утверждённая от 24 сентября 2003 года).

54) 이는 2001년 11월 1일 당사국들이 체결한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송유관 프로젝트에 관한 공

석유·가스 부문 외에 전력 부문에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투자협력이 발전하고 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전력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는 수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기 위한 3국간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공식 방문 중에 타지키스탄 자라브산 강에 있는 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간 송전선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최근 자국의 남부지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지키스탄 북부 지역에서 자국의 쉘켄트까지 연결하는 송전선 건설사업과 관련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전력 부문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전력과 관련된 역내 국가들의 요금 및 관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 부문에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남카자흐스탄 주에 있는 ‘유즈노예 자레치노예’ 산지의 천연 우라늄 채굴을 위해 설립된 합작회사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동연구 협정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6년 9월 20일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송유관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이란 정유공장에서의 석유 가공, 해상수송, 카자흐스탄과 이란간의 스왑 거래 등에 관한 사전적인 연구 결과가 검토된 바 있다.

제4장

주요국의 대중양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박상남 · 강명구



주요국의 대(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박 상 남 · 강 명 구

1. 미국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미국이 냉전체제 붕괴 이후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유라시아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아시아는 중요한 지정학적 변수로 부상하였다. 유라시아 대륙의 영향력 유지와 중국 포위, 러시아와 이란을 견제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안보벨트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군사, 경제적 거점을 확보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중동의 불안정성과 중국 및 인도의 산업화로 인한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경쟁에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안 지역으로 중앙아시아는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수송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정책 목표는 지정학적 위치, 즉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와 카스

피해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이다. 이는 미국의 중앙아시아 외교정책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통제 또는 위협할 수 있는 지정학적 거점 확보와 경제적 이익추구라는 전략적·실용주의적 토대 위에서 설정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군사·경제적 개입과 통제를 통해 유일강대국에 걸 맞는 입지를 유라시아 대륙에 구축하고 있다.⁵⁵⁾ 미국은 2001년 말 탈레반에 대한 군사행동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적 통제시스템과 과도 정부를 수립했고, 중앙아시아에서 미군 주둔을 장기화 하고 있다. 이는 지정·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군사·정치적 영향력을 확고히 함으로서 구소련 영역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마저 러시아를 퇴장시키고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패권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⁵⁶⁾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유지하려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유라시아 전략의 거점 중 하나인 파키스탄에 내부적 정치 불안이 발생하거나,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둘째, 이란의 핵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셋째, 카스피해 석유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과 통제권을 확보하고, 넷째, 중국의 영토,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기지가 있는 신장지역을 겨냥함과 동시에 중국의 팽창정책을 견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이 내세우는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위한 미군 주둔이라는 표면적인 명분과는 달리, 여기에는 자국중심의 세계전략과 이익 실현이라는 냉정한 현실주의적 실리 추구가 바탕에 깔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역설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중국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 Ariel Cohen(2002), pp. 35-40.

56) 박상남(2004), pp. 38~39.

미국은 여전히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외 세력이며,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국제적 역학관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1991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련에서 독립한 후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높

표 4-1. 미국의 대중중앙아시아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2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카자흐스탄	수 출	14.9	179.6	124.2	160.3	604.8	168.2	320.4	538.3	646.2
	수 입	20.6	229.2	429.2	352	334.6	393.5	538.6	1,101.1	960.6
	무역수지	-5.7	-49.6	-304.8	-191.7	270.2	-224.2	-218.2	-526.9	314.5
	무역액	35.5	408.8	553.4	512.3	939.4	561.7	859.0	1,639.4	1606.8
우즈베키스탄	수 출	50.7	339.1	157.5	144.8	138.5	256.1	229.8	73.8	53.9
	수 입	0.8	25.4	41.2	53.6	77.1	83.6	88.0	95.6	151.5
	무역수지	49.9	313.7	116.3	91.2	61.4	172.5	141.8	-21.8	-97.6
	무역액	51.5	364.5	198.7	198.4	215.6	339.7	317.8	169.4	205.4
키르기스스탄	수 출	1.9	22.8	23.0	27.6	31.1	39.1	29.4	31.1	71.3
	수 입	0.7	0.5	2.0	3.4	4.8	11.0	10.8	4.6	4.2
	무역수지	1.2	22.3	21.0	24.2	26.3	28.1	18.6	26.5	67.0
	무역액	2.6	23.3	25.0	31	35.9	50.1	40.2	35.7	75.5
투르크메니스탄	수 출	35.1	18.3	84.3	248.5	47.1	34.2	294.6	237.1	112.8
	수 입	1.0	8.4	28.0	456	59.7	76.4	80.7	135.3	76.2
	무역수지	34.1	9.9	56.3	202.9	-12.1	-42.2	213.9	101.8	36.6
	무역액	36.1	26.7	112.3	704.5	106.8	110.6	375.3	372.4	189.0
타지키스탄	수 출	8.8	13.8	12.1	28.6	33.1	50	55.7	28.8	43.1
	수 입	1.6	22.7	9.0	5.3	1.2	7.3	7.3	241.0	60.7
	무역수지	7.2	-8.9	3.1	23.3	31.9	42.7	48.4	-212.3	-17.6
	무역액	10.4	36.5	21.1	33.9	34.3	57.3	63.0	269.8	103.8

자료: <http://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country/index.html>.

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의 주된 요인은 중앙아시아의 막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 부존량과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제재하기 위한 군사기지 설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점이었다.

미국의 대중중앙아시아 무역은 1992년에 시작된 이래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표 4-2. 미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국별 투자 현황

국 가	내 용
카 자 흐 스 탄	① 투자분야 -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송유관 공사 등 에너지 관련 산업 - 유용 광물자원 및 기타 산업부문 ② 현황 - 374개 기업과 91개 지상사가 등록(2006년) ⁵⁷⁾ - 셰브론 텍사코, 엑슨 모빌, 필립스 페트롤레움 등 진출 - 바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BTC) 연결공사에 참여 - 1993년에서 2005년까지 11억 3,150만 달러, 2006년 16억 9,450만 달러 투자
우 즈 베 키 스 탄	① 투자분야 - 우라늄, 금 등 광물자원 ② 현황 - RIK International사는 4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누라타우 산악지역의 금광개발을 위한 이동식 금 처리 설비를 활용할 회사를 설립 - 2006년 현재 미국의 United International Group이 서부 우즈베키스탄의 금 매장지에 대한 1차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 - 미국·우즈베키스탄 합작회사인 코스콤이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무선통신 현대화
키르 기즈 스탄	① 투자분야 -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분야와 공공부문 ② 현황 - 2006년 전년 대비 45.7% 감소한 636만 달러 투자
투 르 크 메 니 스 탄	① 투자분야 - 에너지, 통신, 생활용품 부문 ② 현황 ⁵⁸⁾ - 모빌 오일(Mobil Oil)이 부룬(Burun) 유전에 투자 - Shell 유전탐사에 투자 - American Communication Consultant가 투르크메니스탄 비누공장에 8억 1천만 달러투자 - US telecommunication이 투르크메니스탄의 10개년 통신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컨설팅 - MIC가 인터넷 사업과 미국-투르크메니스탄 직통 전화구축사업에 진출

자료: <http://www.stat.kz/2007.05>. 검색, <http://www.nationalbank.kg/2007.05>.

57) <http://www.cainfo.ru/> 2006.08.28.

58) <http://www.cainfo.ru/> 2006.08.28.

증가하였으나,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1998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제재하기 시작한 이후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은 점차적으로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수출품은 국가건설과 소비자들에 필요한 기계 및 설비 · 화학 · 농산품 · 항공기 · 식료품 등이며, 수입품은 광물 · 연료 · 화학 · 섬유 · 금속 · 면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미국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2001년 6월 러시아와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설립된 군사 및 안보를 위해서이며, 경제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등 주변국 및 지역내 블록화에 대한 위기감과 중동의 걸프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미국의 에너지안보 및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정책적 투자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대외원조 정책과 관련된다. 이러한 미국의 원조정책은 기존 주요 수혜국이었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줄이고, 대신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⁵⁹⁾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러시아와 경제협력기구(ECO) 국가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2004년 6월 1일 미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과 무역투자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식재산권 · 노동 · 환경 그리고 무역과 투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와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게 될 ‘미 · 중앙아시아 무역과 투자에 관한 이사회’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미국의 영향력을 제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59) 아제르바이잔 I/A Day, Az, 2007.02.19.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미국의 중앙아시아 무역은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1992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1년 9·11사태 이후 미국의 대중 중앙아시아 무역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앙아시아 무역액의 양적 증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건설과 에너지자원 개발, 사회간접자본 확대 및 개보수, 소비재 산업의 낙후성에 따른 기계 및 설비, 식료품 등의 소비재 수입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수출정책과 수입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정책의 특징은 우선 비교우위에 있는 소비재 수출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즉 중국의 소비재와 차별화시켜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각종 음식료품 수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기계 및 설비 등 자본재 수출의 확대도 또 다른 수출정책의 특징이다. 이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국제기구⁶⁰⁾들의 지원에 의한 사회적 인프라구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재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정책의 특징은 우선 석유 및 가스의 수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1위의 에너지자원 소비국인 미국의 경우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이다. 이 외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은 전략적 광물자원인 우라늄의 최대 산지이며, 금·구리 등 유용한 유색 및 흑색광물의 세계적인 매장지이기 때문에 유용 광물자원 수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미국의 대중중앙아시아의 통상은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미국은 기존의 통상정책을 유지하면서, 소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출 증대와 광물 및 연료, 화학제품, 금속, 섬유 및 면화 등에 대한 수입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

60)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아의 에너지 보유국들은 외국인투자 증대로 국민소득 상승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건설 및 개보수, 수입대체 산업육성에 따른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라크사태 및 이란의 핵 무기 문제 등의 해결로 중동지역에 평화가 찾아와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주요국과 정치·경제적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아시아에 통상정책을 구사하면서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중앙아시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각국과 FTA 체결은 WTO와 더불어 미국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국에 비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한층 더 높여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앙아시아 각국의 FTA 체결은 중앙아시아 소비자들의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는 물론 유용광물, 면화 등의 수입을 원활하게 해 줄 것이다.

현대의 모든 국가들이 그렇듯이, 미국 역시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에너지안보 유지에 있다. 이에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상정책 주안점은 석유·가스 개발 및 생산에 투자하여 에너지자원을 개발·수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자원에 대하여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간섭 없이 천연가스를 원활하게 수입하기를 원하는 미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천연가스 수출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의 핵심은 석유·가스 및 유용한 광물자원의 개발 및 수입하고 자본재를 우선적으로 수출하면서, 국제적으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탄산음료, 케첩 등의 음식료품을 필두로 점차 다른 소비재로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다.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출은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성과에서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안보, 정치적, 경제적 다양한 지역협의체가 이미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등 지역협의체가 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양자간 및 다자대화채널을 구축하였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원조성 투자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이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매년 막대한 원조를 통하여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 부정적이던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성과를 얻고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에 진출이다. 미국은 각국의 견제 속에서도 중앙아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및 파이프라인 건설 분야로 진입하였다. 특히 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투자의 안전성을 보호받는 동시에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도 현재의 경제상황에 부합되는 중앙아시아 진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외원조를 통한 국가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하고, 중앙아시아 각국 및 다양한 산업부문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일본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일본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원조외교를 중심으로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 왔다. 냉전 해체와 함께 진행된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지정·지경

학적 중요성에 주목한 일본은⁶¹⁾ 경제·외교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진출을 가속화해 왔다. 이러한 일본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외교 전략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외교적 차원에서 일본의 중앙아시아 접근은 초기 양자관계 중심에서 점차 ‘다자주의(Multilateralism)’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본의 ‘다자주의’는 1997년 하시모토 총리에 의해 제창된 ‘유라시아 외교(Eurasian Diplomacy)’⁶²⁾와 2004년에 구축된 ‘중앙아시아 + 일본 대화(Central Asia plus Japan Dialogue, CAJ)’⁶³⁾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유라시아 외교’와 ‘중앙아시아 + 일본 대화’라는 개념은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다자주의에 입각한 지정학적 접근을 보여주는 데, 이는 일본 외교사에 있어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정책은 모두 1990년 이후부터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동남아에서 추구했던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원조외교⁶⁴⁾를 중심으로 진행된 경제지원 정책이다. 이는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반마련은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강화, 친선도모, 리더십 구축,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유지 등을 위한 일본의 역할과 영향력 부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특히 21세기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로 부상한 에너지 수급문제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⁶⁵⁾ 이에 따라 일본은 에너지 수입선 다각화를 위해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연구와 투자에 주력해 왔다.

이처럼 일본은 일찍부터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상황에 주목하였고, 양자관계를 통해 다져온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적 접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가

61) 「中央アジア+日本」對話・外相會合 / 共同聲明－新時代を迎える日本・中央アジア關係－(別添), 日本外務省, 2004.

62) “Address by Prime Minister Ryutaro Hashimoto to the Japan Association of Corporate Executives,” 24 July 1997(<http://www.kantei.go.jp/foreign/0731douyukai.html>).

63) Takeshi Yuasa, (2006) 참고.

64) 박흥영, (2005), pp. 283~284.

65) 中央アジア・シンポジウム「中央アジアにおける地域協力の現?と未來」, 東京: 日本外務省, 2004.

와구치 외상은 2004년 8월,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에서 원조외교를 앞세운 그 동안의 양자관계에서 벗어나 다자적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천명하였다.⁶⁶⁾ 가와구치 외상은 다자적 관계의 구체적인 틀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일본 대화’를 제창했다. 이 대화는 정치, 경제, 문화부문의 협력을 포괄하는 폭넓은 대화를 목표로 다양성의 존중, 경쟁과 협조, 열린 협력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설정했다. 동시에 일본은 민주화와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3년간 1,000명 이상의 연수자를 초청하여 교육하겠다고 약속했다.⁶⁷⁾ 이렇듯 일본은 다양한 채널에서 중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후원자 역할을 자임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 5월 도쿄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 일본 대화’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경 경비 강화에 필요한 순찰차와 감시 장비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일본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자신의 존재를 확고히 함은 물론, 안보영역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와구치 일본 외무장관은 2004년 중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일본은 중앙아시아에 어떠한 영토적 · 분쟁적 · 정치적 갈등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지역이 전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중요지대라고 언급하였다.⁶⁸⁾ 그러나 가와구치 외상의 이러한 순수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냉전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질서형성에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의 경쟁을 일본이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 일본 대화’는 중국 · 러시아의 견제를 우회하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유라시아 대륙 중앙에 각인시킨 일본외교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무

66)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policy/oda/note/grant-6r.html>.

67) 이재영, 박상남 편(2007) 참고.

68) 일본 외무성(<http://www.mofa.go.jp/region/europe/uzbekistan/speech0408.html>).

엇보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력경쟁에서 신참국인 일본이 미국·중국·러시아와 함께 경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구소연방 해체와 더불어 중앙아시아의 지정·지경학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일본은 중앙아시아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무역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표 4-3]에 제시된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무역

표 4-3.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카자흐스탄	무역액	160.17	177.83	189.33	253.33	431.95	511.09
	수 출	68.48	73.28	90.65	99.49	185.81	177.51
	수 입	91.69	104.55	98.68	153.84	246.14	333.58
	무역수지	-23.21	-177.83	-8.03	-54.35	-60.33	-156.07
우즈베키스탄	무역액	103.27	70.47	90.37	136.15	137.84	159.63
	수 출	24.72	17.69	17.04	43.37	51.64	35.29
	수 입	78.55	52.78	73.33	92.78	86.20	124.34
	무역수지	-103.27	-35.09	-56.29	-49.41	-34.56	-89.05
키르기스스탄	무역액	5.87	1.67	11.49	22.37	4.24	2.64
	수 출	4.51	0.97	1.31	5.62	3.74	2.29
	수 입	1.36	0.70	10.18	16.75	0.50	0.35
	무역수지	3.15	0.27	-8.87	-11.13	3.24	1.94
타지키스탄	무역액	1.97	0.61	2.99	7.87	8.98	5.79
	수 출	1.43	0.48	1.07	0.43	0.45	1.38
	수 입	0.54	0.13	1.92	7.44	8.53	4.41
	무역수지	0.89	0.35	-0.85	-7.01	-8.08	-3.03
투르크메니스탄	무역액	55.68	33.06	6.16	28.22	51.30	14.63
	수 출	55.96	32.64	2.29	25.81	51.10	14.62
	수 입	0.72	0.42	0.87	2.41	0.20	0.01
	무역수지	55.24	32.22	1.42	23.4	50.9	14.61
대중앙아시아 연도별 무역	총 계	326.96	283.64	300.34	447.94	634.31	693.78
	증가율	-	-13.2	5.9	49.1	41.6	9.4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日本統計年鑑」(2007).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3억 2,696만 달러였던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 간의 무역액은 연평균 약 18.6%씩 증가해 2005년 6억 9,378만 달러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3년, 2004년은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증대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소비수요가 급증하여 교역량이 각각 49.1%, 41.6% 증가하였다.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국별 교역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카자흐스탄 49.0%, 우즈베키스탄 31.6%, 투르크메니스탄 17%, 키르기스스탄 1.8%, 그리고 타지키스탄이 0.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이 약 73.7%, 우즈베키스탄이 23.0%를 차지하였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기업보다 먼저 정부 및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이들의 지원 하에 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투자진출 정책은 정부개발원조(ODA)와 민간기업의 투자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ODA에 의한 중앙아시아 진출은 주요국의 견제를 피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민간 기업진출의 발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ODA 제공의 목표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증대시키고, 친선강화, 리더쉽 강화,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유지 등을 위한 역할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 확장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⁶⁹⁾ 일본이 중앙아시아에 제공한 ODA를 보면, 1997년 하시모토총리가 「신유라시아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전체 ODA의 90%가 석유 비생산국(키르그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환경문제 해결, 인권 증진 등 비(非)석유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일본은 ODA의 80%를 에너지 비생산국에서 에너지 자원부국(카자흐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의 석유 · 천연가스 생산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69) 이재영 · 박상남 편(2007), p.169.

일본은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복원,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 전수와 지원의 결과 일정한 입지와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원조는 중앙아시아에서 일본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표 4-4. 일본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국 가	투 자 내 용
카 자 흐 스 탄	- 1998년 9월 일본의 Inpex사가 Offshore Kazakhstan International Oil Consortium(OKIOC)에 참가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7.15%의 지분을 확보 - 2001년에는 Marubeni Trade and Investment Corporation과 Nikki Engineering Company가 Atyrau 정유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Kazakhoil과 약 2,5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 - 일본국영석유회사(JNOC)는 카즈무나이가스와 북 카스피해 해양광구 개발을 위해 2억 달러 투자를 그리고 셰브론 텍사코로부터 탠기즈 유전의 석유 1백만 배럴을 구입하였으며, 아지프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북 카스피해 석유개발에 대한 8.3%의 지분을 취득 - 2006년 1월 수미토모와 케프코가 카자흐스탄의 카자토프롬사와 독점적으로 서-문쿠두크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미토모(sumitomo)와 케프코(KEPKO)가 1억 달러 투자계획. 투자 후 서-문쿠두크 우라늄 광산은 우라늄 생산을 2007년부터 시작, 2010년부터는 연간 1천 톤을 생산 - 아스타나의 공항시설 현대화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경제연합이 1억 5천만 달러를 30년간 2.2%의 이자율을 적용(10년 유예기간)하여 지급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특혜제공 - 이외에 철도 생산시설, 이르티시강 다리건설, 아스타나 및 농촌 상수도 건설 등에 차관제공
우즈 베키 스탄	-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약 2억 4,850만 달러 상당의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총 5억 9,390만 달러 투자 -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하여 2004년 9월까지 철도, 교량, 공항, 도로, 하수 정비 사업 등 5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25~30년의 중장기 차관으로 총 4억 3,000만 달러 지원
투르크 메니스탄	- 1998년 9월, 아슈하바트의 기관차 터미널 현대화를 위해 4천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⁷⁰⁾ 11월에는 일본 국제협력재단이 운송수단개선을 위해 20년 상환조건으로 3,800만 달러 추가지원⁷¹⁾ - 이토추가 아슈하바드 기관차 차량기지 재건축에 7,400만 달러 투자, 철도 운영시스템의 자동화 등 철도의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 - 치에다사가 원유정제시설 건설, JGC · 이토추 · 니슈오-이와이(Nishio-Iwai) 컨소시엄이 폴리프로필렌 생산 설비건설에 2천만 달러 계약이 체결되어 연간 9만톤 가량의 폴리프로필렌 생산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http://www.nationalbank.kz>)[2007.05]; Hickok, op. cit., 이재영 · 박상남 편(2007); 신범식 편(2006).

70) Moscow Nezavisimaya Gazeta, 15 September 1998, "Ashgabat is making use of its transit possibilities".

71) Hickok, op. cit.

아니라 민간기업의 진출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특히 2004년 이후 일본은 ‘중앙아시아 + 일본’이라는 원칙하에 신중을 기하면서 접근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표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에너지자원 부존국가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는 현재 중동에 편중되어 있는 에너지자원 수입선을 중앙아시아에 진출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에너지 쇼크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진출이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부문 투자는 ODA 전략의 도움으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진출하고 있다.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전략은 ODA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바탕으로 한 무역 및 투자의 확대이다. 일본은 중앙아시아가 구소련방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이룩한 이후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하면서,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호감을 갖도록 유인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일본은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의 나머지 4개국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통상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의 대카자흐스탄 통상정책의 핵심은 중고가 소비재 및 자본재의 수출확대에 있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국민소득이 증대하여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와 정부투자에 의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자본재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공격적인 수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나머지 4개국에 대해서는 구매력이 떨어지는 소비재보다 자본재 우선 수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일본의 소비재는 저가인 중국 및 터키의 소비재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대중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석유·천연가스, 그리고 전력에너지원인 우라늄을 안정적 확보에 있다. 이는 일본이 군사·안보적으로 불안한 중동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개발·수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아시아는 일본의 신흥시장이며 지속적 수입수요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제품수명주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시장이며, 천연지와 다른 없는 에너지자원의 보고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미래 통상정책은 기존 정책의 기초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진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의 중아시아 진출 성과에서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장려를 위한 일본 정부의 과감한 차관 제공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이다. 즉 일본 정부는 전략적인 중아시아 진출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민간에 제공하였다. 둘째, 일본 정부는 중아시아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ODA 제공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이를 통하여 중아시아 국민들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민간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서구기업들과 차별화된 일본 민간기업 진출이 용이하게 되었다. 일본 기업은 “low-risk expectation for steady returns”를 택함으로써 꾸준한 이윤추구와 낮은 리스크 전략을 채택했다.⁷²⁾ 넷째,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가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농업개발, 기술협력, 무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이윤만을 추구하는 서구 기업들과 차별화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다섯째, 중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에 머물지 않고 지역 맹주인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한 독자적인 다자대화채널 구축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성공적인 중아시아 진출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72) Hickok, op. cit., 이재영·박상남 편저(2007)에서 재인용.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일본이 중앙아시아에 진출 전략들 중에서 실현가능한 것들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중국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중앙아시아는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중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지역 중에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첫째 과제는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을 위협하는 신장·위구르지역의 분리 독립운동⁷³⁾을 차단하고 서부영토를 보전함으로써 단일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는 지난 20년 동안의 부단한 경제개발의 성과는 중국 동부해안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으나, 상대적으로 발전에 소외된 내륙과 서부지역 주민들의 괴리감과 불만은 중앙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려는 욕구로까지 표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안을 접한 동부와는 달리 내륙지역인 서부지역의 개발을 통한 개발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화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으로 대두된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문제다.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앙에 위치함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넷째는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 에너지 부족 사태는 생산재 공급처로서 중앙아시아의 가치를 재고시키고 있다.⁷⁴⁾ 개혁

73) 이슬람 원리주의와 연결된 분리주의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 내에는 5대 민족중의 하나이며 회족(回族)이라고 불리는 약 4,500만 명의 무슬림(穆斯林)들이 주로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집중돼 거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족, 만주족, 몽고족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적지 않은 회교도가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 내 회족 사회에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득세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장·위구르 분리 독립운동이 격화된다는 가정은 대만, 티벳 문제와 함께 중국붕괴를 가져오는 내부적 요인이 될 것이다. 박상남(2003), 17~22쪽.

· 개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증가는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 안보보장 문제를 중국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하였다.

전통적으로 중양아시아에서 소극적 관찰자 입장에 머물던 중국이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경제성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강대국화 정책⁷⁵⁾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중양아시아가 중국의 국가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말해 준다.

경제적 수준에서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을 중화경제권으로 흡수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중양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성장하는 경제력에 걸맞게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중양아시아 전략과 정책 목표는 러시아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실리를 추구하는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중국은 자국 상품의 높은 국제경쟁력과 수출대상국의 다변화로 2007년 9월 현재 세계 4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양아시아에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하면서 자국이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무역은 신(新)실크로드 건설과 북경에서 라샤간 철도 및 도로 등 신(新)인프라

74) 2004년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2억 8천만 톤에 달하고 이중 약 40%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중국은 1997년 당면한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9.11 이후 중양아시아와 중동에서 취한 일련의 외교·군사적 대응을 보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국가안보이익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주재우(2004)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동북아 협력” 『국제정치논총』 44집, 215쪽.

75) 한석희(2004) 참고.

구축⁷⁶⁾으로 동부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값싼 소비재를 활용한 국경무역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표 4-5. 중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연도별 무역액

(단위: 천 달러)

연 도	구 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총 계
1998	교역액	630,667	82,436	191,241	18,441	12,475	935,260
	수 출	199,818	49,984	165,549	10,254	10,252	435,857
	수 입	430,848	32,362	25,692	8,187	2,223	499,312
	무역수지	-231,030	17,622	139,857	2,067	8,029	-
2000	교역액	1,556,764	51,465	177,611	17,170	16,157	1,819,167
	수 출	598,600	39,432	110,174	6,793	12,102	767,101
	수 입	958,164	12,033	67,437	10,377	4,057	1,052,068
	무역수지	-359,564	27,399	42,737	-3,584	8,045	-
2002	교역액	1,955,742	131,613	201,874	12,387	87,515	2,389,131
	수 출	601,097	104,210	146,156	6,501	86,780	944,744
	수 입	1,354,645	27,403	55,718	5,886	735	1,444,387
	무역수지	-753,548	76,807	90,438	615	86,045	-
2004	교역액	4,493,305	575,175	602,208	68,860	98,681	5,838,229
	수 출	2,212,493	172,470	492,757	53,490	84,796	3,016,006
	수 입	2,280,812	402,705	109,451	15,370	13,885	2,822,223
	무역수지	-68,319	-230,235	383,306	38,120	70,911	-
2005	교역액	6,801,149	681,238	970,481	158,061	109,431	8,720,360
	수 출	3,898,883	230,221	865,923	143,865	90,441	5,229,333
	수 입	2,902,266	451,017	104,558	14,196	18,990	3,491,027
	무역수지	996,617	-220,796	761,365	129,669	71,451	-
2006	교역액	8,358,674	971,955	2,225,817	323,704	178,466	12,058,616
	수 출	4,751,530	406,102	2,113,026	305,702	162,453	7,738,813
	수 입	3,607,171	565,853	112,791	18,002	16,013	4,319,830
	무역수지	1,144,359	-159,751	2,000,235	287,700	146,440	-

자료: 『중국해관총서』;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에서 재인용 및 재구성.

76) 신(新)유라시아대륙철도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아라산코우(阿拉山口)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이다. 新유라시아대륙철도는 중국 내 연장이 4,131km에 달하며, 강소, 산둥, 안휘·하남·산서·협서·감숙·영하·청해·신강 등 10개 城區의 주요 중심城市를 통과하며, 북쪽으로는 동북철도망을 경유하여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접목되고, 남쪽으로는 범아시아철도와 연결된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의 교통운송 체계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중국의 중서부국경지대를 발전시키는 개발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량은 1998년 9억 3,526만 달러에서 2006년 120억 5,862만 달러로 9년 만에 약 13배가 증가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중

표 4-6. 중국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국 가	투 자 내 용
카 자 흐 스 탄	- 카자흐스탄 석유생산 3위인 캐나다계 카자흐스탄의 페트로카자흐스탄을 총 41억 8천만 달러에 인수 - 41억 달러를 투자하여 예상 매장량 10억 배럴의 악토베무나이가즈 지분 인수 - 총 8억 달러의 투자하여 North Buzachi 유전에 대한 지분 100% 인수 -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 2008년부터 연간 8억m³의 천연가스가 중국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 - 2006년 카자흐스탄에는 40여개의 중국회사와 670여개의 중·카자흐스탄 합작기업이 있음
우 즈 베 키 스 탄	- 안디잔 저수지의 수력발전소-2 건설과 수력발전소에 필요한 각종 기계 및 설비 중국산 장비 설치안, 둘째, 아한가르 저수지의 수력발전소-2 건설과 수력발전소에 필요한 각종 기계 및 설비 중국산 장비 설치안에 대한 차관공여 협정체결: 안디잔 수력발전소-2 건설에 1,003만 달러, 아한가르 수력발전소-2 건설에 590만 달러 - 젤스나랴드(Зеснаряд: 모래·흙을 빨아 올리는 펌프선)와 서부지역 관개수로 정비를 위해 600만 달러, 저수량 660백만m³이며 8개의 펌프시설이 설치된 레작사이스크 저수지를 건설에 250만 달러, 그리고 카스카다린주의 쥬베가탄 칼리비료 공장 건설에 5,800만 달러 투자 - 2006년 우즈베크 중앙은행은 통신 및 농업부문 개발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1,807백만 달러의 차관 도입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의 투자를 유도 - 2007년에는 연료-에너지단지 및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복구를 위하여 중국국영수출입은행과 추가적인 3억 달러의 차관도입과 기간 연장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
투 르 크 메 니 스 탄	-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간 가스관 공사를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파이프라인 공사 중 - 이란·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 가스전 탐사·채굴을 위해 1.2억 달러 규모의 특혜 차관을 공급할 예정 - 석유기술건설회사는 유정 수리 및 굴착사업을 위해 2,50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콤다그 유전 중산프로젝트에도 참여 중 - 2005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과 1억 2,800만 달러 규모의 디젤기관차·열차 및 설비도입 협정을 체결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여객 수송 및 물류의 원활화를 위하여 중국제 철도설비 및 부품을 대부분 공급
타 지 키 스 탄	- 타지키스탄 시노히드로(Sinohydro)사와 타지키스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수력발전소 건설 및 전력 공급과 교통 및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 건설된 지 오래되어 낙후된 두산베-차낙 간 도로(자동차)의 수리 및 복구비 지원, 송전선-500, 송전선-220 “롤라조르-하프론”의 건설, 제라프산(야반)에 150MW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펜저켄트시의 수력발전소와 60km 떨어진 지역에 220kW/h 용량의 송전선 건설을 포함하여 2억 6,000만 달러를 투자
키르 기즈	- 상품교역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2006년 7.3백만 달러 투자

양아시아 국가별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이 67%로 1위를, 키르기스스탄이 18.5%로 2위를 차지하였다. 대카자흐스탄 무역 비중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유는 철도, 도로 등의 지리적 인접성과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수요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자원이 빈약하고 시장규모도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둔간족의 역할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중간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중개무역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중앙아시아 교역에 있어 2위의 교역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거대 도매시장인 도르도이 시장은 중앙아시아의 물류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은 2005년 안디잔 유혈사태 이후에도 양자간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상호협조에 대한 이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무역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에 있지는 않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중국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공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무역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서부대개발과 연계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투자는 이미 체결된 양자간 경제협력협정에 의거하여 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투자는 석유 · 천연가스부문의 에너지산업 뿐 아니라, 섬유산업 · 플라스틱 · 철강 제품 · 농업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다른 주요국의 투자와는 상이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영에너지기업에 의한 투자이다. 중앙아시아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정부의 보증에 기반한 민간기업의 진출이다. 민간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정부의 적극적 투자진출 유도과 정부 및 국영은행의 보증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중국은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간협력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⁷⁷⁾ 등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각종 협력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최대 현안은 개혁·개방에 따른 동부 연안지역의 산업화 및 서부대개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수입노선을 다변화하고, 해외 유전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중국의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따라서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아직 미개발지인 중앙아시아가 앞으로 중요한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은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세계 각국의 활발한 투자진출과 역내 국가들의 경제발전 결과, 소비재 및 생산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중국의 소비재는 중앙아시아 소비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제품들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저렴한 소비재 수출을 기반으로 점차 기술력이 향상된 중고가 제품과 자본재 수출을 확대한다는 통상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세계 제2의 농산물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매년 엄청난 식량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중앙아시아의 농업국들이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다. 최근 중국은 중앙아시아로부터 곡물 등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 원료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중앙아시아 각국에 농업생산 및 농업기반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77) 러시아는 2004년 8월 28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루어진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에 가입. 이로써 러시아로서는 9·11테러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병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이처럼 중국은 호혜적인 원칙하에 자국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중앙아시아에 수출하고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과 원자재 및 농산물을 수입하는 통상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안정인 확보를 목표로 중앙아시아와의 통상협력을 꾸준히 증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앞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저가의 중국산 소비재 및 생산재의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다.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중국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 및 무역은 과거의 기득권 인정을 요구하는 러시아와 새로이 진출한 유럽, 일본 등 국가들과의 경쟁에 있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성공적인 진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최근 10년간 일련의 에너지협력정책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와 이해 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패권국이 아닌 상호 수평적 관계에서 평화와 공동번영, 경제개발을 위한 믿음직한 협력자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리·독립 저지와 안보문제, 마약과 테러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해 주변국과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다자협력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⁷⁸⁾ 둘째,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경제적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⁷⁹⁾ 셋째, 소상공인이 중앙아시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중앙아시아 저가시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중국의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한 다양한 분야로 민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낙후된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농업분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농업생산 및

78) 이재영·박상남(2007). p.118.

79) 이재영·박상남(2007). p.118.

농업기반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자국의 식량안보와 중앙아시아의 농업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투자진출은 규모가 큰 에너지 및 농업분야는 정부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소매업 부문에 있어서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화교계 둔 간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4. EU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EU에게 중앙아시아는 냉전붕괴 이후 그 중요성이 새롭게 증대하고 있는 지역이며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EU의 안정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쟁 및 안보적 불안요소를 지닌 지역이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새로운 발칸반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EU는 우려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과도해지는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체유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EU에서 확장되고 있는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은 유사시 EU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로 까지 부상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중동과 함께 이러한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EU의 가장 가까운 대체 유전지 중의 하나이다.

이 밖에도 EU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앙아시아의 보건과 극단주의, 테러리즘, 인권문제와 마약밀매,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대해 EU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EU 안보와 통합된 사회유지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EU는 중앙아시아에서 테러와 국가간의 분쟁, 불법무기와 마약의 밀매 등의 위협요소를 제거하여 안보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EU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는 중동과 러시아에 편중

된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대안 지역이다. 따라서 EU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어느 한 국가의 지배권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가 EU 안보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EU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목표의 핵심목표이다. 그러나 독립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은 끊임없는 국가간 갈등과 내부 긴장 속에 놓여있다. 그러나 EU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갖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EU가 가진 이러한 한계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앙아시아에서 그들의 지정학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파트너로 EU보다는 러시아를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EU 역시 중앙아시아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4월 EU 외무부 장관들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법치주의 확립 · 교육 교류협력 · 교역확대 · 환경문제 · 에너지 부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EU의 새로운 중앙아시아 정책은 지역 및 양자간 조약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외무부 장관인 슈타인마이어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터키, 미국 등의 활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EU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안보문제와 중앙아시아의 인권, 다원주의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⁸⁰⁾ 2007년 6월부터 가시화될 대 중앙아시아 정책에는 먼저 에너지 협력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EU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석유 30%, 가스 40%)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대체 공급선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EU에게 매력적인 지역이다. 상술한 EU 외무부장관 회의에서 EU는 우즈베키스탄과 인권 대화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2007년 6월 EU 위원회에서 새로운 중앙아시아 정

80) EU outlines new Central Asia strategy(2007), <http://www.euractiv.com/en/enlargement/eu-outlines-new-central-asia-strategy/article-16332>, (검색일 2007.5)

책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요컨대 EU는 스스로를 ‘연성권력(soft power)’으로 규정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중국, 미국 등에 비해 덜 공격적인 대안적 협력주자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향후 중앙아시아에서 EU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유럽에서 중앙아시아의 지정·지경학적 중요성이 21세기 들어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중앙아시아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교역량도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동구권 국가들의 EU 가입으로 인하여 EU와 중앙아시아의 무역은 점차로 증대될 것이다. 특히 CIS 국가들의 EU 가입과 WTO 가입이 본격화 될 경우, 양자간 무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EU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및 교역은 에너지자원 및 지하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들의 자금지원 및 원조성 투자는 주로 중앙아시아 빈곤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원 부존량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투자에 대한 자원빈곤국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

EU와 카자흐스탄 간의 무역량은 EU의 에너지자원 수입다변화 정책과 각국의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2005년 EU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액은 198억 6,230만 달러, 수입액은 269억 820만 달러이다. EU의 대우즈베키스탄 무역은 카자흐스탄에 비해 활발치 못한 편인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소득이 낮아 유럽 제품에 대한 수요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터키와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 높기 때문이다⁸¹⁾. 그러나 향후 에너지 및 광물자

81) http://adb.org/Documents/Books/Key_indicators/2006/pdf/KAZ.pdf, 2007.09. 검색.

원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와 사회·공공부문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성 투자에 힘입은 경제성장으로 유럽 상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르기스스탄의 EU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전체 무역액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러한 유럽과 키르기스스탄의 무역구조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점유율 증대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장기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⁸²⁾. EU의 대타지키스탄 무역은 타지키스탄의 친러시아 성향으로 인해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간의 무역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⁸³⁾ EU의 대투르크메니스탄 무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직된 대서방정책으로 높은 수준의 무역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중앙아시아 최대의 천연가스 부존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천연가스 수입과 유럽 상품에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기계 및 설비장치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독일의 기계 및 각종 설비장비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

EU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는 기업에 의한 투자와 국제기구의 인도적 차원의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EU의 투자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내부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지경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매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유럽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는 다음의 두 가지 원칙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금까지 러시아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수입원의 다변화와 이를 통한 수급의 원활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공 및 사회부문의 개선은 국제기구들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7~10년 EU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중앙아시아에 3억 3,00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EU집행위원회의 지원 자금 가운데 30%는 교통·통신·국경 유지·교육 등 지역협력 발전을 위해 사용될

82) <http://www.stat.kg/Rus/Annual/xc.html>, <http://adb.org/Countries/> 2007.05. 검색.

83) <http://www.stat.tj/>, <http://www.nbt.tj/> 2007년 5월 검색.

표 4-7. EU 주요국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국 가	투 자 내 용
카 자 흐 스 탄	영 국 - 카스피해 광구의 석유 및 가스 개발 등 대부분 에너지자원 개발에 투자 - 1993~2005년간 영국의 대 카자흐스탄에 대한 직접투자는 누적 총액 43억 달러
	독 일 - 1993~2005년 9월 총 40억 달러 투자 - 하이텔베르크시멘트가 250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악타우 시멘트공장과 합작회사 설립 - 다임-크라이스러사는 아시아아토티(Asiaavto)가 있는 우스컘-카멘고르스크, 또는 아스타나, 알마티에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계획 - 티손 그룹은 카자흐스탄 발전펀드 카즈나(Казына)의 재정적지원 30%와 티손 그룹이 100만 유로를 투자하여 서카작주에 금소 생산공장 건설계획
	프랑스 - 토탈은 카사간스키 유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코제마와 카자토프롬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우라늄 가공업, 프랑스 시멘트는 겔켄트 시멘트회사와 합작회사 설립
우 즈 베 키 스 탄	영 국 - Oxus Gold는 1996년 우즈베키스탄과 50:50 투자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아만타이타우 금광 개발을 완료, 2003년부터 연간 19만 온스의 생산체제 갖추. - Oxus Gold는 중앙아시아 최대 유색광물 광산인 아말 광산단지의 “한디자(Хандиза)” 광산의 개발 및 판매 허가 취득. 이에 Oxus Gold의 우즈베키스탄 자회사인 Marakand Minerals Oxus Gold는 7,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한디자(Хандиза)” 광산을 개발할 예정이며, 금 생산은 2007년 말~2008년 초에 이루어질 계획임
	독 일 - 2005년 12월 21일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의 목적으로 독일은 우즈베키스탄에 향후 19억 유로의 투자합의
	프랑스 - Societe General은행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보증아래 국영대외상업경제은행에 중앙 크즐무락흐 지역의 금 채굴단지 건설을 위하여 33백만 달러의 차관 공여에 대한 협정서 체결, 2006년 12월에 공여를 시작
	스위스 - Zeromax GmbH사는 총 4억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남서부지역 기사르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착수하여 2006년 1,500만 달러투자
키르 기즈	E U - EBRD와 기타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본 확장에 960만 달러 투자
투 르 크 메 니 스 탄	영 국 - Burren Energy Group이 Burren의 나프트타그 해상유전의 석유채굴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5년부터 연간 95만 톤의 석유생산 - 카자흐스탄 OAE와 영국계 드레곤 오일은 카스피해 해양광구 지역인 첼레넨 반도에 석유채굴을 시작하여 2005년 94만 톤의 석유를 채굴하였으며, 2006년 2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6~2010년 기간 년 평균 250만 톤의 석유생산 계획임
	독 일 - 지멘스사가 남카미슬라 지역의 유전·가스전 복구에 124만 달러 투자. - 알카텔(Acatel)은 지방의 전화국 건설, Wintershell은 유전 탐사, Mannesman과 알카텔(Acatel)은 7,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나이프 천연가스 처리공장 건설에 참여
	스위스 - MAN 투르코마니센 스마이즈는 석유화학단지 건설, 덴마크의 Maersk Oil Trukmenistan은 카스피해 유전 개발에 진출
	오스트 리아 - 2006년 8월 헬가 몰레르 임포트-엑스포트는 투르크메니스탄 석유화학단지 내 휘발유와 디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 2만 m의 저장탱크 'RVS-20000' 5개를 건설하기 위한 360만 달러의 투자계약에 서명
	기타국 -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나쉬 지역에 16억 달러 달하는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프랑스 및 터키계 기업 참여 - 이탈리아의 Agip Swissital은 3,070만 달러를 투자해 소다, 실, 양말제조 공장 건설에 참여 - 터키의 Norsel이 4,000만 달러를 방직공장 건설, Ahmet Chaliks가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섬유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해 있으며, Engin Group과 Gap-Trukmen이 각각 690만 달러와 4,150만 달러를 투자해 섬유공장 건설에 진출

자료: Газета“KZ-today”. 2005. 09.; kazinform, 2005.11.14.

ИА <ВЕСТИ. UZ>. 2006.12.05., www.cainfo.ru/ 2007.05 검색.

예정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진 국가, 그리고 빈곤률이 높은 국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타지키스탄에 대해서는 8천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경제성장 및 빈곤층 감소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과 관련된 농업지대의 저수지 재건 사업 · 의료 ·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2억 7,1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⁸⁴⁾

EU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를 살펴보면, 국가별로는 대부분 에너지 자원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은 사회간접자본 등의 각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EU 주요국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는 [표 4-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구소련방 붕괴 이후 연방공화국들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 된 1992년부터이다. EU의 대중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은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음식료품을 비롯한 소비재와 설비장치 등 자본재를 수출하고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수입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유럽은 중앙아시아로 육로수송이 가능하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지만 음식료품을 제외한 기타 상품에는 수출은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EU의 대중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은 지속적으로 무역규모를 늘려가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EU의 대중중앙아시아 수입정책에서 우선순위는 석유 ·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 수입에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유럽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품목은 가공된 상품보다는 유럽에서 부족한 원재료 또는 가공

84) IIA "PRESS-UZ.info".

하여 수출할 수 있는 광물자원, 섬유산업에 필요한 원사 및 직물 등이다. 이처럼 현재 EU의 대중아시아 통상정책의 핵심은 러시아에 의존하는 획일화된 석유 및 천연가스의 공급선을 다변화시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EU 제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원료들을 중아시아로부터 수입량을 늘려 가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아시아는 국가별로 시장개방 수준이 다르지만,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개방을 서두르고 있어 지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유럽은 공격적인 진출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중아시아는 시장 형성이 미흡하고 소비제품이 아직은 열악하고 조잡한 것이 사실이나, 에너지자원 부국들은 미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인 통상정책의 기초를 유지할 것이다. 즉, 중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에너지자원과 우라늄·구리 등 유용광물의 자원개발에 따른 기계 및 설비장비 등의 자본재 수출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제조업 발전을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아시아의 원재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통상정책 기초를 견지할 것이다.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EU는 중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견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수준은 러시아와 중국 등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이러한 EU의 대중아시아 통상전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유럽은 중아시아에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유럽이 중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천연가스 수입선의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이다. 둘째, EU 기업들이 중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중아시아의 농업, 광산업, 통신 및 사회간접자본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셋째, 유

럽은 지역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유럽의 이미지 제고에 성공하였다. 특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중앙아시아의 빈곤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과 공공부문 및 사회부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럽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EU가 중앙아시아에서 미래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기반을 마련하듯이, 한국도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 및 수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미래 에너지안보 기반을 중앙아시아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기 때문에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중앙아시아 내에 한국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해야 할 것이다.

5. 러시아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푸틴의 등장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가체제 정비와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치 · 군사적으로는 물론 에너지 · 지하자원 · 도로 · 철도 등 인프라 구축, 항공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교역량은 168억 달러로, 중앙아시아는 여전히 러시아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상하는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역사 · 문화 · 군사 · 안보 · 외교 ·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에게 매우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사활(死活)이 걸려 있는 지

역이다. 분리 독립 운동으로 러시아를 괴롭혀 오던 체첸사태와 연관된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구소련시절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보호 차원에서, 또한 군사·안보적 완충지대라는 차원에서도 중앙아시아의 지니는 전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협력강화체제의 제도화 방안이다. 에너지자원의 수출에서 얻어지는 재원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의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부분의 협력은 양 진영의 이해관계를 보다 긴밀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인식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에너지의 전략 자원화로 냉전붕괴 이후 상실해 왔던 국제적인 영향력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판단에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석유-가스 동맹(Oil-Gas Union)’을 창설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러한 구상들이 성공 한다면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21세기 국제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세계적인 천연자원의 보고이며, 최근 에너지 자원의 부족사태와 이로 인한 유가상승은 새로운 원유·가스 공급처로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의 주요 방향은 지정학적·경제적·군사적 이해관계의 총체적인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장기적 목표에 기반해 왔다. 우선 안보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남쪽 국경지역의 완충지대로 남아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접지역에서 핵 분쟁을 포함한 대규모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러시아의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앙아시아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러시아는 카스피 해에 대한 영향력을 강력히 유지해야 한다. 셋째, 중앙아시아의 주요 교통·통신망과 송유관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넷째,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보호하고,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의 정치적인 역할을 유지시켜야 하는 의무가 러시아 정부에 있다.

특히 푸틴 집권 이후 급격한 오일달러 유입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기 시작한 시기이다. 푸틴은 강대국 간 협조체제(러시아-중국-인도)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강화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중앙아시아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고하게 복원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2000년 등장한 푸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 약화를 멈추고 과거의 위치를 되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이러한 영향력 회복 의지가 과거처럼 제국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중앙아시아 신생독립국들과의 상호 동등한 쌍무관계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러시아가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푸틴은 지난시기의 그러한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새로운 정책은 그동안의 패권적 목적중심에서 상호 평등의 접근방법으로 전환을 의미 했다. 군사·경제적으로 체제이행과정의 경제 파탄으로 인해 전혀 이행하지 못했던 중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갔으며,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 대등한 수평적 관계설정으로 인식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선회는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이 다시 러시아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에 비례하여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강화되었다.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러시아의 대중중앙아시아 교역은 2000년까지는 주로 정책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러시아가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상업적 원칙이 강조되면서 러시아가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교역의 대부분은 2006년 현재 카자흐스탄에 집

중되어 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교역량은 2000년 44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128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교역량의 76.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교역량은 2000년 9억 3,700만 달러에서 2006년 23억 7,5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교역량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과거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방 해체 직후인 1992년 옐친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아시아의 평화유지 적격자로 인정받아⁸⁵⁾ 러시아와의 무역량이 급증할 것으

표 4-8.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5개국 연도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카자흐스탄	수 출	2,555	2,247	2,778	2,403	3,279	4,664	6,524	8,969
	수 입	2,675	2,200	2,018	1,946	2,475	3,429	3,225	3,839
	총무역액	5,230	4,447	4,796	4,349	5,754	8,093	9,749	12,808
	무역수지	-120	47	760	457	804	1,235	3,299	5,130
우즈베키스탄	수 출	824	274	409	453	512	767	861	1,086
	수 입	889	663	584	344	484	613	904	1,289
	총무역액	1,713	937	993	797	996	1,380	1,765	2,375
	무역수지	-65	-389	-175	109	28	154	-43	-203
키르기스스탄	수 출	105	103	83.3	104	161	268	398	560
	수 입	101	88.6	61.9	74.2	104	150	146	194
	총무역액	206	191.6	145.2	178.2	265	418	544	754
	무역수지	4	14.4	21.4	29.8	57	118	252	366
타지키스탄	수 출	190	55.9	69.4	67.9	128	183	240	377
	수 입	167	237	130	66	69.9	75.9	95	125
	총무역액	357	292.9	199.4	133.9	197.9	258.9	335	502
	무역수지	23	-181.1	-60.6	1.9	58.1	107.1	145	252
투르크메니스탄	수 출	93.1	130	140	143	222	242	224	229
	수 입	179	473	39.1	32.1	28.4	43.2	77.2	78.9
	총무역액	272.1	603	179.1	175.1	250.4	285.2	301.2	307.9
	무역수지	-85.9	-343	100.9	110.9	193.6	198.8	146.8	150.1

자료: http://www.gks.ru/free_doc/2007/b07_11/23-13.htm. 2007.09.15. 검색.

85) 장병욱(2001), 143p.

로 기대하였으나, 국내 정치·경제적 불안정에 따른 경제상황의 정체로 인해 카자흐스탄에 비해 급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러시아 간의 교역량은 급속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국가건설과 경제성장에 있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러시아와 더욱 긴밀한 우호관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가격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서방 각국과 주변국들이 이를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⁸⁶⁾. 1990년대 초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과거 구소연방 시절에 구축된 정치적 관계가 강하게 작용된 투자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적 측면의 요인이 대두되면서 정치적 측면의 요인과 혼합되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는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과 지질탐사·송유관 건설·전력·통신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별로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나 투자협정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이후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표 4-9.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0		2004		2005		2006	
	투자액	비 중	투자액	비 중	투자액	비 중	투자액	비 중
카자흐스탄	3,453	47.2	84,104	36.9	204,314	95.9	189,231	37.9
우즈베키스탄	929	12.7	138,547	60.7	6,968	3.3	176,174	35.2
키르기스스탄	7	0.0	628	0.3	1,247	0.6	112,094	22.4
투르크메니스탄	2,934	40.1	1,865	0.8	-	-	-	-
타지키스탄	-	-	3,067	1.3	496	0.2	22,315	4.5
총 투자액	7,323	100	228,211	100	213,025	100	499,814	100

자료: http://www.gks.ru/free_doc/2007/b07_11/23-13.htm. 2007.09.15. 검색.

86) Vasily Mikheev, 「Applicability of SCO Experiences in Northeast Asia」, 『Northeast Asian Cooperation & Lessons of SCO Experiences』, 2004, 10, The IFANS Workshop program, Seoul, Korea, p. 3.

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에 대하여 러시아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

표 4-10.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국 가	투 자 내 용
카 자 흐 스 탄	- 카스피해 해상광구의 유전개발을 위해 30억 달러 상당의 도스족 프로젝트 - 카자흐스탄의 케엠지(KMG)와 러시아 로스 네프찌간에 추정 매장량 80억 배럴의 카스피해 쿠르망가지 광구에 대한 생산분배협정(PSA)체결 - 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부와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간에 단일 전력시장 구성을 골자로 하는 전력·에너지 분야 협력의정서 체결
우 즈 베 키 스 탄	- 제호스나브엑스포르트는 악타우 우라늄광산 개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나보인 광공업단지(HITMK)와 지질 및 광물자원 정부위원회와 합작회사 설립 - 가스프롬(Gazprom)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건설부문에서 연간 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스위스의 Zeromax사의 비석유가스 부문의 자산을 매입하여 우즈베키스탄 건설 및 소비재 부문으로 진출 - 가스프롬사는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크네프제가즈와 싸호파흐트 유전의 생산물분배에 대한 약정체결, 2006년부터 우스쭈르트스키 지역의 유전지대 지질조사를 위해 2011년까지 2억 6천만 달러 투자 - 우르가 유전의 복구, 쿠아누스 및 악찰라스키 유전지대에 3억 5천만 달러의 투자협정을 맺어 단계적으로 투자 - 루코일(PTC: LKOH)사는 총 투자액이 9억 9,520만 달러가 소요되는 부하라주 칸드임 지역의 천연가스 채굴과 우스쭈르트지역의 지질탐사를 위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 - 2006~2010년간 가스프롬사는 우스튜르스키 지역의 지질조사와 천연가스 채굴에 약 900만 달러 직접투자 - 스트로이트란스가즈는 무바렉스키 가스공장 재건을 위해 2억 2,500만 달러, 아한가란-푼간 사이 가스관 공사를 위해 7억 달러 투자
키르 기즈	- 키르기스스탄의 산업발전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 2000년 7천 달러이던 키르기스스탄 투자가 2004년 62만 8천 달러, 2005년에는 124만 7천 달러, 2006년에는 중앙아시아 투자액의 22.4%인 1억 1,209만 달러 투자
투르크 메니 스탄	- 카스피해연안 가스수송 파이프라인 재건과 신 가스관 건설에 합의하고 2007년 7월에는 투자에 대한 계약 체결합의 - 자리트(Zarit) 지역 유전탐사, 무선호출서비스에 4,600만 달러 투자
타 지 키 스 탄	- 하틀룬주의 바호스강에 발전 용량 670MW의 “상투진 수력발전소-1” 건설에 합의. 자금조달을 위해 약 2억 7,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상투진 수력발전소-1” 주식회사의 주식발행, 현재 러시아의 “통합전력”사가 주식 75%-1주, 타지키스탄이 25%+주를 보유 - 2007년 2월 위성톤에서 러시아, 타지키스탄,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의 3자간 대표자 회의에서 러시아 PAO“ECO”의 주식 일부를 국제금융기구에 매매하기로 합의

자료: 저자작성.

지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막대한 유용 광물자원 등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는 2002년 732만 3천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매년 평균적으로 13.5배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4억 9,981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2000년 러시아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각각 47.2%, 40.1%를 차지하여, 이 두 국가에 87.3%의 투자가 집중되었으나,⁸⁷⁾ 2006년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다변화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도 증대하였다.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5개국 역시 러시아와 국가간 통상협력이 자국의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등이 진출해 있어 정치·경제적 우선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러시아로서는 이 지역들과 적극적인 통상협력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대중중앙아시아 통상전략의 핵심은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가 추진하려는 구소연방 지역의 경제통합화 과정에서 ‘기관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는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CIS 역내의 각종 기구에 우즈베키스탄의 참여를 지지하면서 러시아 우위의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새로운 대통령인 베르디무함메도프와 과거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가스개발 및 이의 수출입에 협력하다는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과의 통상전략은 3개국과는

87) http://www.gks.ru/free_doc/2007/b07_11/23-13.htm, 2007.09.15. 검색.

다른 인도적 부문이 포함된 통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은 시장경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원조성 지원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에너지자원 보유국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자원 비보유국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구분하여 통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자원 보유국과는 설비자재 및 소비재를 수출하고, 에너지자원 수입을 증대시키면서 통상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에너지자원 비보유국인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과의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수출입의 다변화 정책과 중국에 대한 러시아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 러시아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가장 큰 매력은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 및 통상일 것이다. 러시아의 에너지부문의 통상정책은 석유를 수입해서 정제해 수출하는 현재의 구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재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각국은 낙후된 산업 개보수를 위한 자본재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 러시아는 기존의 자본재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기술혁신으로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러시아 중앙아시아로부터 박과 채소류, 건과류를 수입하며, 원료 수입을 통한 가공수출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동반자이자 러시아의 대외관계에서 지지자 관계를 미래에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통상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원조성 지원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등이 진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 성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가 과거 제국적인 대중앙아시아 접근정책을 포기하고 푸틴 집권 이후 정책 전환을 통해 상호 평등과 상호 이익추구라는 호혜적인 접근 자세로 전환이다. 둘째, 에너지 분야에 있어 외교력을 통하여 러시아의 입장을 많이 관철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이 계획하고 있던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러시아 방안대로 관철시키는 외교력을 보여 주었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맹주의 자리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경제성장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 등에게 중앙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중앙아시아의 사회간접자본과 농업 분야로의 진출이다. 러시아는 구소연방 붕괴 이후 낙후 또는 파괴되어 있는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개보수 및 신설에 대하여 활발한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5장

한-중앙아시아 통상현황 및 평가

신 현 준



한 · 중앙아시아 통상 현황 및 평가

신 현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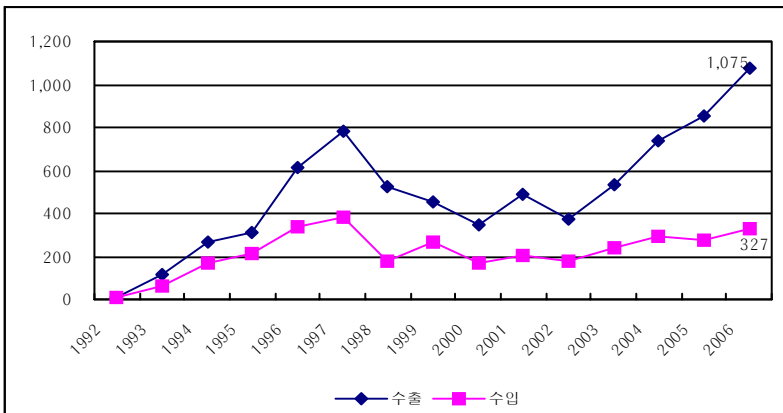
1. 무역 및 투자

가. 무역동향

한국은 1990년대 초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역을 시작하였다. 교역 개시 5년 만인 1997년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교역량은 수출 7억 8,400만 달러, 수입 3억 8,400

그림 5-1.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만 달러까지 급증하였으나, 한국과 러시아가 나란히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부터 다시 급속도로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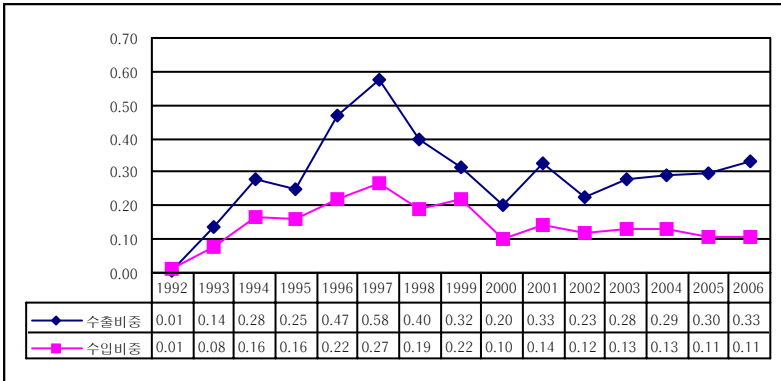
1998년 외환위기는 한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권 하에 있던 중앙아시아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이었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후 혹독한 체제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1995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던 중앙아시아 경제는 1997년까지 2년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는 듯 했으나, 1998년 중앙아시아 양대 경제대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침체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국은 경제전반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환율절하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상승하였고, 중앙아시아는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 및 원자재 국제가격이 상승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교역도 부활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한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교역은 2006년에 수출 10억 7,500만 달러, 수입 3억 2,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교역 첫 해인 1992년 대비 100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수출은 급증한 반면 수입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수출은 200% 가까이 증가했으나, 수입은 역대 최대였던 1997년 수준을 밑도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1992년 한국의 대세계 수출입대비 대중중앙아시아 수출입 비중은 0.01%에 불과했으며, 1997년에 각각 0.58%와 0.27%를 기록한 것이 현재까지의 최대 비중치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수출은 0.30%, 수입은 0.10%대의 비중에 머물고 있다. 반면, 중앙아시아의 대외무역에서 한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1997년에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대세계 교역에서 수출 3.02%, 수입 5.85%의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앙아시아가 세계 주요국들의 신흥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면서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06년에는 각각 0.61%와 2.96%를 기록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서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5-2.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앙아시아와의 교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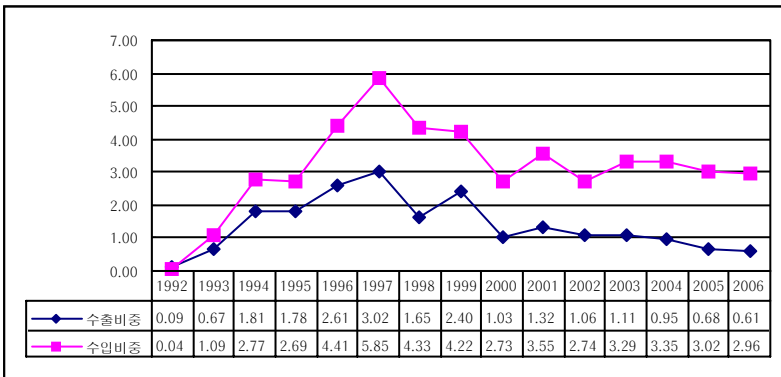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연도).

그림 5-3. 중앙아시아 대외무역에서 한국과의 교역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연도).

나. 국가별 교역동향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기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수출의 90.5%, 수입의 96.6%를 점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키르

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까지 한국과의 교역이 매우 미미하여 한국의 교역대상국 순위에서 10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다.

■ 표 5-1.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수출입 국가별 비중(2006년) ■

(단위: %)

국가 / 수출입	수출	수입
카자흐스탄	30.1	84.4
우즈베키스탄	60.4	12.2
키르기스스탄	7.6	0.3
타지키스탄	1.3	2.4
투르크메니스탄	0.6	0.6
중앙아시아 5개국 전체	100.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연도).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교역은 2000년대 들어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6년에는 역대 최대인 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양국간 교역에서 한국은 소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로 인해 심각한 무역불균형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향후 국제 고유가로 인한 카자흐스탄의 높은 경제 성장과 구매력 향상, 한국의 카자흐스탄 자원 수요의 증가로 인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다. 2006년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전체 교역의 거의 절반(49.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무역불균형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2006년 대우즈베키스탄 교역에서 6억 5,900만 달러의 교역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및 대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카자흐스탄과는 수출보다는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우즈베키스탄과는 수출은 급증하고 수입은 급락하는 상호 대조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

림 5-4]에 나타난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및 대우즈베키스탄 수입 동향을 보면 1998년을 기점으로 대우즈베키스탄 수입 그래프는 급격히 우하향하여 2006년에는 1998년의 1/7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반대로 대카자흐스탄 수입 그래프는 가파르게 우상향하여 1998년 수준의 9배에 이르고 있다. 2006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입은 대중양아시아 수입의 84.4%를 차지하였다. 또한 [그림 5-5]에 나타난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은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은 2002년 이후 매년 30~50%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6년에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은 대중양아시아 수출의 60.4%를 차지하였다.

표 5-2.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국가별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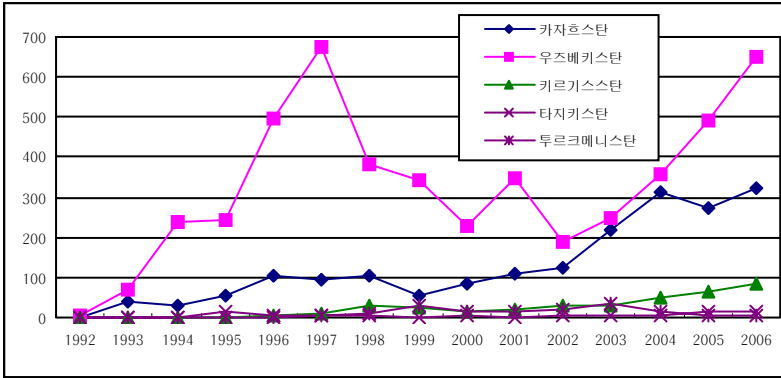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2	2	9	3	0	0	1	0	0	0	0	5	10
1993	41	47	70	17	0	0	1	1	2	0	114	65
1994	30	61	237	105	0	0	0	1	1	1	268	168
1995	53	73	244	135	2	1	13	2	0	3	312	217
1996	105	125	494	196	4	3	4	6	2	1	609	334
1997	92	83	675	298	8	0	6	1	3	0	784	384
1998	104	31	384	142	29	0	3	2	8	0	528	175
1999	57	51	341	208	24	0	2	6	32	1	456	266
2000	82	49	230	104	17	0	3	10	15	0	347	165
2001	108	56	346	137	20	1	2	7	15	2	491	203
2002	126	72	188	97	28	0	5	6	22	1	369	176
2003	217	153	247	79	32	0	4	5	36	1	536	238
2004	314	204	359	77	50	3	5	5	14	0	742	290
2005	273	242	493	29	67	2	13	2	6	1	852	276
2006	324	276	649	40	82	1	14	8	6	2	1,075	327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5-4.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국가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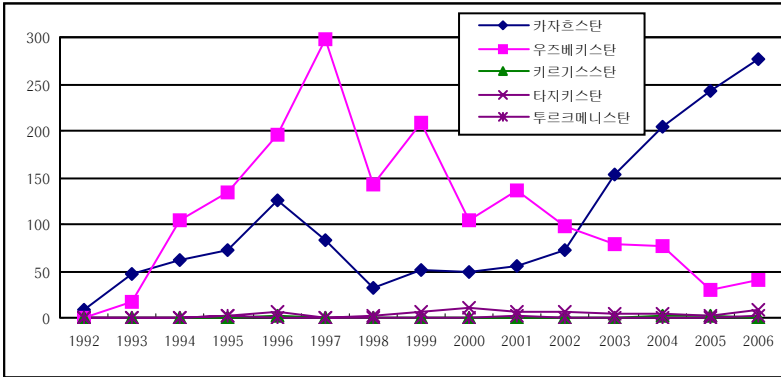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5-5.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 무역구조

한국과 중앙아시아와의 무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기계류 · 자동차 · 전기전자 · 플라스틱 등 자본집약적 고

표 5-3.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국가별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2006년)

국가/ 분류	수출					수입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금액 (천 달러)	비중 (%)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금액 (천 달러)	비중 (%)
카 자 호 스 탄	1	84	기계류	106,156	32.8	1	72	철강	171,678	62.2
	2	87	자동차	65,735	20.3	2	71	귀금속	86,330	31.3
	3	85	전기전자	52,601	16.2	3	79	아연	14,107	5.1
	4	39	플라스틱	41,505	12.8	4	28	무기화학	1,503	0.5
	5	73	철강	9,654	3.0	5	52	면	1,167	0.4
	총계			323,815	100.0	총계			275,882	100.0
우 즈 베 키 스 탄	1	87	자동차	439,036	67.6	1	52	면	21,057	52.5
	2	84	기계류	105,779	16.3	2	28	무기화학	17,119	42.7
	3	39	플라스틱	21,378	3.3	3	12	채유용식물	799	2.0
	4	85	전기전자	18,092	2.8	4	20	과채류(조제)	214	0.5
	5	60	섬유(편물)	15,296	2.4	5	8	과채류	189	0.5
	총계			649,302	100.0	총계			40,087	100.0
키 르 기 스 탄	1	60	섬유(편물)	35,066	42.8	1	52	면	452	34.3
	2	87	자동차	17,468	21.3	2	10	곡물	408	31.0
	3	39	플라스틱	11,804	14.4	3	38	화학공업	274	20.8
	4	24	담배	3,761	4.6	4	12	채유용식물	90	6.8
	5	61	의류(편물)	3,140	3.8	5	29	유기화학	25	1.9
	총계			81,947	100.0	총계			1,318	100.0
타 지 키 스 탄	1	87	자동차	8,587	59.3	1	76	알루미늄	6,440	81.2
	2	84	기계류	2,648	18.3	2	52	면	1,122	14.1
	3	85	전기전자	950	6.6	3	50	견	333	4.2
	4	39	플라스틱	879	6.1	4	85	전기전자	20	0.3
	5	54	인조장섬유	613	4.2	5	49	인쇄물	11	0.1
	총계			14,492	100.0	총계			7,934	100.0
투 르 크 메 니 스 탄	1	84	기계류	3,657	61.3	1	52	면	1,765	98.6
	2	39	플라스틱	1,446	24.2	2	63	의류(방직용)	25	1.4
	3	85	전기전자	447	7.5					
	4	91	시계	217	3.6					
	5	54	인조장섬유	103	1.7					
	총계			5,969	100.0	총계			1,790	100.0

주: 품목코드는 HSK 2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가가치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고, 철강·아연·알루미늄 등의 금속과 면 등 원자재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교역구조는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한 전형적인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은 석유 및 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어 한국으로부터 기계류를 비롯한 자본재의 수입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자동차, 휴대폰 등 한국의 고부가가치 소비재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철강·귀금속·아연 등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교역도 자동차, 기계류 등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고, 면을 비롯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 대우(Daewoo)가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UzDaewoo의 자동차 생산이 호조를 보이면서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대우즈베키스탄 수입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면을 수입하던 한국 섬유산업이 가격경쟁력 약화로 하향길에 접어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철을 비롯한 금속 원자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면 이외에는 이렇다 할 수출용 원자재가 없다는 것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도 최근 고부가가치 자본재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교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 투자동향

1991년에 시작된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2006년 현재 순투자기준으로 163건에 약 9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전체 해외

투자가 33,369건에 금액으로 695억 달러에 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중앙아시아 투자는 건수로는 0.5%, 금액으로는 1.3%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약하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대부분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2004~2006년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의 99.7%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비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고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표 5-4. 한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별 투자동향(순투자기준)

연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1	1	512	-	-	-	-	-	-	1	512
1992	4	993	-	-	-	-	-	-	4	993
1993	0	113	2	15,000	-	-	-	-	2	15,113
1994	2	4,510	0	66,300	-	-	-	-	2	70,810
1995	5	856	5	28,549	-	-	1	29,000	11	58,405
1996	5	1,031	7	78,137	-	-	0	0	12	79,168
1997	4	102,804	7	16,033	1	145	0	0	12	118,982
1998	1	60	1	111,267	1	5,800	0	0	3	117,127
1999	1	1,835	2	333	1	2,650	0	0	4	4,818
2000	2	354	3	17,770	1	350	0	0	6	18,474
2001	4	1,323	3	63,176	1	180	0	29,000	8	93,679
2002	1	500	4	462	1	40	1	100	7	1,102
2003	4	13,819	5	5,252	0	0	0	0	9	19,071
2004	8	22,527	3	563	0	0	0	0	11	23,090
2005	16	25,290	9	1,456	2	355	0	0	27	27,101
2006	25	250,077	15	21,303	4	732	0	0	44	272,112
총계	83	426,604	66	425,601	12	10,252	2	58,100	163	920,557

주: 한국수출입은행 공식통계상 한국의 투르크메니스탄 해외직접투자는 전무함.

순투자건수(또는 금액) = 총투자건수(또는 금액) - 회수건수(또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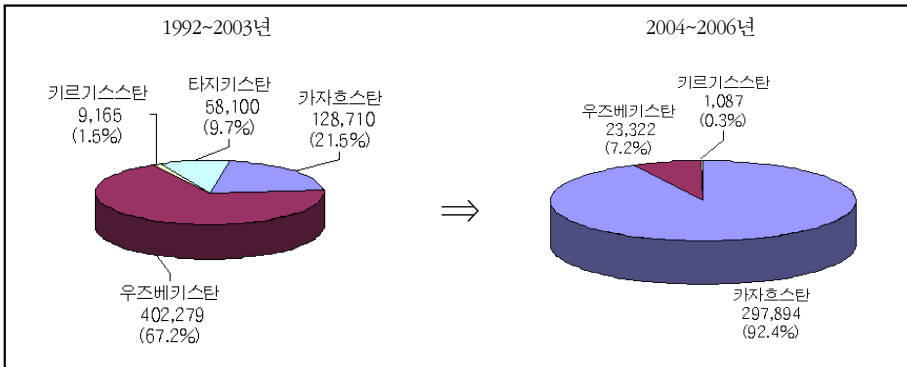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양상도 해가 거듭되면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2003년에는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중 67.2%가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었다. 대우가 한국에서는 선구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 UzDaewoo를 설립하였고, 이로 인해 자동차 관련 투자가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을 기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점차 줄어든 반면, 2003년 이후 건설업 중심의 카자흐스탄 투자 러시가 시작되었다. 경제중심지이자 옛 수도인 알마티의 경제·주거인프라 건설, 신수도 아스타나 건설 등으로 카자흐스탄에 건설과 부동산 붐이 일면서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2006년에만 카자흐스탄에 전년 투자규모의 10배 가까운 약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2004~2006년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는 중앙아시아 전체 투자의 92.4%에 달한다.

■ 그림 5-6.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의 국별 비중 변화 ■

(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라. 투자패턴

본 장에서는 한국의 최근 3년간 중앙아시아 투자패턴을 분석하였다. 최근 3년간 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 투자했으며, 타지키스

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기간 중앙아시아 투자의 92.4%는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졌다.

업종별 투자현황을 보면 최근 카자흐스탄의 건설 및 부동산 붐을 반영하듯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61.2%와 12.6%를 차지하였다. 부동산업은 2001년에 처음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이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특수를 노리고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건설업은 2004년 동일토건과 동일하이빌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한국형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첫 물꼬를 튼 이래 2006년에만 우림건설, 현진에버빌, 남해종합건설 등 국내 굴지 건설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면직물, 면사, 면실유, 동물사료, 자동차부품, 산업용필름 등 다양한 제조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이 금광에 투자하였다.

표 5-5. 최근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업종별(2004~2006년)

업종 / 분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농림어업	-	-	-	-	-	-	-	-	0.0	0.0
광업	2	25,381	2	1,250	1	105	5	26,736	6.1	8.3
제조업	9	6,848	14	19,900	4	732	27	27,480	32.9	8.5
건설업	18	196,747	3	208	1	250	22	197,205	26.8	61.2
도소매업	5	26,169	3	189	-	-	8	26,358	9.8	8.2
운수창고업	1	400	-	-	-	-	1	400	1.2	0.1
통신업	-	-	-	-	-	-	0	0	0.0	0.0
숙박음식점업	2	1,250	2	725	-	-	4	1,975	4.9	0.6
서비스업	6	1,589	1	50	-	-	7	1,639	8.5	0.5
부동산업	6	39,510	2	1,000	-	-	8	40,510	9.8	12.6
총계	49	297,894	27	23,322	6	1,087	82	322,303	100.0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3년간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투자하는 목적은 장기적으로 보호무역을 타개하고, 수출을 촉진하며, 저임을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현지 개발특수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6]에 나타난 투자목적별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현황을 보면 전체 건수의 63.4%, 전체 금액의 83.0%가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실제로 기타로 분류된 투자의 대부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 투자임을 알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는 여전히 막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원자재확보를 위한 투자는 금액 비중으로 10.2%에 불과하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지속적으로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고 구조조정 시점부터 고속성장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촉진이나 저임활용과 같은 장기적인 통상확대차원의 투자도 10% 내외에 그치고 있다.

■ 표 5-6. 최근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투자목적별(2004~2006년) ■

투자목적 / 분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자원개발	6	31,264	3	1,280	1	250	10	32,794	12.2	10.2
수출촉진	3	2,516	6	9,583	1	100	10	12,199	12.2	3.8
보호무역타개	-	-	1	70	-	-	1	70	1.2	0.0
저임활용	4	2,421	3	7,094	1	82	8	9,597	9.8	3.0
원자재확보	1	24	-	-	-	-	1	24	1.2	0.0
기타	35	261,669	14	5,295	3	655	52	267,619	63.4	83.0
총계	49	297,894	27	23,322	6	1,087	82	322,303	100.0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모기업규모별 중앙아시아 투자를 보면 전체 건수의 62.2%, 전체 금액의 86.2%가 중소기업에 의해 수행되었다. 대기업에 의한 투자는 건수로 3.7%, 금액으로 10.6%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는 중앙아시아의 투자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국

내에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 리스크가 크지만 투자성공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앙아시아 투자를 선호한 반면, 국내 혹은 다른 해외에 수익기반이 존재하는 대기업의 경우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감수할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최대 투자업종인 건설업의 경우도 한국의 중견기업인 동일하이빌이 2004년에 높은 진입장벽을 뚫고 투자를 개척하였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대기업들이 카자흐스탄 건설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현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7. 최근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기업규모별(2004~2006년) 11

기업규모 / 분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대기업	2	25,251	1	8,800	-	-	3	34,051	3.7	10.6
중소기업	29	263,516	18	13,547	4	755	51	277,818	62.2	86.2
기타	18	9,127	8	975	2	332	28	10,434	34.1	3.2
총계	49	297,894	27	23,322	6	1,087	82	322,303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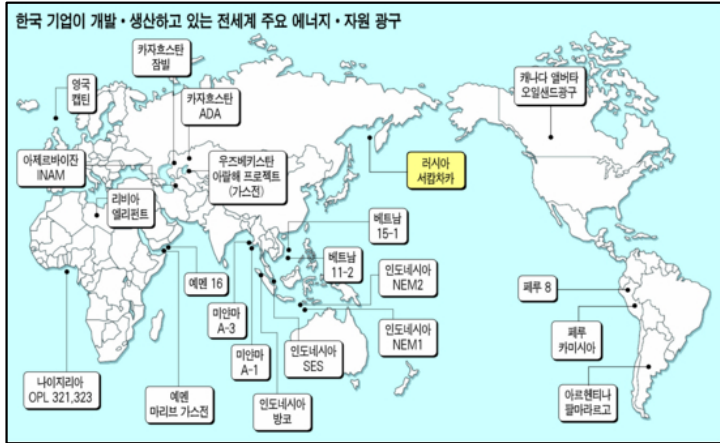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자원개발협력

가. 한국의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정책

2000년대 들어서 국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 공업국들의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에 있어 해외로부터의 에너지자원확보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이슈가 되었다. 또한 세계 주요 강대국들과 기업들은 국제 고유가 시대에 국익 및 기업이

그림 5-7. 한국 기업이 개발·생산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자원 광구



자료: 한국경제신문(2007년 5월 31일자).

운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국내 에너지 수요의 안정적 확보와 이윤창출을 목표로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목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개발에 참여한 자원의 소유권을 확보하며, 이를 국내에 도입 혹은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국익 및 기업이익을 창출하고,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물을 확보하는 것이다.⁸⁸⁾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2차에 걸쳐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2001년 12월에 1차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2004년 12월에 2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1차 기본계획은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방점을 둔 반면, 2차 기본계획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의 목표를 국제적인 에너지 확보전 속에서의 본격적인 해외 자주개발 에너지원 확보로 구체화하고 있다.⁸⁹⁾ 2006년 11월 산업자원부는 ‘에너지비

88) 국정브리핑(2007. 3. 23). “해외자원개발, 무조건 국내 들어오는것 아니다.”

89) 이재영 외(2006), p. 186.

전 2030⁹⁰⁾이라는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해외자원개발을 더욱 확대하여 2006년 3.2%에 그친 에너지 자주개발률⁹¹⁾을 2030년까지 35%로 높인다는 것이다. 1996년 37건에 불과하던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수는 2006년 83개로 급증하였다. 해외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2005년 4.1%에서 2006년 3.2%로 0.9% 포인트 하락했으나, 이는 현재 탐사 혹은 개발 중인 에너지자원은 제외된 결과이다. 탐사부터 본격 생산까지의 에너지 자주개발 시차를 감안한다면 산업자원부가 제시한 2013년까지의 에너지 자주개발률 18%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표 5-8.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

구분	1차 기본계획(2001년 12월)	2차 기본계획(2004년 12월)
목표	· 자원 위기시 충격 최소화 ·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뒷받침	· 주요 에너지원 자립능력 제고 · 해외 자원개발 역량 확충
중점 추진 과제	· 정부 지원체계 개선 · 민간기업 참여확대 기반 확충 · 용자제도 개선 · 추진체계의 효율화 · 정보 및 기술기반 확충 · 전문인력 양성 및 장비 현대화 · 동북아 자원협력체제 구축 · 자원보유국과의 협력강화	· 다양한 투자자원 확충 · 민간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확대 ·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 관련 공기업 역량 강화 ·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강화 · 종합적 자원개발 지원체계 구축 · 해외자원개발 기술수준 제고

자료: 이재영 외(2006).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략지역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활발한 자원외교를 통해 신규 사업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⁹²⁾ 적극적인 정상 자원

90) 2006년 11월 28일 산업자원부는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3대 기본방향, 5대 비전, 9대 실천과제를 포함한 '에너지정책 2030'을 제시했다. 기본 골자는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35%,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9%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91) 에너지 자주개발률이란 국내 소비량에서 국내 기업에 의한 해외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92) 산업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5대 정책으로 △ 생산자산 확보 △ 한국형 동반진출모델을 활용한 유전 확보 △ 신규 사업 확보를 위한 자원협력 강화 △ 자주개발역량 확충을 위한 유전개발 R&D 기반 구

외교를 통해 2002년에는 8개국에 불과하던 자원협력위원회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17개국이 추가되어 총 25개국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신규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중앙아시아이다. 중앙아시아는 막대한 미개발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한국이 개발에 참여할 여지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대상지역인 중동과 거대한 에너지 소비시장인 EU가 인접해있어 자주개발 에너지를 한국으로 도입하거나 혹은 주변지역으로 수출하기에 좋은 지리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자원개발 가능성이 높은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집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기치로 2004년과 2005년 각각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하였고, 기존 카자흐스탄과만 진행하던 자원협력위원회를 우즈베키스탄까지 확대하였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수교 이후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하여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의 서막을 열었다.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1990년, 1995년, 2003년 한국을 공식 방문한 것에 비하면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 방문이었다. 한국이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카자흐스탄에 러브콜을 보냈을 때는 이미 카자흐스탄의 핵심 광구는 서구 석유메이저들이 집중 투자한 상태였고, 카자흐스탄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뒤늦게 카자흐스탄 자원개발에 뛰어든 한국 정부는 2004년 3월 양국은 제 1차 자원협력위원회를 열어 석유·가스를 비롯한 광물자원 공동조사 MOU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자원개발협력을 시작하였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시 한국은 카자흐스탄 잠빌(Zhambyl) 광구의 공동개발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9월에는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도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자원개발협력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자원외교는 대우(Daewoo)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이래 양국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원활하게 진

축 △ 유전개발 투자 촉진 및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노력 강화 등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일보(2007. 2. 20), “해외석유자원개발 5대 정책” 참고.

행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전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2년, 1995년, 1999년 총 3회 한국을 방문하였고, 한국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였다.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한국의 자원개발 의사를 전달하였다. 1년 뒤인 2006년 3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답방 형식으로 한국을 다시 찾았고, 같은 해 9월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가 방문하면서 가스, 우라늄 등의 자원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앙아시아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소련의 의사결정 잔재가 남아있어 한국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중요하다. 중앙아시아는 여전히 경제 전반의 의사결정권한이 정부 혹은 국영기업에 귀속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민간기업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정부기관 및 공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 정부와 해당국 정부간 MOU 체결은 반드시 필요한 통과의례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앙아시아와의 자원외교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양국 자원협력위원회라는 정부간 공식 대화채널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MOU를 체결하며 한국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가 자원협력위원회, 정상 방문, MOU 체결 등으로 진출기반을 조성하면, 이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민간기업보다 한발 앞서 선도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의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

표 5-9. 한국의 자원협력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분류	2002년 이전	2002년 이후 신규
아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중국	필리핀, 미얀마, 인도
러시아·CIS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	-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아프리카	-	콩고, 알제리, 나이지리아(★)
중동·대양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UAE

주: ★는 장관급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국가.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06년 9월 4일).

에 대한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투자는 그 규모와 리스크 측면에서 힘든 것이 사실이어서 한국석유공사를 중심으로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고 있다.

나. 석유 · 가스

한국의 중앙아시아 석유 · 가스개발 참여는 2004년 3월 카자흐스탄과의 자원협력위원회 개최와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양국은 제 1차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석유 · 가스를 포함한 광물 자원 공동조사 MOU를 체결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기간에 카스피해 유전 및 우라늄광에 대한 공동개발 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공동개발 광구로 잠빌(Zhambyl) 광구가 선정된 이래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유전 및 가스전은 총 7곳이며, 개발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모두 탐사 및 조사단계에 있다.

카스피해 북서 해상지역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의 개발은 한국 해외유전개발 사상 최대 프로젝트이다. 추정 매장량은 약 16.6억 배럴로 한국 연간 석유 소비의 거의 2년치와 맞먹는 규모를 자랑한다. 2004년 9월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시 한국의 첫 카자흐스탄 개발 광구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3년 가까이 협상이 지속되다가⁹³⁾ 2007년 3월 탐사계약 최종안을 도출하였고 2007년 7월 이내에 최종 탐사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컨소시엄은 현재 카즈무나이가즈(KMG: Kazmunaigaz)가 보유한 지분 100% 중 27%를 인수하게 되고, 탐사 성공시 추가로 23%에

93) 잠빌 광구의 개발권 협상이 난항을 겪은 이유는 경제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유전 개발업계에서는 보통 탐사성공 확률이 15% 이상이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유전이라고 평가하는 데, 잠빌 광구의 평가 결과 성공할 확률이 무려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자흐스탄은 1사 1광구 원칙을 들면서 4개 광구로 이루어진 잠빌 광구를 다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2개 광구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기로 하였으며, 퇴역군함 제공, 석유화학업계의 산업협력 강화 등을 계약 부가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대한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탐사가 성공할 경우 한국은 50%의 지분과 광구에 대한 공동운영권을 가지면서 약 8.3억 배럴의 석유를 확보하게 된다. 한국컨소시엄에는 한국석유공사를 중심으로 SK, LG상사, 삼성물산, 대성산업,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와 LG상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중부 악토베(Aktobe) 지역 ADA 광구는 2006년 7월 첫 시추공에서 석유발견에 성공할 정도로 경제성이 높은 유전이다. 현재 추정 매장량은 1.7억 배럴 정도이나, 광구가 카스피해 오일벨트 지역⁹⁴⁾에 위치해 있어 실제 매장량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LG상사와 SK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전체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공동운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8 광구도 ADA 광구처럼 카스피해 오일벨트 지역에 위치해있다. 추정 매장량은 2.5억 배럴에 달한다.

LG상사가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지분 50%를 인수하여 개발 예정인 에기즈카라(Egizkara) 광구는 프리카스피안(Pre-caspian) 분지 북동쪽에 자리한 육상광구로 2억 배럴의 추정 매장량을 자랑한다. 세하(舊 세립제지)와 우리투자증권 컨소시엄인 KS에너지가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2005년 7월부터 공동 개발하고 있는 사크라마바스(Sarkramabas) 광구와 웨스트 보조바(West Bozoba) 광구는 매장량이 각각 2.7억 배럴과 1.6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하 측은 우선 사크라마바스 광구에서 2008년 말부터 석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가스전인 남카르포프스키(South Karpovsky) 가스전은 한국석유공사와 5개 민간기업이 구성한 한국컨소시엄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추정 매장량은 약 4,600만 톤으로 2007년부터 본격 개발 중이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개발하고 있는 광구는 아랄해 가스전과 나망간

94) 카스피해 오일벨트 지역(Caspian Oil Belt Zone)은 카스피해 북동 해안과 북서부 내륙에 걸쳐 띠를 형성하고 있는 유전지역으로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 유전인 카샤간 유전과 텡기즈 유전, 카라차가나크 유전 등이 위치해 있다.

(Namangan) · 추스트(Chust) 유전이다.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과 2006년 3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한국 답방으로 논의가 시작된 아랄해 가스전은 2006년 8월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5개국 기업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간 생산물분배협정이 체결되면서 개발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아랄해 가스전 지분은 한국의 석유공사, 러시아 LUKoil, 말레이시아 Petronas, 중국 CNPC, 우즈베키스탄 Uzbekneftgaz의 5개 기업이 20%씩 균등 분할해 보유하고 있다. 아랄해 가스전의 수익은 추후 협의할 로열티와 투자비용을 회수한

■ 표 5-10. 한국의 중앙아시아 석유 · 가스개발 현황(2007년 6월 기준) ■

국가	개발광구	한국 참여기업	한국 지분	추정매장량
카자흐스탄	잠빌(Zhambyl) 유전	한국컨소시엄 (공동운영)	27%(탐사 성공시 추가 23% 선택권) * 한국컨소시엄 지분의 참여사별 비중: 한국석유공사 35%, SK 25%, LG상사 20%, 삼성물산 10%, 대성산업 5%, 대우조선해양 5%	16.6억 배럴
	ADA 유전	한국컨소시엄 (공동운영)	50%(석유공 22.5%, LG상사 22.5%, 기타 5%)	1.7억 배럴
	에기즈카라 (Egizkara) 유전	LG상사	LG상사 50%	2억 배럴
	남카르포프스키 (South Karpovsky) 가스전	한국컨소시엄	50%(석유공 17.5%, GS홀딩스 12.5%, 경남기업 7.5%, 금호석유 5%, 현대중공업 5%, 카즈너지 2.5%)	4,600만 톤
	사크라마바스 (Sarkramabas) 유전	KS에너지(세하, 우리투자증권 등)	50%(세하 25%, 기타 25%)	2.7억 배럴
	웨스트 보조바 (West Bozoba) 유전	KS에너지(세하, 우리투자증권 등)	50%(세하 25%, 기타 25%)	1.6억 배럴
	8광구 유전	LG상사, SK	100%(LG상사 50%, SK 50%)	2.5억 배럴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가스전	석유공	20%(생산물분배조약)	3,600만 톤
	나망간 (Namangan) 유전	한국컨소시엄	사업성 평가 수행 (2006년 12월)	4.35억 배럴
	추스트 (Chust) 유전	한국컨소시엄	사업성 평가 수행 (2006년 12월)	3.8억 배럴

자료: 저자 작성.

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지분참여회사가 50:50으로 분배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동쪽 페르가나(Fergana) 분지에 위치한 나망간(Namangan)·추스트(Chust) 유전은 추정 매장량이 각각 4.35억 배럴과 3.8억 배럴에 달한다. 2006년 3월 Uzbekneftegaz와 한국석유공사간 공동조사 및 탐사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었고, 현재 기술자료 수집과 사업성 평가작업이 수행 중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고 현재 한국이 석유·가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는 없다. 그러나 최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자원협력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5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LG상사 등 총 6개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자원협력사절단을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하여 향후 투르크메니스탄 자원개발협력, 양국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 등 양국간 자원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국가 중 러시아에 이어 천연가스 매장량 2위 보유국(세계 12위)이다. 그동안 前 니야조프 대통령의 독재와 폐쇄경제정책으로 외국의 자원개발 진출이 부진했으나, 최근 신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카스피해 해상 30여 개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은 향후 한국의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 광물자원

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석유·가스 뿐 아니라 광물자원개발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정부 및 민간기업들은 최근 광물성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한국 기업들의 위기가 아닌, 해외광물자원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석유·가스 뿐 아니라, 우라늄, 금, 구리, 아연 등이 고루 대량 매장되어 있는 세계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석유·가스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 중앙아시아 광물자원개발은 떠오르는 블루오션이다.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개발에 중점을 두는 광물자원은 우라늄이다. 원자력 발전 원료인 우라늄은 1kg으로 석유 300 드럼과 맞먹는 열량을 내기 때문에 식량, 석유에 이은 3대 전략물자로 인식된다.⁹⁵⁾ 한국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0기 이외에 2020년까지 8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의 자주개발률을 높여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우라늄 공동개발 및 장기도입 계약을 맺는데 성공하였다. 2006년 8월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잔타우르(Djantaur) 우라늄광을 본격 개발하는 데 합의하였다. 잔타우르 우라늄광은 한국 우라늄 도입량의 6.5년치에 달하는 2.6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이르면 2007년 말에 대한광업진흥공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2009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11년에는 연간 400 톤 규모의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된 우라늄 정광도 2010년부터 5년간 1,500 톤 규모를 도입하는 데 합의하였다. 카자흐스탄과는 우라늄 장기도입 MOU를 체결하고, 2010년부터 7년간 총 2,350 톤 규모의 우라늄

■ 표 5-11. 한국의 중앙아시아 광물자원 개발 현황(2007년 6월 기준) ■

국가	개발사업	한국 참여기업	한국 지분	추정매장량	개발단계
카자흐스탄	아약코잔 구리광	포넷	합작법인 지분 60%	5만 톤(가채)	타당성조사
	카라타스 몰리브덴 동광	엔디코프	33.3%	-	개발준비
우즈베키스탄	자파드노 금광	광진공, 경남기업, 대우, SKN	50% (광진공 20%, 기타 각 10%)	60 톤	타당성조사
	잔타우르 우라늄광	광진공	50%	2.6만 톤	타당성조사 결과분석

자료: 저자 작성.

95) 국정브리핑(2007. 7. 2), “21세기는 원자력 발전원료 우라늄 확보 전쟁”.

정광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신규 우라늄광에 대한 공동개발 및 원자로 건설 협력을 포괄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외에 파생금융상품 기업 포넛은 카자흐스탄 아약코잔 구리광에 합작법인 지분 60%를 획득하고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중심으로 경남기업, 대우, SKN이 참여하는 우즈베키스탄 자파드노 금광 개발은 2006년 3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 표 5-12. 한국의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일지(2007년 6월 기준) ■

연월일	내용
2004. 3. 12	제 1차 한-카자흐스탄 자원협력위원회(아스타나), 광물자원 공동조사 MOU 체결
2004. 9. 20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아스타나), 카스피해 유전 및 우라늄광 공동개발 MOU 체결
2005. 2. 24	석유공-Kazmunaigaz, 카자흐스탄 잠빌(Zhambyl)광구 공동개발 기본협약 체결
2006. 3. 29	석유공-Uzbekneftegaz,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추스트(Namangan-Chust) 광구 공동조사 및 탐사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광진공-우즈베크 국가지질광물위, 자파드노 금광 공동탐사 계약
2006. 7. 6	석유공-LG상사, 카자흐스탄 ADA 육상광구서 양질원유 발견
2006. 8. 7	LG상사-SK, 카자흐스탄 8광구 탐사 공동운영 시작
2006. 8. 30	석유공,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가스전 PSA 체결
	한-우즈베키스탄, 잔타우르(Djantaur) 우라늄광 개발 합의
2006. 9. 1	제 3차 한-카자흐스탄 자원협력위원회(아스타나), 카스피해 잠빌광구 지분 양수도 협상 최종 타결(27% 지분 인수, 탐사 성공시 23% 지분 선매권 확보)
	제 3차 한-카자흐스탄 자원협력위원회(아스타나), 우라늄정광 장기도입 MOU 및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체결
2006. 9. 20	LG상사, 카자흐스탄 에기즈카라(Egizkara) 광구 지분 50% 인수
2006. 12. 12	석유공 컨소시엄, 카자흐스탄 남카포프스키(South Karpovsky) 가스전 지분 50% 인수
2007. 1. 15	세하(구 세립제지), 카자흐스탄 사크라마바스(Sarkramabas) 광구서 오일 플로 발견
2007. 5. 14	산업자원부, 투르크메니스탄에 민관 자원협력사절단 파견

자료: 저자 작성.

3. 대외원조

가. 한국의 중앙아시아 대외원조정책

한국의 대외원조정책 기본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목표를 공유함과 아울러 주요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개척을 지원하는데 있다.

한국의 대외원조는 1987년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양허성 현물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기술협력과 증여성 원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KOICA는 아시아, 중남미, 동구·CIS,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등 6개 지역에서 18개국을 중점지원국가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EDCF는 총 83개국을 지원대상국가로 선정하고, 이중 한국과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은 13개국을 중점지원국가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 대외원조 대상국의 선정은 개발도상국의 국민총생산 규모, 한국과의 정치외교관계, 교역규모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KOICA의 주요 무상원조사업으로는 한국의 경제개발경험과 산업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양국 경제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사업, 개발도상국의 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단, 봉사단, 태권도사범 등의 파견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 현실적으로 필요한 물자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물자지원·긴급원조·프로젝트 사업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EDCF 자금지원은 전체 지원대상국가를 UN 분류 최빈국과 세계은행 분류 I~IV 그룹 등 총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 중점지원국가를 선정하고, 지원조건으로 금리,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을 차등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대외원조는 KOICA의 무상원조와 EDCF 유상원조의 메커니즘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동구·CIS 지역 KOICA 무상원조와 EDCF 유상원조 중점지원국가에 공통으로 선정되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경제규모, 한국과의 관계, 향후 경제협력 잠재력 등이 나머지 중앙아시아 3개국 및 기타 동구·CIS 국가들에 비해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

KOICA의 개발도상국 무상원조는 한국의 주요 경제협력대상국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아시아의 비중이 2006년 기준 36.5%로 가장 높으며,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동구·CIS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6%이다. 동구·CIS의 비중은 2001년 10.8%로 최대를 기록한 이래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6년 중앙아시아의 무상원조 비중은 세계대비 3.0%에 불과하나, 동구·CIS 31개국 무상원조의 82.9%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53개국이 10.9%, 중남미 33개국이 7.5%, 대양주 15개국이 1.2%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잠재성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표 5-13. 한국의 대외원조 중점지원국가 운영 현황(2006년 말 기준)

지역	KOICA(18개국)	EDCF(13개국)
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남미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동구·CIS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동	-	-
아프리카	가나, 이디오피아, 케냐, 콩고, 탄자니아	알제리, 가나

자료: 재정경제부.

표 5-14. 한국의 KOICA 무상원조 세계 지역별 비중

(단위: %)

지역 \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동구 CIS (31국)	세계대비		3.3	3.8	4.5	6.1	7.3	9.1	8.1	7.8	8.0	8.2	10.8	7.8	4.1	3.6	4.4	3.6	5.5
	중앙 아시아 (5국)	세계 대비	0.0	0.6	1.3	2.1	2.7	4.1	3.7	4.0	4.4	4.2	7.1	4.3	2.5	2.3	2.2	3.0	3.0
	동구CIS 대비		0.0	17.1	28.1	34.8	36.8	44.7	46.0	50.8	55.7	52.0	65.4	55.4	60.8	63.2	49.2	82.9	55.3
아시아 (23국)			20.9	18.1	24.6	29.2	31.4	34.6	33.5	30.9	50.2	50.0	45.6	46.4	39.9	34.6	32.5	36.4	36.5
중동 (14국)			1.2	0.9	1.3	2.2	2.8	2.5	4.0	7.5	1.9	1.7	1.0	2.1	34.0	39.0	37.1	28.3	21.5
아프리카 (53국)			24.3	22.3	20.5	19.7	17.7	15.0	13.0	14.9	8.5	11.3	8.5	14.8	6.5	8.0	7.5	12.1	10.9
중남미 (33국)			15.4	10.2	11.8	9.3	7.3	7.8	14.1	12.2	6.7	8.4	5.7	12.3	5.4	4.9	5.7	7.2	7.5
대양주 (15국)			3.8	4.5	3.6	2.7	2.9	2.8	3.1	2.1	1.8	1.1	1.2	1.2	0.6	0.4	0.4	0.8	1.2
국제기구			3.1	2.2	2.8	3.6	3.7	2.9	3.6	4.1	2.6	2.1	9.9	0.8	0.8	0.5	3.9	0.6	2.4
기타 일반			28.0	38.1	31.0	27.2	26.9	25.1	20.5	20.4	20.3	17.4	17.2	14.6	8.8	9.1	8.5	11.0	14.4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표 5-15. KOICA의 중앙아시아 무상원조 동향

(단위: 천 달러)

연도/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1992	75	104	10	-	-	189
1993	163	190	5	28	-	384
1994	248	488	81	-	-	817
1995	707	470	73	53	18	1,320
1996	954	1,032	111	62	28	2,186
1997	721	1,062	157	94	41	2,076
1998	753	690	48	12	18	1,521
1999	1,036	590	30	26	3	1,685
2000	1,193	662	45	9	14	1,923
2001	882	2,325	65	558	-	3,830
2002	1,251	1,122	213	88	-	2,673
2003	1,352	1,365	203	148	-	3,068
2004	1,685	1,997	236	135	14	4,067
2005	1,336	2,814	207	228	-	4,585
2006	1,756	3,709	308	-	8	5,781
합계	14,112	18,618	1,792	1,440	143	36,106
비중(%)	39.1	51.6	5.0	4.0	0.4	100.0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중앙아시아 무상원조는 1992년 18만 9,000 달러를 시작으로 2006년에 578만 1,000 달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 중 대부분은 [표 5-13]에 나타난 대외원조 중점지원국가 분류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1992~2006년 중앙아시아 무상원조 총액을 기준으로 51.6%는 우즈베키스탄, 39.1%는 카자흐스탄에 지원되었다. 그만큼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16. KOICA의 중앙아시아 세부사업별 무상원조 실적(1991~2006년)

분류/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사업별 비중(%)
총계	천불	14,112	18,618	1,792	1,440	143	36,106	100.0
연수생	천불	2,534	3,627	430	340	73	7,003	19.4
초청	인원수	490	724	89	73	13	1,389	-
전문가	천불	443	866				1,309	3.6
파견	인원수	12	26				38	-
의료단	천불	1,617	1,070				2,687	7.4
파견	인원수	22	14				36	-
태권도사범	천불		294	447			741	2.1
파견	인원수		6	7			13	-
봉사단	천불	3,945	5,721				9,666	26.8
파견	인원수	153	338				491	-
협력요원	천불	1,135	538				1,672	4.6
파견	인원수	93	55				148	-
협력의사	천불	1,579	808				2,387	6.6
파견	인원수	35	19				54	-
물자지원	천불	846	1,218	835	563	70	3,532	9.8
	건수	13	21	14	17	3	68	-
긴급원조	천불		1,572	10	507		2,090	5.8
	건수		3	1	1		5	-
프로젝트	천불	1,922	2,701				4,622	12.8
	건수	6	7				13	-
민간단체	천불	75	204	70	19		368	1.0
지원	건수	4	7	2	1		14	-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표 5-16]에 나타난 세부사업별 무상원조 실적을 보면 연수생 초청(19.4%), 봉사단 파견(26.8%), 프로젝트 지원(12.8%)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은 외교부 재외공관 및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요조사에 의해 시작되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한국의 무상원조 수요가 특히 위 3개 사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수생 초청은 중앙아시아의 공무원 및 학생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의 단기간 경제발전 경험 및 산업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전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자신들의 성장 모델로 한국을 벤치마킹할 만큼 수요가 매우 높은 사업이며,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대표적인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봉사단 파견은 중앙아시아의 낙후된 교육, 의료 등 사회 인프라를 재건하고 한국의 뛰어난 IT 환경을 전수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EDCF 지원은 차주인 대상국 정부가 자국의 사업실시기관, 즉 발주처를 통해 한국에 사업을 발주하고, 한국은 발주된 사업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한 후, 현물을 대상국에 지원하는 구속성 현물차관⁹⁶⁾ 형식을 띠고 있다. EDCF 지원은 아래 [표 5-17]에 따라 집행되며,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II그룹, 카자흐스탄이 IV그룹의 중점지원국가로 지정되었다. 이에 KOICA 무상협력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EDCF 지원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표 5-18]에 나타난 국가별 승인현황을 보면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

96) 구속성 현물차관이란 EDCF 자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의 시행입찰을 한국 기업으로 제한한 차관을 의미한다. 2007년 7월 4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008년부터 EDCF 기금을 연간 1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업 시행입찰 대상을 전 세계 기업으로 확대하는 비구속성 차관을 점차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표 5-17. EDCF 지원대상국가 분류표

그룹	분류기준	지원조건 (금리, 상환기간/ 거치기간)	해당국가	
			중점지원국가	일반국가
I 그룹(17개국)	UN 분류 최빈국	0.5%, 30년/10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2개국)	15개국
II 그룹(17개국)	세계은행 분류 I 그룹 (1인당 GNI \$765 이하) 및 이에 준하는 국가중 최빈국 제외	1.0%, 30년/10년	베트남, 가나, 우즈베키스탄(3개국)	14개국
III 그룹(16개국)	세계은행 분류 II 그룹 (1인당 GNI \$766~1,465)	1.5%, 30년/10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4개국)	12개국
IV 그룹(22개국)	세계은행 분류 III 그룹 (1인당 GNI \$1,466~3,035)	2.0%, 25년/7년	알제리, 도미니카공화국, 카자흐스탄, 페루(4개국)	18개국
V 그룹(10개국)	세계은행 분류 III 그룹 (1인당 GNI \$3,036~5,295)	3.0%, 25년/7년	-	10개국
합계			13개국	69개국

자료: 재정경제부.

표 5-18. EDCF 지원 국가별 승인현황(2006년 말 기준)

순위	국가	건수	금액(백만 원)	비중(%)
1	인도네시아	13	263,441	9.8
2	중국	22	233,540	8.7
3	베트남	10	217,123	8.1
4	스리랑카	16	211,511	7.9
5	방글라데시	7	177,711	6.6
6	캄보디아	6	171,558	6.4
7	필리핀	8	122,399	4.6
8	우즈베키스탄	4	112,384	4.2
9	터키	3	88,997	3.3
10	몽골	8	84,023	3.1
...	...	...	...	...
37	카자흐스탄	1	16,269	0.6
38	키르기스스탄	1	16,114	0.6
...				
41	우간다	1	5,406	0.2
합계		112	1,616,248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으며, 중앙아시아 중 우즈베키스탄이 8위에 위치해있다. 우즈베키스탄 EDCF 지원은 2006년 말까지 4건에 약 1,124억 원을 승인받아 전체 금액 대비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전체 승인국 41개국 중 37위와 38위에 위치하여 전체 금액 대비 0.6%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EDCF 자금은 1990년대 중후반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쓰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 부문과 교육정보화 사업에 집중 지원되었다. EDCF 자금은 교통, 통신, 에너지, 수자원 · 위생, 환경보호,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등 다양한 경제 · 사회 인프라 부문에 지원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EDCF 차관을 통해 IT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과 교육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 EDCF 자금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집중된 것은 우즈베키스탄이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추진하면서 자국 산업 및 인프라 개발을 외국인투자보다는 EDCF같은 정부지급보증차관(state-guaranteed loan)을 도

■ 표 5-19. 중앙아시아 국별 EDCF 지원 승인 및 집행 현황(2006년 말 기준) ■

국명	사업명	사업연도	승인액		집행액(백만 원)		
			백만 원	백만 달러	'05년 누적	'06년 신규	계
우즈베키스탄	통신망 현대화	1996	12,486	15.0	12,450	-	12,450
	직업교육시설 개선	1999	39,251	35.0	38,431	-	38,431
	직업교육개발	2003	32,480	27.0	-	47	47
	교육정보화	2006	28,167	30.0		-	-
	소계		112,384	107.0	50,931	47	50,979
카자흐스탄	통신망 현대화	1996	16,269	20.0	16,140	-	16,140
	소계		16,269	20.0	16,140	-	16,140
키르기스스탄	통신망 현대화	1998	16,114	12.0	16,113	-	16,113
	소계		16,114	12.0	16,113	-	16,113
총계			144,767	139	83,184	47	83,23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입하여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여 한국 EDCF 자금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2000년대 이후 석유 및 가스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오일머니가 넘쳐나면서 더 이상 한국의 EDCF 차관을 원하지 않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2007년 3월 기준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 이니셔티브)⁹⁷⁾ 수혜국으로 지정되어, 현재 채무구제 단계에서 결정시점 이전(Pre-Decision-Point)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EDCF 자금의 추가적인 키르기스스탄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4. 종합평가

가. 무역 및 투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무역구조는 매우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 표 5-20. HIPC 이니셔티브 채무구제 단계별 국가 현황(2007년 3월 기준) ■

단계	완료시점 이후 국가 (Post-Completion-Point)	잠정 채무구제 국가 (Interim)	결정시점 이전 국가 (Pre-Decision-Point)
국가 수	22개국	8개국	10개국
현황	베냉,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에티오피아, 가나, 가이아나, 온두라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카라과,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부룬디, 차드, 콩고(공), 콩고(민주),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 라이베리아, 네팔, 소말리아, 수단, 토고

자료: World Bank(2007). HIPC at a Glance(www.worldbank.org/economypolicyanddebt).

97)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란 1996년부터 IMF와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이 고채무 저소득 국가의 채무를 구제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입하였으며, 1999년 확대(Enhanced) HIPC 이니셔티브로 개선되었다. 선정된 고채무빈국은 IMF와 IDA가 제시한 PRGF(Poverty Reduction & Growth Facility)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IMF와 IDA가 제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결정시점(Decision point)에 도달하면, 채무구제 여부 및 규모가 확정되어 잠정(Interim) 채무구제가 시작된다. 이후 추가적으로 IMF와 IDA가 제시한 프로그램과 결정시점에서 합의된 개혁을 추진하면 완료시점(Completion Point)에 도달하며, 이때 잠정 채무구제 금액을 제외한 잔여분의 채무구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0.01%로 매우 적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제 2의 수입대상국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중앙아시아 대외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무역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3개국은 한국의 무역대상국 순위에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있다. 상대적으로 교역비중이 높은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도 무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는 주요 금속 원자재의 수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반면, 기계류, 자동차 등의 한국 주력 수출품의 수출은 완만하게 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는 과거 대우자동차부터 시작된 인연으로 인해 자동차, 기계류 중심의 수출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교역잠재력은 매우 높으나, 실제 교역량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만 교역이 집중되고, 나머지 3개국과의 교역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한국이 여전히 새로운 수출대상국으로서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중앙아시아의 시장평가 및 중장기 경제발전전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는 점진적으로 막대한 구매력을 보유한 수출유망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은 중앙아시아를 단지 막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보고로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수출은 과거 대우자동차가 개척한 후광으로 우즈베키스탄에만 집중되고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미 주요 선진국들과의 수출경쟁에서 힘든 고전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이 상대적으로 덜 매장되어 있는 키르기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은 한국의 수출대상국에서 멀리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은 여전히 한국이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추진하기에는 물류비용이 너무 높아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EU나 CIS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키르기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은 아직 구매력

이 많이 부족하여 수출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무역자유화의 영향이 중앙아시아에 전파되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신실크로드 및 유라시아대륙철도 등이 현실화되면 사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구매력 증대, 물류환경 개선, 무역자유화 등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전망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금 부터라도 체계적인 중장기 교역확대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투자 부문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투자는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건수 기준으로는 0.5%, 금액 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하다. 또한 투자 대부분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3년간의 투자만 놓고 보면 카자흐스탄에 92.4%가 집중되었다. 이는 아직 중앙아시아의 투자환경은 열악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붐이 일고 있는 건설 및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앙아시아는 자원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를 바탕으로 산업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중앙아시아의 투자대상은 자원개발, 산업 인프라, 제조업 등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현재 한국은 수행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투자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는 자원보유국들은 전형적으로 주택 및 산업인프라 건설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우선 성장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카자흐스탄의 유동성 위기처럼 늘 투자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제는 단기적인 특수를 노리기보다는 체계적인 투자를 준비할 때이다.

투자목적별 통계를 보면 한국은 중앙아시아를 막대한 자원의 보고로 인식하고, 자원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가 잠재력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래 자원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시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중앙아시아의 자원개발 부문은 투자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따라서 투자경쟁에서 살아남아 국가의 자원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고급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운송인프라가 개선되고 무역장벽이 낮아진다면, EU와 러시아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 있는 제조업체의 진출을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그린필드형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투자통계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내용은 중앙아시아 투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대기업보다 리스크 흡수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진입장벽이 높은 중앙아시아에 적극 진출하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중국, 동남아 같은 시장을 피해 기업의 사활을 걸고 제 3의 시장을 개척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중앙아시아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은 중앙아시아의 무역 및 투자장벽 완화를 이끌어내는 협력체계 구축과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리스크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자원개발협력

한국은 중앙아시아를 주요 해외자원개발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자원의 소유권 확보, 국익 및 기업의 이윤창출, 안정적인 자주개발물의 확보를 위해 적극 진출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 부문은 중앙아시아 주요국들의 성장 원동력이자 최대 수출부문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및 보호하고 있으며, 아직 의사결정과정에서 국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도 정부차원 또는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를 한국 정부의 주요 자원외교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정상 및 정부 고위층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원개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공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또는 독자적으로 진출에 앞장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최대 자원보유국은 이미 주요 선진국 자본들이 대거 진출해있는 상태여서 한국에 돌아올 몫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자원개발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이 역시도 주요 선진국 자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둘째, 그동안 카자흐스탄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비체계적이고 근시안적이어서, 국가원수가 자원외교를 위해 순방한 후에야 비로소 정부 내에 그 국가를 담당하는 팀이 꾸려지는 수준이었다. 2007년 11월 15일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제 1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도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때늦은 감을 감출 수는 없다. 셋째,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적극 진출한다고 해도, 선진국의 자본력과 기술력에 밀릴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미래가 달린 자원개발 부문의 협력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가치를 인정해주고, 조금이라도 더 개발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수 밖에 없다. 이에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자본 공세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과 EU의 주요 다국적 에너지기업에는 기술력에서 뒤지고 있다. 정부가 제 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중점추진과제로 내세운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과 해외자원개발 기술수준 제고가 아쉬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아시아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자원개발대상국이다. 석유·가스 자원의 수입은 중동산 석유·가스에 비해 높은 물류비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발 후 제 3국 시장에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광물자원개발은 아직 외국인투자가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 진출하여 본국 수출 및 제 3국 수출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시장에서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히 인식한 바탕 하에 근시안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자원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대외원조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한국 기업의 진출 기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대외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대외원조는 KOICA의 무상원조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EDCF 자금 유상원조의 두 가지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KOICA의 무상원조에서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동구 · CIS 3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이는 중남미 3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 7.2%의 절반에 불과하다. 더욱이 중앙아시아 5개국의 비중은 3.0%에 그치고 있다. 재정경제부 EDCF 유상원조 규모도 중앙아시아에 지원되는 비중이 우즈베키스탄 4.2%, 카자흐스탄 0.6%를 합하여 전체의 4.8%에 불과하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한국의 대외경제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치이다. 반면에 한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으로 유무상원조가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개발도상국 원조 목적은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통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중앙아시아는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넘치는 구매력을 보유한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자원보유국 중심으로 대외원조를 실시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아시아로의 대외원조가 더욱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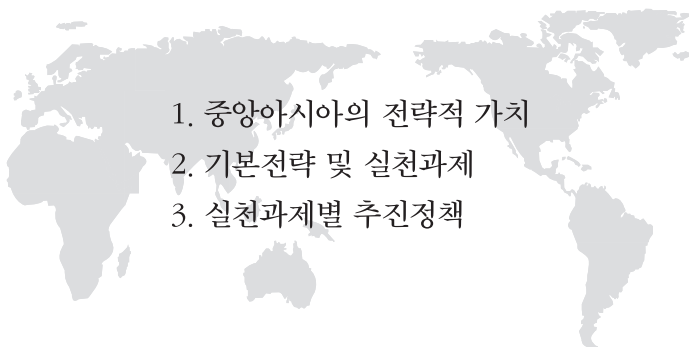
중앙아시아로 공여되는 유무상원조의 대부분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집중되었다. 한국 정부는 대외원조 중점지원국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하고 있다. 물론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는 중앙아시아의 2대 강국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 변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유무상원조 공여국을 새로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한국 유무상원조의 수혜가 그리 절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최빈국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한국

유무상원조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의 중앙아시아 대외원조 중점지원국가 선정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6장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이재영 · 신현준



1.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2. 기본전략 및 실천과제
3. 실천과제별 추진정책

한국의 대(對)중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이 재 영 · 신 현 준

1. 중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가. 높은 성장성·시장성을 보유한 신흥 무역투자 대상지역

BRICs 국가들의 경제성장 배후지(중국, 러시아, 인도 등 3개국의 교차점)에 위치한 중아시아는 2020년까지 약 6%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거시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중아시아는 포스트-BRICs 국가군으로 형성되어 높은 성장성·시장성을 보유한 신흥 무역투자 대상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중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에너지 및 원자재의 수출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및 원자재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국의 산업육성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산업 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 및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어, 자원개발과 각종 제조업 및 첨단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소득 및 구매력 수준이 급등하여 세계 주요국의 수출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측은 2020년까지 중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외 정치 및 경제적 환

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다. 우선 중앙아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점진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 현지 무역 및 투자 리스크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 니야조프 대통령 사후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정치적 악습을 점차 폐지하고 점진적인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전히 1인 독재를 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도 향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무역 및 투자 환경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게 되면 함께 역내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WTO 가입을 서두르게 될 것이고, 이는 중앙아시아의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 정도를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원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및 원자재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좀더 다각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자원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는 외국인투자도 제조업 및 첨단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나.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새로운 자원공급원

중앙아시아는 석유 · 가스 · 광물 자원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의 새로운 자원 공급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표 6-1]에 나타난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석유 · 가스 확인매장량을 살펴보면, 석유는 409억 배럴로 세계 확인매장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는 7조 7,300만 입방미터로 역시 세계 확인매장량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 매장량 기준으로는 석유는 약 2,500~3,000 억 배럴, 가스는 약 15~20조 입방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러시아와 함께 중동을 보완할 석유 · 가스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표 6-2]에 나타난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석유 생산량은 연간 7,960만 톤(일일 약 171만 배럴)로 세계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 생산량은 연간

1,415억 입방미터로 세계 생산량의 4.9%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석유는 카자흐스탄, 가스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주요 생산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는 R/P 비율이 중동 주요 산유국과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향후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

■ 표 6-1.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석유·가스 확인매장량 현황(2006년) ■

국가	석유			가스		
	확인매장량 (십억 배럴)	대세계 비중 (%)	R/P 비율	확인매장량 (조 입방미터)	대세계 비중 (%)	R/P 비율
카자흐스탄	39.8	3.3	76.5	3.00	1.7	100 이상
우즈베키스탄	0.6	-	13.0	1.87	1.0	33.7
투르크메니스탄	0.5	-	9.2	2.86	1.6	46.0
합계	40.9	3.3	-	7.73	3.3	-

자료: BP(2007).

■ 표 6-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석유·가스 생산량 현황(2006년) ■

국가	석유		가스	
	생산량 (백만 톤)	대세계 비중 (%)	생산량 (십억 입방미터)	대세계 비중 (%)
카자흐스탄	66.1	1.7	23.9	0.8
우즈베키스탄	5.4	0.1	55.4	1.9
투르크메니스탄	8.1	0.2	62.2	2.2
합계	79.6	2.0	141.5	4.9

자료: BP(2007).

중앙아시아는 석유·가스뿐만 아니라 광물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멘델레예프 화학주기율표에 등장하는 모든 원소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다량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에너지원인 우라늄은 확인매장량 45만 톤으로

세계 1위이고, 구리도 전 세계 매장량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최대의 노천 금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 3위의 금 매장국이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다른 3개국에 비해 지하자원 매장량은 적지만, 키르기스스탄은 금, 타지키스탄은 알루미늄을 수출하고 있다.

다. 국제정치질서에서 신 거대게임(New Great Game)의 중심지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예로부터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심에 있었으나,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되면서 이 역할을 상실했다. 소련 붕괴 직후에는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불법 무기류 및 마약류를 유럽 및 러시아로 밀 반출하는 길목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고 중앙아시아에서 자원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풍부한 에너지와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유럽, 러시아, 중동, 중국 등에 둘러싸인 중앙아시아는 지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소련이 붕괴된 후 독립한 중앙아시아는 힘의 공백상태에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패권 및 경제적 이득을 쟁기려는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지역연구자들과 국제정치 학자들은 19~20세기 초까지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벌였던 ‘거대 게임(Great Game)’과 이를 대비시켜 ‘신 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명명하였다.⁹⁸⁾

걸프전 발발과 9·11 테러는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 지전략적 중요성을 한층 심화시켰다. 미국은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면서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군사기지로 활용하였다. 이 시기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련의 적통국인 러시아를 견제하고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던 시기였다. 특히 체제전환 초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해 미국, EU, 일본 등 서방 선진국들의 자본을 적극 끌어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98) 고재남(2007), pp. 17~18.

에는 미국의 지나친 중앙아시아 진출을 경계하던 러시아와 중국도 중앙아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도 단편적인 친서방정책에서 벗어나 자기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중국과 공조하여 결성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주요 강대국들이 벌이고 있는 신 거대게임의 중심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자원외교 경쟁이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6회 방문,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의 러시아 3회 방문 유치,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체니 부통령의 2006년 5월 중앙아시아 방문,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2006년 10월 미국방문 유치, 중국과 러시아의 제휴를 깨기 위한 인도와의 협력 등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중국은 2006년 7월 후진타오 주석의 중앙아시아 방문,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의 중국방문 유치, 러시아와 제휴를 통한 미국의 진출 견제 등의 자원외교 활동을 해오고 있다.

2. 기본전략 및 실천과제

가. 기본전략

중앙아시아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정치 및 경제 질서 속에서 그 가치가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고대로부터 실크로드의 중심지이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전략적 거점지이다. 지정학적으로도 중앙아시아는 막대한 에너지 및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망한 수출시장 및 자본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EU, 러시아, 동아

시아, 중동 · 아프리카 등 4개 경제권이 만나는 지역으로서 지정학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일본, 러시아, EU와 멀리 미국까지도 중앙아시아에서 자국의 세력을 넓히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이런 강대국들과의 경쟁을 통해 국제정치경제질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대 중앙아시아 통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6년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통상정책의 3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시한 한국의 통상전략은 △ 실질적 열린경제 △ 전략적 협력경제 △ 효과적 통상 거버넌스의 3가지이다. 3대 전략 중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에 입각하여 중앙아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은 ‘전략적 협력경제’이다.

전략적 협력경제는 경쟁축진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서로간의 보완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자유교역의 이득을 최대한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는 윈-윈 체제의 구축을 지향하는 개념이다.⁹⁹⁾ 특히 그동안 한국경제의 협력관계는 선진국과의 협력관계에만 중점을 두어왔고,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관계에는 소홀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대외경제적으로 당면해 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발전 잠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부존자원, 물류여건 등 자국이 처한 경제적 현실에 맞게 각자 다른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개방 및 무역투자자유화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한국이 중앙아시아와 전략적 협력경제를 추진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개별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과 투

99) 채욱 · 김세원 · 유재원 외(2006), p. 192.

자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2015년까지 산업혁신전략을 추진하면서 건축자재, 철강, 식료, 원유 및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SOC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까지 추진될 ‘중기 후생증진전략’을 통해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주요 수출품인 원면과 원면을 가공하는 섬유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설립 경험을 전수받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IT, 섬유산업, 관광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천연가스가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개발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출로 개척을 위해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에너지 및 광물 부존자원이 부족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시장개방도가 비교적 높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친시장적인 경제개혁을 가속화하여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키르기스스탄의 금, 타지키스탄의 알루미늄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유도하여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각국의 다른 경제적 상황과 전략을 감안할 때, 한-중앙아시아 간 고위급 회담 및 정책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대상국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진출을 연계·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국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투자를 하면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통상을 추진함에 있어 현지의 든든한 동반자인 고려인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¹⁰⁰⁾은 현지사정에 밝고, 현지의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개척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화 과정에서 고려인들을 적극 고용한다면 같은 핏줄이라는 유대

100) 현재 재외동포의 숫자를 600만 명으로 추산할 때, 흔히 ‘고려인’으로 지칭되는 구소련 지역의 재외동포는 약 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구소련 지역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 약 23만 명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계 덕분에 손쉽게 현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자본을 축적하여 자국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재력가와 중견기업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높은 투자장벽으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기업인들과 투자협력을 우선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한국 국민과 같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및 민간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 실천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전략적 협력경제를 위한 실천과제로서 △ 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 무역정책 전개 △ 개발도상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강화 △ 지역협력의 전략적 활용 △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등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¹⁰¹⁾ 이는 마치 중앙아시아를 염두에 두고 고안해 낸 것처럼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와 거의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수행한 연구결과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실천과제로 △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 경제개발 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 △ 전략적 지역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공동체 건설 △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등을 선정하였다.

1)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주도형 대외지향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통상정책은 내수시장을 개방하는 수동적 차원에서의 무역자유화와 선진국 산업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생

101) 앞의 책, pp. 219~237.

산기지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의 한국경제는 이미 전략적 산업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의 충분한 개방을 통해 세계무역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해있다. 따라서 대외지향적인 한국경제가 급변하는 대외경제환경에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무역 및 투자잠재력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무역 및 투자를 증진시켜야 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시장 중에서 특히 중아시아가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무역 및 투자대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아시아 국가들은 건설, 플랜트 등 산업인프라 구축, IT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 물류 및 운송체계의 현대화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중아시아는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경제발전 경험, 자본과 기술을 중아시아에 제공하고, 중아시아는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한국에 제공한다면, 향후 한국과 중아시아는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은 중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무역 및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세계 그 어떤 국가 및 지역보다도 우선하여 전략적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

2) 경제개발 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적으로 신흥시장의 경제적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무역 및 투자, 자원개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개발도상국과의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이 대외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에너지 및 원자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한국의 대개발도상국 정책은 시장개척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시장개척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외원조 활성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현지에 긍정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심는 공동번영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 한국의 중앙아시아 대외원조는 EDCF 자금 지원을 통한 각종 인프라 구축 지원,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신흥시장들이 급부상하고,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대외원조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앙아시아는 그 논의의 중심에 위치해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외원조 부문 중장기 통상전략은 중앙아시아로의 대외원조 비중을 높이는 것과 중앙아시아의 대외원조 중점지원국가를 재설정 하는 것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전략적 지역협력을 통한 경제 · 안보 공동체 건설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이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유라시아의 평화 정착과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지정학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양한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참여하여 유라시아의 거대한 정치 · 안보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9 · 11 이후 유라시아 대륙의 국제질서는 러시아, 중국, 인도 간의 대륙삼각체제에 의한 대륙주의적 흐름과 미국, 일본 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주의적 흐름이 공존하고 있다.¹⁰²⁾ 이러한 양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국제질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한국의 장기적인 번영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앙아시아는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이익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정학적 · 지경학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102) 박상남(2007). p. 24.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중앙아시아와 전략적인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대중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전반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중앙아시아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는 중앙아시아에 적극 진출하려는 미국, 중국, 일본, EU,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이자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인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동 의존도가 70~80%에 달하고 있다. 자체 생산되는 원유도 거의 없고 근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도 거의 없는 한국은 원거리 지역에서 수송되는 원유를 소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1년에 소비하는 2,300만 배럴 중 인근에서 수송되는 물량이 700만 배럴이고, 1,700만 배럴이 중동을 중심으로 원거리에서 수송된다. 북해산이나 러시아산 우랄유를 수입하는 것은 수송여건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송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비중동지역 석유개발을 통해 간접보험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근거리에 위치한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중앙아시아 지역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물론 중앙아시아에 매장된 석유·가스는 중동산을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산 석유·가스는 질이 중동산 보다 낮아 정제비용이 많이 든다. 산지가 내륙에 위치해있으며 수송인프라가 유럽 수출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중동보다 물류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도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입장에서조차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한국에 수출하는 것보다는 근거리에 위치한 CIS 주변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어서, 생산된 대부분을 CIS 및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 개발한 석유·가스를 한국에 직접 들여오는 것이 아닌, 제 3국으로 수출하고 얻은 소득으로 근거리 지역의 석유·가스를 수입한다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 구축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카자흐스탄 석유시장의 30%를 장악하고, 카자흐스탄 아타수에서 자국의 두산뜨까지 총연장 1,000km에 달하는 송유관을 건설하여 2006년 4월부터 송유를 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대형유전을 가지고 있는 페트로카자흐스탄(Petrokazakhstan)의 인수를 예상시가의 2배가 넘는 41억 8,000억 달러를 제시하여 차지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에너지 확보노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2005년에 단일 파이프라인으로는 세계최장(1,770km)인 BTC(바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을 완공하여, 러시아를 우회하는 안정된 에너지 수급망을 설치하는 등 자원개발 뿐만 아닌 송유관 건설사업도 매우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 중 석유와 우라늄에 관심을 갖고 있어 카자흐스탄의 석유와 우즈베키스탄의 우라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수급망 구축에 있어서 일본은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세 국가를 경유하는 원유수송 루트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러시아를 경유하는 원유수급망 구축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수급망 구축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한국도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실천과제별 추진정책

가.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1) WTO 가입 유도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중앙아시아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 정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무역 및 투자진출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 무역 및 투자는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에 비추어 보면 그 잠재력에 비해 모자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물류인

프라가 부족한 것에도 기인하지만, 중앙아시아의 무역 및 투자장벽이 높은 것도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러시아가 2008년 내에 WTO에 가입하게 되면, 그 영향은 역내 협력국가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전파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여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양국간 상설 통상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의 WTO 가입만으로는 양자간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 개선의 혜택은 모든 국가들이 최혜국대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선진국들과 어려운 경쟁을 펼쳐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통령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성향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된 형태이면서 모든 경제관계 전반을 다루는 국가주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정부간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앙아시아 시장을 세계 주요국에 비해 선점해야 할 것이다.

2) 국가주도의 현지 기업활동 지원 강화

중앙아시아의 WTO 가입 유도과 한·중앙아시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할 지라도, 실제로 현지에 무역 및 투자활동을 실행하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없다. 중앙아시아는 체제전환 국가의 특성상 아직 무역 및 투자환경이 열악하며 주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관점에서 민간기업에 자율적인 무역 및 투자활동을 맡기는 것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현지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역 및 투자장벽과 리스크가 높은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의 사활을 걸고 중앙아시아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그

러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하여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보험 및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지 투자기업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KOTRA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기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인큐베이터 제도를 중앙아시아에 도입하는 것이다. 투자기업지원센터는 현지 진출을 계획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에게 금융·법률·회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현재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 제도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지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을 선정하여, 진출 초기에 저렴하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중앙아시아에도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개발 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

1) 대외원조의 확대 및 효율적 재구성

중앙아시아는 높은 전략적 가치에 비해 한국의 대외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06년까지 KOICA 무상원조에서 중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재정경제부 EDCF 자금원조에서 중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의 5.4%에 불과하여,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 나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공여되는 대외원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대외원조규모는 GNI 대비 0.07%의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의 1/5에 불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7년 10월

에 발간한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한국의 대외원조규모가 2012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확대되는 것이 적정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¹⁰³⁾ 따라서 대외원조 비중을 늘리는 한편, 그 중에서도 중앙아시아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외원조의 비중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공여되는 대외원조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대외원조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막대한 오일머니가 유입되면서 대외원조가 절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최빈국들은 대외원조가 경제개발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중앙아시아 최빈국에 대한 대외원조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나라들에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조성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데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전략적인 자세로 중앙아시아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도 중앙아시아 최빈국에게 제공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이란 부존자원이 부족한 단점을 딛고 수출 중심의 대외지향적 정책으로 얻어진 산물이다. 따라서 부존자원은 부족하지만 오히려 시장개방도가 높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 특혜관세제도 수혜국 지정

한국은 최빈개도국에 대해 특혜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특혜관세제도(GSP)를 운영하고 있다. ‘최빈 개발도상국

1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p. 86.

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따르면, 아시아 13개국, 아프리카 34개국, 아메리카 1개국, 중동 1개국이 GSP의 수혜국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최빈국들은 GSP 수혜국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GSP 적용 수입액은 총수입의 0.9%에 불과하며, 이중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용비율은 0.1%에 불과하여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매우 인색한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은 어떤 국가가 GSP 수혜국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수혜국을 선정한 결과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앞서 언급한 전략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그 어떤 개발도상국들 보다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단 한 국가도 GSP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최빈개도국 중 섬유 및 의류산업 등 초기 제조업이 발전단계에 있고 우리나라로부터 자본재나 최종소비재 등의 수입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GSP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¹⁰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본 제안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대표적인 원면 생산지역으로, 섬유 및 의류산업이 대표적인 제조업이다. 또한 각국 정부는 산업다각화를 위해 섬유 및 의류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GSP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전략적 지역협력을 통한 경제 · 안보 공동체 건설

1) 유라시아 지역협력체의 전략적 참여¹⁰⁵⁾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유라시아 대륙의 유기적 연계성이 급속히 강화되고

104) 앞의 책, p. 88.

105) 본 장의 내용은 박상남(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강국인 러시아, 중국, 인도의 BRICs 중 3개국은 넓은 국토,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보유하여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유라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맹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극동 및 동시베리아를 개발하여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심에 편입하려는 러시아의 야심은 유라시아 횡단 철도 건설과 전략적 자산의 국유화 및 외국인 참여 제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로부터 에너지자원을 공급 받고, 유라시아 대륙 중심의 경제질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모든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중앙아시아의 역할이 다시금 부활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수많은 다자기구들과 협력체들이 성립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이다. 2001년에 SCO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 회원국 기준으로 국토면적이 3천만㎢로 유라시아의 대륙의 5분의 3에 이르며, 인구는 15억 명으로 세계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여기에 인도와 몽골, 파키스탄 등 옵서버 국가들을 포함하면 동남아와 한반도를 제외한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괄하고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구이다. SCO는 현재 지역적 다자 안보기구 역할에 머물지 않고 역내 투자와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지역경제협력기구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신생 강국들이 다수 회원국이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3국이 팽팽한 영향력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포괄하는 상호 이익이 되는 다자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중앙아시아 대한 중장기 통상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한국은 중앙아시아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SCO에 전략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앙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급변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정치·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의 심화 및 발전

2007년 11월 서울에서는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 1차 한·중앙아 포럼이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실질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양측 주요 정책 입안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본 포럼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한·중앙아시아 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자간 협력관계는 포괄적이지 못하고, 개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협력체계의 큰 틀을 형성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외교적 성과에 만족해야 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역내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국 위주의 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아시아 전체 국가들과 한국 간의 상호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적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현재의 협력구도는 건설·에너지·자원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협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양측간 경제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은 양측이 전략적으로 범지역적 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구도를 구축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본 포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 및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유라시아 지역에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안보 공동체를 건설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에서는 장기적으로 ‘한·중앙아시아 평화공동체’ 또는 ‘한·중앙아시아 평화네트워크’를 창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륙주의적 흐름과 아시아·태평양주의적 흐름을 네트워크링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실현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비핵국가들인 중앙아시아 5개국과 몽골, 한국을 잇는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경제공동체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⁰⁶⁾ 따라서 본

106) 박상남(2007), pp. 24~25, 제 1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자료집, 외교통상부.

제안은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1) 호양(Give-and-take) 및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 완벽히 상호보완적인 위치에 있다. 즉, 중앙아시아는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제조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국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에너지 및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과 기술을 현지에 이식 및 전수하는 적극적인 호양(Give-and-take)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양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맞춤형 전략 개발이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환경에 맞는 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상대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우리가 상대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원자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고위급 회담 및 정책협의체를 통해 빅딜(big deal)을 성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패키지 진출전략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는 에너지 및 원자재는 많이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비고유위산업(IT, 건설, 플랜트 등) 진출 확대와 해외자원개발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패키지(package)형 진출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석유개발사와 건설사가 동반 진출하여, 한 측에서는 석유를 개발하고, 한 측에서는 개발되는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 플랜트를 건설해주는 것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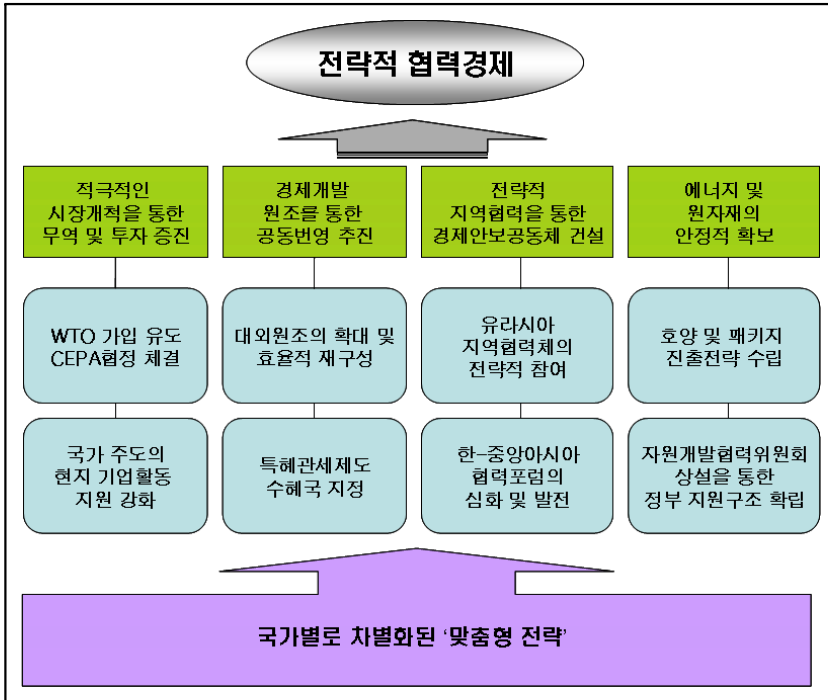
2) ‘자원개발 협력위원회’ 상설을 통한 정부 지원구조 확립

자본과 기술력에서 선진국에 뒤처지는 한국으로서는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확립이 우선하여야 한다. 앞서 주요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진출전략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중국과 일본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은 정부 및 공기업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참여를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 및 효율성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은 매우 많다. 우선 탐사 및 개발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잡기 위해 탐사 및 개발 전문 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호양 및 패키지 전략을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대상국에 신뢰를 주어야 한다. 또한 민간 에너지 기업이 수익성을 판단하여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강력한 외교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의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지원은 근시안적이고 비체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한국 국가원수가 자원외교를 위해 순방할 계획이 잡히는 경우에 긴급히 관련 정부 부서가 생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정부가 해주어야 할 다양한 역할을 집중 수행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구조 확립이다. 이에 ‘자원개발 협력위원회’를 상설할 것을 제안한다.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탐을 내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력을 총동원할 때만이 가능하다. 민간 기업은 철저한 상업적 기준에 따라 중앙아시아 자원개발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하며, 정부는 결정된 투자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정책을 통해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자원개발 협력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6-1.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개념도 ■



제7장

요약 및 결론

이재영 · 신현준



요약 및 결론

이재영 · 신현준

최근 중앙아시아는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딛고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에너지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각국의 시장성·성장성은 체제전환 초기에 비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자원 수출국에서 더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국제 수요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중앙아시아 경제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비교적 밝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원에 편향된 경제구조에 벗어나 산업다각화를 추진해야 하며,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친시장적 경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중앙아시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국별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은 석유·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 비수출국들은 자국의 전통산업인 농업과 광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중국, 터키, 이란 등 주변국들과 다양한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앙아시아는 높은 전략적 가치로 인해 세계 주요국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주는 전략적 가

치를 △ 높은 성장성·시장성을 보유한 신흥 무역투자대상지역 △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새로운 자원공급원 △ 국제정치 질서에서 신 거대게임의 중심지 등의 3가지로 제시하였다. 중앙아시아는 2020년까지 약 6%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포스트-BRICS 국가들 중에서 단연 높은 성장성·시장성을 보유한 신흥 무역투자대상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원 개발과 각종 제조업 및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활발하게 유치할 것으로 보이며, 높아지는 구매력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소비시장이 될 전망이다.

중앙아시아는 석유·가스·광물 자원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함께 중동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공급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석유는 카자흐스탄, 가스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주요 생산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R/P 비율(생산량 대비 매장량 비율)이 중동 주요 산유국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향후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러시아, 중동, 중국 등에 둘러싸여 있는 중앙아시아는 지정·지경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주요국의 대중중앙아시아 통상전략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중앙아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맹주로 입지를 굳히려 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협력체를 견제하면서 중앙아시아와 양자간 및 다자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원조성 투자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자국의 다국적 에너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개발에 진출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로드맵과 정보를 민간기업에게 제공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과감한 대외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독자적인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협력기반을 다지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및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를 설립함으로써 다른 강대국들보다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에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EU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선을 중앙아시아로 확대하고, 자국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개별 EU 회원국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중앙아시아의 빈곤 타파와 사회 및 경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중앙아시아 협력 파트너인 러시아는 구소련의 중주국다운 적극적인 대중앙아시아 외교를 바탕으로 체제전환 초기 멀어졌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중앙아시아가 에너지자원의 수출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커다란 외교·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무역 및 투자, 자원개발협력, 대외원조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통상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전반적으로 기대나 잠재력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무역구조는 매우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상호보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투자 부문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수출 및 투자대상지역으로서 중앙아시아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중앙아시아를 주요 자원외교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정상 및 정부 고위층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자원개발을 추진하려는 민간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자본력과 기술력이 밀릴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비체계적이고 근시안적이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이 KOICA 무상원조와 재정경제부 EDCF 자금으로 중앙아시아에 공여하고 있는 대외원조도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대외원조 중점지원국도 최근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어 원조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에 이제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하에 그동안의 대중중앙아시아 통상관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세계 주요국 못지않은 적극적인 대중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 전략을 수립할 때이다.

본 연구는 200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된 한국 통상정책의 3대 전략 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대중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전략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주요 연구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 경제개발 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 △ 전략적 지역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공동체 건설 △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등 4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본전략 하에서 실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제별로 추진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실천과제인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서는 i) WTO 가입을 유도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며, ii) 국가 주도의 현지 기업활동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무역 및 투자장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다자간 대화를 통해 WTO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양자간 대화를 통해 중앙아시아 5개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여 치열해지는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중앙아시아는 경제 전반에서 국가의 역할이 클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현지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KOTRA 부설로 추진되고 있는 ‘투자기업지원센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인큐베이터’ 제도 등을 중앙아시아에 도입하여, 자본·기술·정보가 부족하여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실천과제인 ‘경제개발 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을 위해서는 i)

대외원조의 확대 및 재구성, ii) 특혜관세제도의 수혜국 지정 등을 제시하였다. 중앙아시아는 높은 전략적 가치에 비해 한국의 대외원조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한국의 대세계 대외원조 규모와 함께 중앙아시아에 공여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또한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대외원조는 상대적인 반사이익이 높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최빈개도국 49개국에 대해 특혜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특혜관세제도(GSP)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최빈개도국들은 섬유 및 의류산업 등 초기 제조업이 발전단계에 있고, 우리나라로부터 자본재나 최종소비재 등의 수입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GSP 수혜국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단 한 국가도 수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GSP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실천과제는 ‘전략적 지역협력력을 통한 경제·안보 공동체 건설’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i) 유라시아 지역협력체의 전략적 참여, ii)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의 심화 및 발전의 2가지 추진정책을 제시하였다. 세계 주요국들은 유라시아 대륙 경제질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역협력체에 참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이다. SCO는 현재 지역적 다자 안보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점차 역내 투자와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지역경제 협력기구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유라시아 대륙을 포괄하는 상호 이익이 되는 다자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SCO를 필두로 한 다양한 유라시아 지역협력체에 참여하여 급변하는 유라시아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7년 11월에 서울에서 열린 제 1차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최초의 다자간 협력체라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포럼을 기반으로 다자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한·중앙아시아 평화공동체(가칭)’으로 확대·발

전시켜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 및 안보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이자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실천과제는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i) 호양(Give-and-take) 및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 ii) ‘자원개발 협력위원회’ 상설을 통한 정부 지원구조 확립의 2가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측면에서도 완벽히 상호보완적인 위치에 있다. 이에 한국은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을 제조업 및 기술을 제공하고, 중앙아시아로부터 에너지 및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호양(Give-and-take)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의 비교우위산업(IT, 건설, 플랜트 등) 진출 확대와 해외자원개발을 포괄하는 패키지(package)형 진출도 유효할 것이다. 또한 자본과 기술력에서 선진국에 뒤처지는 한국으로서는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확립이 우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부의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지원은 근시안적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자원개발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원구조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에 ‘자원개발협력위원회(가칭)’를 상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모든 실천과제 및 과제별 추진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한국이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기본 전제는, 중앙아시아 각국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과 경제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경제개발 전략과 투자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한·중앙아시아 간 협력체를 통해 대상국의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통상관계에서 현지의 믿을 수 있는 동반자인 고려인을 적극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은 현지 사정에 능통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및 민간차원의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명구·윤재희 공저. 2005. 『중양아시아 및 극동러시아 경제』. 서울: 북코리아.
- 고재남. 2005. 「유라시아 중부지역의 '신 거대게임'과 관련국 대응」. 『中蘇研究』, 제 29권 제3호, pp. 13~51. 서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_____. 2005. 「최근 CIS내 시민혁명의 현황과 전망」. 『主要國際問題分析』. 서울: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 국정브리핑. 2007. 「해외자원개발, 무조건 국내 들어오는 것 아니다」. (3월 23일자)
- 국정브리핑. 2007. 「21세기는 원자력 발전원료 우라늄 확보 전쟁」. (7월 2일자)
- 권율·김한성·박복영·황주성·홍수연. 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연구보고서 06-03.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대성. 2001. 『중양아시아 사회문화』, pp. 36~48.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성한. 2002. 「아프간 전쟁이후 美國의 對중양아시아 政策」. 『主要國際問題分析』, p.3.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상남. 2004. 「미국의 선택과 중양아시아」. 『국제지역 정보』 11월호,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_____. 2003. 「미군주둔 이후 중양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중양아시아국가들과 러시아,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응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7-3호.
- _____. 2006. 「상하이협력기구(SCO)와 한반도」. KNSI 특별기획 제 8호. 서울: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_____. 2007. 「한-중양아 중장기 협력방향과 과제: 공동 번영을 위한 다자·양자 협력 방안 모색」. pp. 24~25. 제 1차 한·중양아 협력 포럼 자료집. 서울: 외교통상부.

- _____. 2005. 「중국의 서부전략과 중앙아시아」. 『국제지역연구』, 31권.
- 박병인. 2004.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과 상하이 협력기구 연구」. 『중국학 연구』, 9월호.
- _____. 2005.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중국의 경제적 이해」. 『중국학 연구』, 31집.
- 박홍영. 2005. 「일본원조외교의 역할과 한계분석: 캄보디아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학과 일본」. 『한국정치학회보』, pp. 283~284.
- 산업은행 산은기술평가원. 2006. 『2006 테크노 리포트 - 우즈베키스탄과의 산업협력방안 및 산업은행의 역할』.
- 신범식 엮음. 2006.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 신현준. 2007.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현황과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지역경제 포커스 07-02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 2007. 『우리 기업들의 중앙아 5개국 진출 안내』. 제 1차 한 · 중앙아 협력 세미나. 서울: 외교통상부.
- _____. 2007. 『제 1차 한 · 중앙아 협력 세미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서울: 외교통상부.
- _____. 2007. 『제 1차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서울: 외교통상부.
- 이재영 · 신현준 · 김선영. 2005.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 경제 현황과 경제협력방안』.
- 이재영 · 김선영. 2005. 「바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 개통의 의의와 시사점」. 『월간 KIEP 세계경제』, 제8권 제8호.
- 이재영 · 박상남 편저. 2007.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영 · 윤성학. 2006.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가이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무역협회.
- 장병옥. 2001. 『중앙아시아 국제정치의 이해』, pp. 72~73.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주재우. 2004.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동북아 협력」. 『국제정치논총』, 44집 1호.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김명섭 역) 2000.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

과 유라시아』. 삼인.

채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2006.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06-01.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석희. 2004. 「중국의 부상과 책임대국론: 서구와 중국의 인식적 차이를 중심으로」. 『국제정치 논총』 44집 1호.

• 영문 자료

ADB. 2006. *Central Asia: Increasing Gains from Trade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in Trade Policy, Transport, and Customs Transit*. Asian Development Bank.

_____. 2005. "Central Asia Stronger Together." *ADB Review*. (October)

_____. 2007.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Allison, Roy. 2003. "Strategic Reassertion in Russia's Central Asia Policy."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80, no. 2.

_____. 2004a. "Regionalism, Regional Structures and Security Management in Central Asia,"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80, no. 3.

_____. 2004b. "Strategic Reassertion in Russia's Central Asia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80: 2, pp. 277-293.

Anna Kurbanova and Lyudmilla Glazovskaya. 1998. "Turkmen-Japanese Cooperation Committee Meets in Ashkhabad," Interfax

Ariel Cohen. 2002. "The U.S. must support energy security in the caspian against Iranian encroachment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1(13). pp. 35-40.

Astana. 2003. *Innovative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03-2015*.

Bates G. and Oresman M. 2003. *China's New Journey to the West: China's Emergence in Central Asia and Implications for U.S. Interests CIS*

Report.

BP. 2007. *BP Statistical Review 2007*. BP

Chafets, glenn, Michael Spirtas, and Benjamin Frankel. 1999. "Introduction: Tracing the Influence of Identity on foreign Policy." *Security Studies*, no. 8 (2/3).

Chotiev, Zakir. 2003a. "The Turkish Factor in The Evolution of The Central Asian Republic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2 (20).

_____. 2003b. "Introduction: Tracing the Influence of Identity on foreign Policy." *Security Studies*, 8 (2/3).

Clarke, Michael. 2005. "China's Strategy in Xinjiang and Central Asia: Toward Chinese Hegemony in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Issues & Studies*, vol. 41, no. 2, pp. 75-118. (June)

Cornell, Svante E. 2004 "The United States and Central Asia: In the Steppes to Stay?"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7, no. 2, pp. 239-254. (July)

Cornell, Svante E. and Regine A. Spector. 2002. "Central Asia: More than Islamic Extremists." *The Washington Quarterly*, 25: 1, pp. 193-206. (Winter).

Demir, E., Balci, A., Akkok, F. 2000. "The Role of Turkish Schools in the Educational System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n Countries: The Case of Turkmenistan and Kyrgyzstan." *Central Asian Survey*, no.19 (1).

Dowling, Malcolm and Wignaraja, Ganeshan. 2005. *Turning the Corner*. The Economic Revival of Central Asia, Public Policy Research Center.

_____. 2006. "Central Asia: Mapping Future Prospects to 2015." ERD Working Paper no. 80.

_____. 2006. "Central Asia's Transition after Fifteen Years: Growth and Policy Choices." SMU Economics and Statistics Working Paper

- Series.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 EIU. 2007. *Country Profile: kazakhstan, Kyrk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 _____. 2007. *Country Report: Kazakhstan, Kyrk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5. "Kazakhstan Country Analysis Brief."
- Global Insight. 2005. *PlanEcon Review and Outlook: Former Soviet Union*.
- _____. 2007. *Global Insight's World Overview*.
- _____. 2007. *Online Service - 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
- Guangcheng, Xing. 2002.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Extremism, and Separatism."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4 (16).
- Heritage Foundation. 2007. 2007 Economic Index of Freedom.
- IMF. 2007.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5a. *Regional Economic Outlook*. (September).
- _____. 2005b.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Department*.
- _____. 2005c. *Republic of Tajikistan: Selected Issues and Statistical Appendix*. IMF Country Report no. 05/131.
- Kalyuzhnova, Yelena, Pemberton, James and Mukhamediyev, Bulat. 2004. "Natural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in Kazakhstan." In Gur Ofer and Richard Pomfret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 - Sources of Long Term Growth*. Edward Elgar Publishing.
- Kasseniva, Togzhan 2004. "WMD Proliferation Threats in Central Asia." *The Kindalov, Vladimir and Oleg Limanov*. 2003. "Russia and China in Central Asia: Geopolitical Change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3 (21).
- Kozhikhov, Adil. 2002. "Middle East and The Caspian In The U.S. Energy

- Strategy.”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6 (18).
- Kundu, Nivedita Das, 2003. “Russia-India-China: Prospects for Trilateral Cooperation,” Aleksanteri Papers no. 3. University of Helsinki Aleksanter Institute.
- Kuchins, Andrew C. 2001. “Russia’s Relations with China and India: Strategic Partnerships, Yes; Strategic Alliances, no.” *Demokratizatsiya*, 9: 2, pp. 259-275. (Spring)
- Laumulin, M. 2005. “Turkey and Central Asia: Turkey as a New Geopolitical Actor in Eurasia.” *Central Asia’s Affairs*, vol. 1 (3).
- Legvold, Robert. 2003. “Great Power Stakes in Central Asia. In Robert Legvold ed. *Thinking Strategically: The Major Powers, Kazakhstan, and the Central Asian Nexus*.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Lena Jonson. 2003. “Russia And Central Asia: Post-11 September, 2001”.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1, vol. 19, pp. 86-87.
- Macfarlane, S. Neil. 2004.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ism in Central Asia.”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80, no. 3.
- Mariam Arunova and Gennadi Kochevoi. 2004. “Japan and the Caspian Oil.”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1 (25).
- Maybes, William. 2003. “America Discovers Central Asia.” *Foreign Affairs*, vol 82, no. 2, pp. 120-132. (March/April)
- Maynes, Charles William. 2003. “America Discovers Central Asia.” *Foreign Affairs*. (March/April)
- Mikhaylov, Vladimir and Smolnikov, Georgiy. 1998. “Ashgabat Is Making Use of Its Transit Possibilities”, Moscow Nezavisimaya Gazeta. (15 September)
- Michael Robert Hickok. 2000. “The Other End of the Silk Road: Japan Eurasian Initiative.” *Central Asian Survey*, no. 19 (1), pp. 17-39.
- Minasian, Sergy. 2003. “Russia-Iran: Military-political Cooperation and Its

- Prospect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5 (23).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Republic of Azerbaijan. 2006. *Economic Profile of the Country-2006*.
- Mogilevsky, Roman and Hasanov, Rafkat. 2004. “Economic Growth in Kyrgyzstan.” In Gur Ofer and Richard Pomfret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Sources of Long Term Growth*, Edward Elgar Publishing.
- National Bank for Foreign Economic Activit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ttp://eng.nbu.com/about/index_old.php)
- National Bank of Kazakhstan. 2003. *The Functioning of the National Fund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Powerpoint Presentation Material.
- National Bank of the Kyrgyz Republic 2006. Bulletin of NBRK
- Niyazov, Saparmurad Turkmenbashy. 1998. “Address to Turkmen-Japan Committee for Cooperation.” Ashgabat.
- Onis, Ziya. 2001. “Turkey and Post-Soviet States: Potential and Limits of Regional Power Influence.” *MERIA*, vol. 5 (2).
- Rasizade, Alec. 2003. “Entering the Old Great Game in Central Asia.” *Orbis*, vol. 47, no 1. (Winter)
- Repkine, Alexandre. 2004. “Turkmenistan: Economic Autocracy and Recent Growth Performance.” In Gur Ofer and Richard Pomfret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Sources of Long Term Growth*, Edward Elgar Publishing.
- Rumer, Eugene B. 2002. “Flashman’s Revenge: Central Asia after September 11.” *Strategic Forum*, no. 195. (December)
- Rutland, Peter. 2003. “Russia’s Response to U.S. Regional Influence.” *NBR Analysis*, vol. 14 no. 4, pp. 27-50. (November)
- Saat, J. H. 2005.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er, *Conflict Research Series* 05/09. (February)

- Siderov, Oleg. "Central Asia's Water Resources as a Causes of Regional Conflict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 Smolansky, Oles M. 1994. "Turkish and Iranian Policies in Central Asia." In Edited by Hafeez Malik, Macmillan eds. Central Asia.
- Spechler, Martin C. 2002. "Regional Cooperation in Central Asia."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49, no. 6, pp. 42-47. (November/December)
- Spechler, Martin, Kuatbay Bektemirov, Sergei Chepel' and Farrukh Suvankulov. 2004. "The Uzbek Paradox: Progress without Neo-liberal Reform." In Gur Ofer and Richard Pomfret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Sources of Long Term Growth*, Edward Elgar Publishing.
- Swanstrom, Niklas. 2005. "China and Central Asia: A New Great Game or Traditional Vassal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4 (45), pp. 569-584. (November)
- Swanstrom, Niklas L. P., Svante E. Cornell and Anara Tabyshalieva. 2005. "A Conflict and Security Analysis of Central Asia: With Focus on Kyrgyzstan and Tajikistan," Silk Road Studies Program,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June)
- Takeshi, Yuasa. 2006. *Japan's Policy toward Central Asia: Searching Multilateral Approach*. 한국정치학회 발제문.
- Toichi, Tsutomu. 1999. "Restructuring in the oil industry." The 2nd Asia Energy Security Roundtable, the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Tokyo. (27-28 May)
- Tomberg, Igor. 2003. "Energy Policy In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4 (22).
- Trofimov, D. 2001. "Tashkent between Ankara and Tehran: Lessons of the 1990s and Outlook for the Future."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5 (11).

- Tursunov, Bakhram. 2002. "Extremism in Uzbekistan."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er K* 33. (July)
- Umarov, Khojamahmad and Repkine, Alexandre. 2004. "Tajikistan's Growth Performance: The First Decade of Transition." In Gur Ofer and Richard Pomfret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Sources of Long Term Growth*. Edward Elgar Publishing.
- UN. 2007.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07*. United Nations
- UNDP. 2007.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UNDP
- Urazova, E. 2001. "Trends in Turkey's Economic Cooperation with Post-Soviet Turkic State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5 (11).
- Vasily Mikheev. 2004. "Applicability of SCO Experiences in Northeast Asia". 『Northeast Asian Cooperation & Lessons of SCO Experiences』. *The IFANS Workshop program*. Seoul, Korea.
- Victor, David G. and Nadejda M. Victor. 2003. "xis of Oil?" *Foreign Affairs*, vol. 82, no. 2.
- Vladimir Mikhaylov and Georgiy Smolnikov. 1998. "Ashgabat is making use of its transit possibilities". *Moscow Nezavisimaya Gazeta*. (15 September)
- World Bank. 2007. *HIPC at a Glance*. World Bank.
- WTO. 2007. *World Tariff Profile 2006*. World Trade Organization.
- Yuri Kochub. 2003. "GUUAM and Equal Regional Cooperatio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2 (20).
- Zakir Chotoev. 2003. "The Turkish Factor in The Evolution of The Central Asian Republic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2 (20).
- Zonn, Igory and Zhiltsov, Sergey. 2003. "Russia and the U.S.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A search for Regional Stability."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vol. 19, no. 1.

• 논문 자료

- Астапов К. 2005. “Формирование ед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тран СНГ.”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1.
- Ашимбаев М. С. и М. Т. Лаумулин. 2002.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до и после 11 сентября: геополитик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Алматы.
- _____. 2002. “Китайск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в регионе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овые тенденци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до и после 11 сентября: геополитик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Алматы.
- Комиссина И. Н. 1998. “Азиатский Вектор Политики Узбеки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 обретение нового облика*.
- Кузьмина Е. М. 2007. *Геополитика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 Наука, С. 19-20
- Мартынов А. 2005. “Перспективы постиндустриальн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и выбор долгосрочной стратегии стран СНГ.” *Общество и экономика*, No. 9.
- Ниязи А. 2006. “Киргизия и Туркмения: попытка сравнительного анализа моделей развития,”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No. 7, p. 43.
- Султвнов Б. К. и др. 2005. *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еформ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КИСИ
- Суюмбаев М., Мамытова А. 1998. “Природные ресурсы как фактор развития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No. 35.
- Чернявский Станислав. 2005.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эпоху перемен.”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No. 6.
- Курманова А., Абдуллаев У. 2007. “Узбекистан: спящий гигант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тратегии*, No. 2, p. 21.

• 인터넷 자료

National Bank of Azerbaijan(<http://www.nba.az>)
National Bank of Kazakhstan(<http://www.nationalbank.kz>)
National Bank of Kyrgyz Republic(<http://www.nbkr.kg>)
National Bank of Tajikistan(<http://www.nbt.tj>)
<http://www.adb.org>
<http://www.cainfo.ru>
<http://www.cbr.ru>
<http://www.census.gov>
<http://www.customs.gov.cn>
<http://www.eda.doe.gov>
<http://www.eximbank.kz>
<http://www.gks.ru>
<http://www.koreaexim.go.kr>
<http://www.mid.ru>
<http://www.mofa.go.jp>
<http://www.stat.gov.cn>
<http://www.stat.go.jp>
www.stat.kg
<http://www.stat.kz>
<http://www.stat.uz>
<http://www.trukmenistan.gov.tm>

.....

Executive Summary

Recently, Central Asia has emerged as one of the world's strategic trading partners, overcoming a steep economic decline during the transition. Central Asian countries are diversifying their industries in order to expand their economic driving forces, and are cooperating with nearby big countries based on intra-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s. Central Asia is a newly emerging source of supply of natural energy resources because it holds huge amounts natural resources in its territory. Moreover, it is a point of international strategic importance because it is surrounded by the EU, Russia, the Middle East, and China. Therefore, this research points out three strategic roles of the newly emerging Central Asia: a trade and investment partner, an important source of supply of energy resources, and the center of a New Great Game in an international order.

Major foreign countries try to strengthen their relations with Central Asia in various ways, and hav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 their statuses and strategies for entering Central Asia. The US is building bilateral and multinational dialogue channels with Central Asia and is participating in the energy development sector with economic aid to Central Asia. China's positive diplomatic relations and economic support in Central Asia based o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re enhancing the Chinese influence in terms of energy security. The EU and its member countries are interested in Central Asia as a new energy supplier and trade partner, and give positive aid to Central Asia through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Russia, which has been Central Asia's traditional cooperation partner since the Soviet Union, is taking a positive attitude for restoring its partnership with Central Asia. Korea also has been one of the Central Asia's trade partners based on commodity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energy development, and foreign aid. Nevertheless, Korea's performance is lower than its potential. Therefore, we suggest that we should establish a positive mid- and long-term trade policy toward Central Asia on the basis of Central Asia's strategic value.

This research took on four major tasks for the mid- and long-term trade policy: promoting trade and investment, giving positive foreign aid, constructing an intra-regional economic community, and strengthening energy security. Furthermore, it suggested some policies in detail for each task. For promoting trade and investment, Korea needs to encourage Central Asia's WTO accession and contract 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Central Asia. In terms of giving positive foreign aid to Central Asia, we should increase the amount of foreign aid given to Central Asia and reorganize the recipient countries. Additionall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grant a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to Central Asian countries. In order to construct an intra-regional economic community, we should participate i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deepen multinational cooperation on the basis of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trengthening energy security is the main task of Korea's trade policy toward Central Asia. For this, Korea needs to pursue "give-and-take" and "package entry" policies, and unify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energy development by establishing the tentatively named Overseas Energy Development Committee.

KIEP 발간자료목록 | 2006~2007. 12

■ 연구보고서

-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권 율·박복영·정성춘·이성봉 외
-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이홍식 외
-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김혁황·김민성·박철형
-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박제훈
-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이장규·박현정·여지나·배승빈·조현준
- 07-09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구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
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오용협·원동욱·나승권
- 07-10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
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이형근
-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최윤정·정재완·Prabir De
-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채 욱·한홍렬·신현준

-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 · 채 욱 · 이제민 · 이 근 · 이상철
-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채 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김홍중 · 신정완 · 이상호
-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권 율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박지현 · 이창수
-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김상겸 · 박성훈 · 박인원 · 박순찬
-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이성봉 · 윤미경 · 현혜정
-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이홍식 · 강성진
-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박월라 · 박현정 · 이 근 · 은종학
-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정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이형근 · 김은지
-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 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ictor Kalashnikov
-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 2007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곽재성
- 06-17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이홍식 · 신관호 · 이종화 · 김형주
- 07-0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 07-02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
양평섭 · 여지나 · 박현정 · 배승빈
- 07-03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 07-04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
권율 · 정재완 · 이재호
- 07-05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
김한성 · 배희연
- 07-06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
이순철 · 최윤정
- 07-07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
박복영 · 박철형
- 07-08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
박영호 · 허윤선
- 07-09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
이준규 · 김종혁 · 교회채 · 오민아
- 07-10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김원호
- 07-1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
김박수 · 홍유수 · 이철원 · 김균태 · 오태현

■ 지역연구시리즈

- 07-12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
이재영·한종만·성원용·이광우
- 07-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
이재영·신현준 편저
- 07-01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박상남
- 07-02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파워 통상
전략 / 이 근
- 07-03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
최의현·김완중
- 07-04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 훈
- 07-05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s / Anjan Roy
- 07-06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 인남식
- 07-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의 전수를 중심으로 / 전승훈·허길행·유철·최미애
- 07-08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안덕근
- 07-09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
주재우·김민수
- 07-10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정 훈
- 07-11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 임배진
- 07-12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
김영철
- 07-13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
하상섭
- 07-1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 전개 /
이상현
- 07-1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한종만

	07-16 주요국의 대중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상남 · 강명구
■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07-02 한·중 FTA 보건 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 Kenya Fujiwara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 Korea FTA / Zhang Jianping
■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	07-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 신현준 · 이광우 · 김정훈 07-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 김진수 · 유성준 07-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 정재완 · 김동현 · 박근형 07-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 권기수 · 지윤정 07-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 박영호 · 박범준 07-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 박철형 · 권세영

■ 세미나자료모음

07-07 인도의 주요 산업 / 최윤정 · 박민준 · 김정현

-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 07-02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 07-03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 · 안형도 · 박세훈 · 정옥주 · 이성수
-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양평섭 · 구은아
- 07-05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 07-06 한·뉴질랜드 경험방향과 통상전략 / 김한성 · 배희연
- 07-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박복영
- 07-08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
도의 실효성 검토 / 송영관 · 안준성
- 07-09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 방호경
- 07-10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 이준규 · 고희채

■ Working Papers

- 07-11 EU의 세계통상전략 / 김세원
- 07-12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 윤창인
-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 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곤
-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 · 한홍렬 · 김관호 외
-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 · 박순찬 · 정재완 외
-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 06-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 이성봉 · 김관호 · 이준규 · 현혜정
-
- 07-01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fect Intra-FDI? / Jung Sik Kim and Yonghyup Oh
- 07-02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 Inkoo Lee and Jonghyup Shin
- 07-03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Gravity Model / Hea-Jung Hyun and Hyuk Hwang Kim
- 07-04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The Necessary First Step / Kyung Tae Lee and Deok Ryong Yoon
- 07-05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rade-off Between FDI and Exports / Hongshik Lee and Joon Hyung Lee

- 07-06 Understanding Wage Inequality: Trade, Technology, and Location / Chul Chung and Bonggeun Kim
- 07-07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Count Regression Analysis / Jung Hur and Backhoon Song
- 07-08 Experimental Economic Approaches on Trade Negotiations / Hankyoung Sung
-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 06-03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 단행본

-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 · 외교통상부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홍중 · 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07-24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2007년 12월 20일 인쇄

2007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2135-9 94320
978-89-322-2064-2(세트)

정가 10,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D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